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 구상

Strategic Responses to the '2027 Seoul World Youth Day' and Linkag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장세길 김상엽 신지원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장세길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지원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 구상

Strategic Responses to the '2027 Seoul World Youth Day' and Linkag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장세길 김상엽 신지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장세길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제6장
공동연구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제4장 (순례길 정비 방안)
	신지원	연구원	제2장, 제5장

연구관리 코드 : 25JU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세계 청년을 환대·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WYD 주제를 지역사회에 융합하고, WYD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전주교구대회 지원 방안과 영성문화 거점화 전략·과제 도출임
- 이를 위해, 합리적 사고관점을 적용하여 1단계 환경 분석, 2단계 주요 시사점 도출, 3단계 전략과제 도출을 수행함. 구체적으로 환경 분석은 PEST 분석 방법론을, 미시적 환경은 3Cs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SWOT 분석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TOWS 방법으로 전략 방향을 도출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모두의 WYD와 환대의 영성문화 거점’을 위한 전략과 세부 사업 도출

- 이 연구에서는 “모두의 WYD”를 첫 번째 목표로, 이를 기회 삼아 전북을 “환대의 영성문화 국제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K-영성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환대의 문화로 모두의 WYD가 되도록 지원하고, WYD 이후에도 공존과 치유의 국제거점을 목표로 사업을 발굴함

〈2027 서울 WYD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의 목표, 전략, 세부사업(안)〉

목표	전략	세부 사업	주관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WYD 정신의 지역화	• WYD 주제를 반영한 ‘모두의 WYD’ 슬로건 설정	지
		•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용기학교(가칭) 운영	교
		• 다문화·약자와 함께 만드는 환대 프로젝트	도, 교, 민
		• ‘온숨’ 전북 버전 - 나무심기·생태 순례	교
		• WYD 유산화(Legacy) 프로젝트	지, 교
	전주교구대회지원	• 전북 민관협의체 구성: 전북WYD지원위원회(가칭)	도
		• 전주교구대회 지원 전담 전북도 조직(TF팀) 운영	도
	가장 한국적인 전주 교구대회 지원	•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 예술 환대 추진단(가칭) 및 예술 환대 봉사단 등 운영, 예술 환대 기록 프로젝트 추진	지, 재, 민
		•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과 WYD 홍보	지, 교, 재
		• 세계청년 전북대회: JYD-pre DID(Jeonju Youth Day)	지, 교, 재
		• 예술가·시민·신도가 만드는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 교, 재
		• 전주교구대회 주제, ‘일곱 개의 만남’ 연계	지, 시군
		• 전북도만의 ‘환대 꾸러미’(welcome kit) 제작 지원	지, 도, 재
		• K-공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 교
		• 전주교구대회 연계 전통예술행사 개최, 장소별 ‘예술난장’ 개최	지, 교, 재
		• 천주교 성지 활용 ‘K-미디어 파사드’ 공연	시군, 교, 민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K-영성 문화의 거점화	• 천주교 실감콘텐츠 개발: 디지털휴먼 기반 메모리얼 로드 구축	시군, 교, 민
		• 종교유산 공연 제작 및 상설 공연	교, 재
		• 순례길 명소화 사업(중·장기)	도, 교
		• 전주교구대회 연계 순례 프로그램(안): 치유관광과의 만남, 성지 걷기, 순례길과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과의 결합, 순례자의 치유	도, 교, 재
		• 다시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청년대회 기록관 조성	도, 교
		• 전북청년축제 연계, 리턴 청년축제 개최	도, 교
		• 전북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도, 교
		• 종교간대화센터(가칭) 건립	도
		• 종교 및 영성문화 국제행사 개발	도, 교
	전북 종교유산 국제화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북 지역의 천주교 교우촌(공소) 종합조사, 전북 지역 교우촌(공소)의 탁월한 가치 정립	도, 교
		•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국제순례지 지정 대상 설정, 국제순례지 지정 기초조사 및 조성계획, 국제순례지 지정 절차 추진, 전북 (전주) 국제순례지 명소화 사업 추진	도, 교
		• K-순례 네트워크 구축: ‘3대 권역 1개의 큰길’ 개념, 공동 협의체 구성 및 공동계획 수립, 물리적 인프라·노선 정비, 영성·사목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 교

* 주관: 지-지원위원회, 도-전북특별자치도, 시군-해당 권역 시군, 교-전주교구대회조직위원회,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민-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및 경과	9

제2장 종교유산 활용과 WYD 사례

1. 개념과 현황	13
2. WYD 개요와 준비 현황	25
3. 교구대회 운영 사례	29
4. 대회 이후 활용 사례: 충남	36
5. 종교유산의 국제화 사례	47

제3장 WYD 지원 및 연계 방향

1. 환경 분석	57
2. 전략방향 설정	66

제4장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1. WYD 주제의 지역화	75
	2. 전주교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78
	3. 가장 한국적인 전주교구대회 지원	87
 제5장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1. K-영성문화의 거점화	105
	2. 전북 종교유산의 국제화	131
 제6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159
	2. 실행 관련 제언	161
 참고문헌		 162
 영문요약(Summary)		 165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WYD 개최 현황과 참석자 수	3
[표 2-1] 전북의 종교단체 현황	16
[표 2-2] 전북 내 천주교의 주요 성지 (국가순례지)	18
[표 2-3] 전북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현황	19
[표 2-4] 세계종교문화축제의 특징	20
[표 2-5] 전북도 시군별 치유관광지 지정 현황	21
[표 2-6] 전북 성지해움길 프로그램 중 천주교 관련 프로그램 현황	22
[표 2-7] 성지해움길 천주교 여행프로그램 사례	22
[표 2-8] 전북 특화체험관광 프로그램 20선	23
[표 2-9] 전북형 치유관광지 30선	24
[표 2-10] 2027 서울 WYD 개요	25
[표 2-11] DID 프로그램 (2016 WYD 크라쿠프 대회, 브로츠와프 대교구)	29
[표 2-12] DID 프로그램 (2016 WYD 크라쿠프 대회,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	30
[표 2-13] DID 프로그램 비교 (2016 WYD 브로츠와프 대교와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	30
[표 2-14] 교황의 청년대회에 참여 계기가 된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의 편지 내용 설명	36
[표 2-15]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충남지역 일정	37
[표 2-16] 내포 천주교 순례길 개요	39
[표 2-17] 아시아청년대회 방문객 추정과 연계된 관광효과 추정	41
[표 2-18] 아시아청년대회 지역경제효과 추정	41
[표 2-19] 국제순례지 지정에 관한 주요 요건	47
[표 2-20] 국가순례지 지정 절차	48
[표 2-21] 주요 국제순례지	48
[표 2-22]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내용과 초남이 공소 유산군 현황	53
[표 3-1] WYD 연계 발전 전략 구상을 위한 PEST 분석 내용	63
[표 3-2] 모두의 WYD 및 영성문화 국제거점의 개념과 핵심 키워드	68

[표 3-3] 모두의 WYD 개최 및 영성문화 국제거점화를 위한 핵심 가치(3C+3H)	68
[표 3-4] 목표 실현의 다섯 가지 추진 방향	69
[표 4-1] WYD 주제 반영, '모두의 WYD' 슬로건(예시)	76
[표 4-2] 전북의 크루즈 관련 TF 구성 현황 및 계획(사례)	83
[표 4-3] 서울 '성수동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84
[표 4-4] 전주교구대회의 필요 자원봉사자 유형과 역할	85
[표 4-5] 전주교구대회의 폭염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예시	86
[표 4-6] 서울시의 '유스 페스티벌' 사례	89
[표 4-7] 시민참여,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시 (전주, 첫 마중길)	90
[표 4-8] 종교 관련 및 시민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례	91
[표 4-9] 오전 봉사, 오후 순례(관광) 일정의 프로그램(예시)	92
[표 4-10] 전북도 이웃종교 탐방길 현황	93
[표 4-11] 현대꾸러미(웰컴키트) 구성 예시	94
[표 4-12] 전통문화를 활용한 웰컴키트 사례	94
[표 4-13] 한국관광공사의 K-프렌즈(K-Friends) 사업	95
[표 4-14] 전북도 내 한국형 공소 현황	96
[표 4-15]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례	98
[표 4-16] 국립무형유산원의 2025년 7~8월 공연 현황	98
[표 4-17] 전주교구대회 거리예술 난장 공통 컨셉: VOC 중심	99
[표 4-18] 전주교구대회 메인 행사 거리예술 난장 구상(안)	99
[표 4-19] '빛의 성당 FIAT LUX', (주)씨티데이즈의 전주전동성당 미디어아트 쇼 프로젝트 ...	100
[표 4-20]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 개요	101
[표 5-1] 종교 유산 활용 상설공연 사례	107
[표 5-2] 순례자센터의 주요 사례	123
[표 5-3] 전북 순례방문센터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	126
[표 5-4] 다종교 기관 회의와 '하나의 집'(House of One) 사례	130
[표 5-5] 한국 천주교의 공소와 다른 지역 유산 사례와의 비교	131
[표 5-6] 국내 국제순례지의 지정 과정: 서울순례길, 해미무명순교자순례길	134

[표 5-7] 새복음화평의회역의 역할	135
[표 5-8] 국제순례지 지정의 핵심 요소	135
[표 5-9] 전주교구 순교자 ‘하느님의 종’ 24위	143
[표 5-10] 103위 성인 중 전주교구 순교자 7위	144
[표 5-11] 국제순례지 지정 대상에 대한 핵심 요소별 검토 결과	152
[표 5-12]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안)	153
[표 5-13] Pilgrimage Music & Cultural Festival 사례	156
 [표 6-1] 2027 서울 WYD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의 목표, 전략, 세부사업(안) ...	160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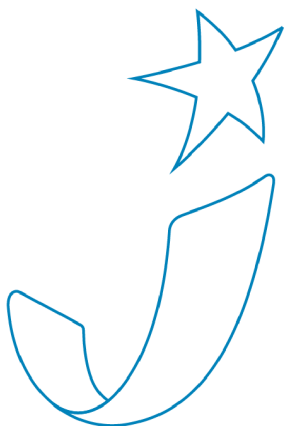
[그림 2-1] 종교문화 및 영성문화의 특징과 활용 방향	15
[그림 2-2]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선	23
[그림 2-3] 홈스테이의 의미	27
[그림 2-4] 홈스테이의 목적	27
[그림 2-5] 전주교구대회 일정(안)	27
[그림 2-6] 2023 리스본 WYD에서 교구행사 참여 사례	32
[그림 2-7] 솔뫼성지 및 해미읍성 방문 모습	37
[그림 2-8] 내포 천주교 순례길 코스와 주요 지점	39
[그림 2-9] 순례방문자센터 조감도	50
 [그림 3-1] WYD 지원 및 연계 전략 체계도	70
 [그림 4-1] 전북WYD지원위원회 조직도(안)	82
[그림 4-2] 남원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84
[그림 4-3] 풍남문, 전동성당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사례	101
[그림 4-4] WYD 대비 순례길 명소화사업(단기)	102
 [그림 5-1] 전주권역 천주교 성지 위치도	109
[그림 5-2] 전주시 권역 순례길 차량 및 보행동선	111
[그림 5-3] 순례길 명소화 사업 구상계획도(중·장기)	114
[그림 5-4] 2023 세계종교문화축제	128
[그림 5-5] 2014년 제안 영성문화체험 개념도	128
[그림 5-6]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종교화합 글로벌 문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	128
[그림 5-7] 천주교 순교의 정신과 의미	13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경과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¹⁾

가. 연구 배경

■ 대규모 외국인 순례자 참여 예상

-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는 198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젊은이에 관한 관심과 배려를 목적으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 세계 청년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국제대회로 성장함
- 2023년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2023.8.6)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하면서 ‘2027 서울 WYD’ 개최가 확정됨
- WYD는 교구대회를 참여한 뒤 본행사(서울)에 참여하므로, 지역교구대회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할 전망이다. 서울대교구의 전망치(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외국인 20~30만 명)를 기준으로 삼아²⁾ 전주교구대회조직위에서는 WYD 전주교구대회(이하 전주교구대회) 참여 인원을 4천여 명(등록 참가자)을 목표로 함. 이를 종합하면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하여 전주교구대회 방문객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1-1] WYD 개최 현황과 참석자 수

연도	개최 일자	국가	도시	참석자 수
1985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	300,000명
1987년	4월 11~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0,000명
1989년	8월 15~20일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0,000명
1991년	8월 10~15일	폴란드	체스토호바	1,600,000명
1993년	8월 10~15일	미국	덴버	500,000명
1995년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	4,000,000명

- 1) 장세길·김상엽·신지원. (2025). 종교를 넘, 전복 모두의 기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324호에서 주요 내용을 전제함
-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토 보고” 참조

연도	개최 일자	국가	도시	참석자 수
1997년	8월 19~24일	프랑스	파리	1,200,000명
2000년	8월 15~20일	이탈리아	로마	2,000,000명
2002년	7월 23~28일	캐나다	토론토	800,000명
2005년	8월 16~21일	독일	켈른	1,200,000명
2008년	7월 15~20일	호주	시드니	400,000명
2011년	8월 16~21일	스페인	마드리드	2,000,000명
2013년	7월 23~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700,000명
2016년	7월 26~31일	폴란드	크라쿠프	3,500,000명
2019년	1월 22~27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700,000명
2023년	8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	1,500,000명

자료: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2025.1)에서 재인용

- 교황이 역사 현장이나 성지, 종교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순례하는데,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 교황 방문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전북이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세계 청년이 전주교구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규모 행사에 대한 따른 전북의 대응이 필요함

■ WYD 정신의 지역사회 내재화 효과

-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행사)가 개최되면 그 대회가 지향하는 방향, 정신 등이 행사를 개최한 도시에 영향을 줌. WYD 역시 그 정신과 가치가 지역에 파급되는 계기가 됨
- 2027 서울 WYD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용기와 청년임. 두렵고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잃은 청년을 발굴하고, WYD를 계기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종교 및 순례 관광 활성화 계기

- 전북은 천주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6대 종교와 관련한 유산이 풍부하며,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사업(종교문화시설 건립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나, 종교 및 순례 관광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교 및 순례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 성찰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통해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관광을 말함

- 대규모 대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관광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해 그동안 미흡하였던 전북의 종교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순례지 조성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천주교의 경우 교회법전에 따라 순례지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국가순례지,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나뉘는데, 국제순례지는 세계적으로 30곳이 있으며 한국에는 서울(아시아 최초)과 해미읍성(서산시)이 있음
- 천주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과 비종교인도 방문하여 성찰과 치유를 경험하는 순례지는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공유하는 인류 보편 문화유산으로 인식됨.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 시코쿠 순례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전주는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지인 전동성당, 이들의 유해가 발굴된 초남이 성지, 기록으로 입증된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가 묻힌 치명자산 성지, 서울 서소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교 성인과 복자를 배출한 숲정이 성지가 있으며, 한국인 주교가 최초로 나온 자치교구(1939년)임. 이러한 역사에 WYD를 계기로 국제교류가 이뤄진다면 국제순례지 승인이 가능하리라 봄
- 또한, 세계 각국 성직자와 청년에게 한국 및 전북의 천주교 유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재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적인 종교공존 지역으로서 위상 제고

- 전북은 여러 종교가 발전한 영성문화 중심이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표 지역임. 특히 4대 종교가 손을 잡고 함께 순례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종교 문화축제를 진행하였음. 2012년에는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이웃종교 탐방길(아름다운 순례길) 10개 코스를 개발하는 등 종교공존 및 화합을 실천함

- WYD는 천주교 행사이지만, ‘2027 WYD 전주교구대회’ 주제가 ‘만남’(encounter)이라는 점에서 세계 순례자와 청년, 한국문화와의 만남 외에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실천하는 대회로 만든다면 종교공존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임

■ 2036 올림픽 유치 활용과 개최(후보) 도시 홍보

- 2036 하계올림픽 개최에서 전북(전주)이 갖는 강점은 K-문화 수도라는 점임. 여기에 종교 간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종교문화축제 등 종교 간 공존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올림픽 유치에 있어 전북의 경쟁력이 더 극대화될 것임

나. 연구 목적

-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종교행사인 WYD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없지 않음. 하지만 종교문화시설 조성, 순례길 조성 및 운영, 개별 종교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WYD는 세계 각국의 10~20대 청년과 일반 국민도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이뤄진다는 점, 대회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는 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북에 방문한 세계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WYD 정신과 주제를 지역사회에 내재화하고, ‘K-문화수도 전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순례지 승인 등 종교·순례관광 진흥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1차) 2026년 WYD 준비 단계 ~ 2027년 전주교구대회 기간
- (2차) 전주교구대회 이후 ~ 대략 10년 이내

■ 공간적 범위

- 전북도 일원
 - K-순례길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서울 및 충남 순례지까지 포함하여 구상

■ 내용적 범위

- 전주교구대회 지원 방안과 영성문화 거점화 전략 및 과제 도출

나. 세부 연구내용

■ WYD 현황과 지역별 동향

- WYD의 역사와 역대 현황(개최시기, 개최지, 참석인원 등), 각 대회의 상징적 메시지와 주요 개념, 참가 자격(대상연령, 선발기준, 참여방식 등) 및 주요 프로그램 분석 등을 통한 WYD의 의미와 대회 개최 지역에서의 과제 등을 분석함
- WYD에 대한 정부 및 다른 지역의 대응 동향을 검토하고, 전북이 준비해야 하는 공통 과제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 방향의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함
 - 교구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교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지역의 대응 전략을 파악, 지자체별 연계사업 검토 및 전북만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구상

■ 전북의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

- 2027 서울 WYD의 주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WYD의 지역별 대응 방향, 대회 준비 및 종교유산 측면에서의 경쟁력 등 전북의 관련 여건과 대·내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 방향을 도출함
- 전주교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 WYD를 계기로 전북의 영성문화 및 종교·순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세계청년을 맞이하고, K-수도 전북만의 차별화된 K-문화 청년대회를 운영하고, 국제순례지 승인 등 영성문화·순례관광을 진흥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검토

■ 전주교구대회 지원 방안

-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세계청년을 손님 맞이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
 - 전주교구에 속한 6개 지구별 행사를 대비하여 전북도-시군 참여협의체 및 종교를 넘는 포용적 행사가 되기 위한 사회문화단체 포괄 협의체 구성, 2026년 예비행사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 전주교구대회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순례지 정비 등 지원 방안을 구상
- 전북만의 차별화된 K-문화 청년대회가 되기 위한 지원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출함
 - 시군별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의 전통문화와 K-POP 등을 연계한 전북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홈스테이를 통한 K-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상
 - 대표 성지순례지로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순례길 정비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천주교 등 6대 종교와 전북의 문화를 연계한 행사, 또는 종교문화 분야별 국제적 행사나 축제 등을 발굴

■ 영성문화 진흥과 종교유산 글로벌화 방안

- WYD를 찾은 성직자와 청년을 통해 영성문화 중심이자 종교공존의 대표 지역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함
 - 전북의 순례지를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격상하는 방안,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의 협력 방안, 국제적인 종교·순례관광 거점을 목표로 하는 주요 과제를 구상

3. 연구 방법 및 경과

가. 연구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 정부(문체부), 서울시, 대회조직위(서울교구청), 각 지자체 등의 대회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전북 대외 준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
- 이전 대회의 성과와 한계, 특히 교구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현황, 성과와 문제점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전주교구대회의 지원 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함

■ 사례 분석

- WYD를 개최한 국가의 교구대회(2016 크라쿠프 WYD, 2021 리스본 WYD) 사례,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사례, 국제순례지로 승인된 서울·충남 사례, 천주교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충남 사례 등을 분석함

■ 전문가 자문 및 업무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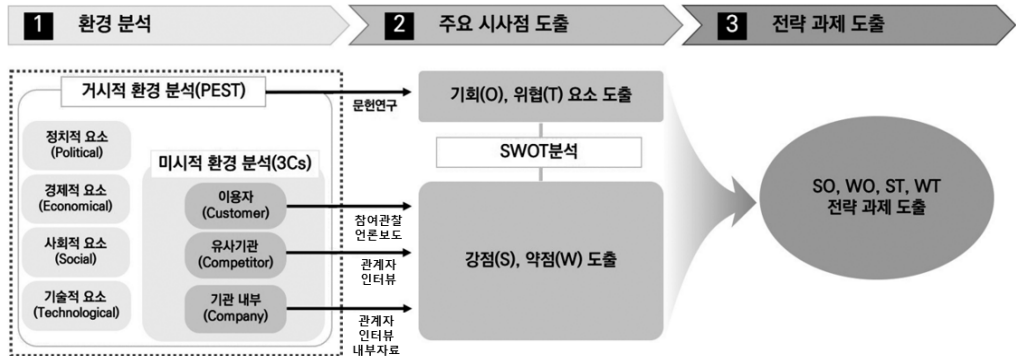
- 천주교 대회 관계자, 영성문화 및 순례관광 전문가, 순례지 정비 관련 전문가, K-문화 행사 전문가, 사회문화단체 관계자 등을 통하여 주요 연구 내용을 자문받음
 - 전주교구와의 실무협의,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의 자문 및 실무협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관계자, 순례길 관계자, 성지 정비 사업 관계자 등
- 연구진, 전북도 관계자, 전주교구 관계자 간 업무협의를 진행, 실효적 과제를 발굴함

나. 전략 도출 방법

■ PEST 및 SWOT 분석

-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합리적 사고관점을 적용하여 1단계 환경 분석, 2단계 주요 시사점 도출, 3단계 전략과제 도출을 수행함

- 환경 분석은 PEST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미시적 환경은 3Cs 분석을 통해 순례길 및 성지 이용자, 유사 기관, WYD 관련 내부 자료를 분석하였음. SWOT 분석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TOWS 방법으로 전략 방향을 도출함



다. 연구일정

연구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 고 서	1. 대회 현황과 지역별 동향 분석					
	2. 전북의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					
	3. 전주교구대회 지원 방안 마련					
	4. 영성문화 진흥과 종교유산 국제화					
	5. 정책 제언					
연구심의회			착수연심회			최종연심회



지자체·전주교구·전북연구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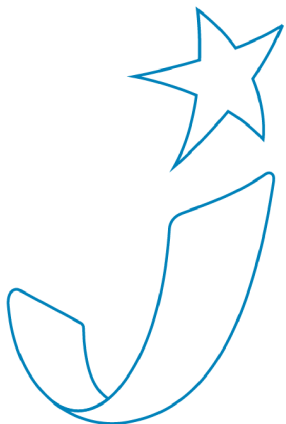
전주순례길 도보순례 현장





제2장

종교유산 활용과 WYD 사례



1. 개념과 현황
2. WYD 개요와 준비 현황
3. 교구대회 운영 사례
4. 대회 이후 활용 사례: 충남
5. 종교유산의 국제화 사례

제2장 종교유산 활용과 WYD 사례 ³⁾

1. 개념과 현황

가. 종교문화의 개념과 활용

■ 종교문화와 영성문화

- 종교와 영성은 인간의 삶과 문화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개념임. 전통적으로 종교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와 규범을 형성하였고, 영성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초월적 의미 추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함.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와 영성문화(spirituality culture)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Gall et al., 2011)
- 뒤르켐(Durkheim, 1912, 1995)에 따르면 종교문화는 종교적 신념, 의례, 제도, 전통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문화적 상징체계로 정착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교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 체험을 넘어서 사회적·문화적 제도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말해줌. 기어츠(Geertz, 1973) 또한 종교를 상징의 체계로 이해하며, 인간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문화적 메커니즘임을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문화는 집단적 행위, 제도적 장치, 전통과 규범의 전승에 중점을 두며,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형성함(Victor, 2020). 교회, 사찰, 성지와 같은 제도적 공간뿐 아니라 의례와 축제, 규범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영성문화는 종교문화와 달리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신성한 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임(Pargament, 1997). 전통적으로 영성은 종교 내의 수양과 내적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인간관계, 혹은 우주적 차원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함

3) 이 연구는 '2027 서울 WYD'에 관한 것이므로,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중에서 천주교 유산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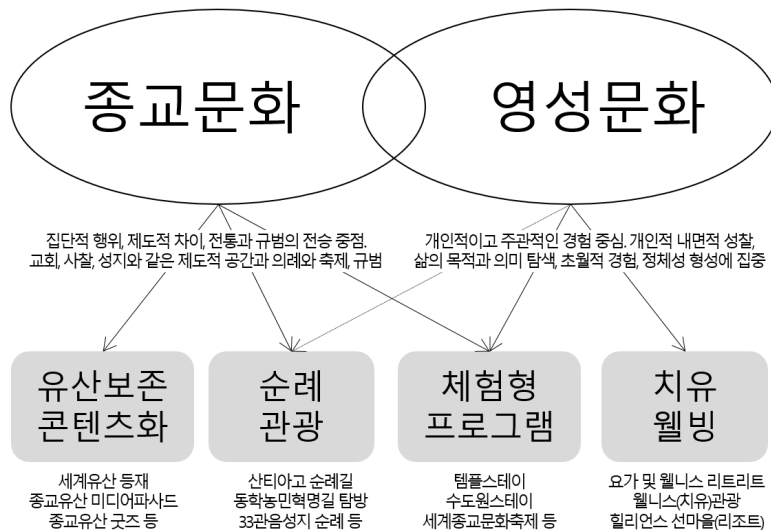
- 영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하며, 종교는 이를 제도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외적 형식으로 기능함. 즉 영성문화가 개인적 의미, 내적 평화, 정체성 형성에 집중하는 반면, 종교문화는 외적 제도와 사회적 구조에 기반함
- 종교문화와 영성문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그 초점과 기능에서 차이가 존재함. 종교문화가 사회적 연대, 규범 유지, 문화적 전승에 주력한다면, 영성문화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 삶의 목적과 의미 탐색, 초월적 경험을 강조함. 영성은 “신성한 것에 대한 탐색”으로 규정되며, 종교는 이러한 탐색이 제도적·문화적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로임(Pargament, 1997). 따라서 종교문화는 영성문화의 제도적 기반이자 전달 장치 역할을 하며, 영성문화는 종교문화의 근본적 동인으로 이해됨

■ 종교·영성문화의 활용 방향

- 여러 논의를 살펴보면, 종교문화와 영성문화를 활용하는 방향은 순례 관광, 체험 프로그램, 영성 치유·웰빙, 종교유산 보존 및 콘텐츠화 등이 있음
- 첫째, 순례(Pilgrimage)는 특정 종교의 성스러운 장소를 향한 이동 행위로, 역사적으로는 신앙심 고양과 속죄, 치유 목적이 중심이었음. 과거에는 순례가 “성스러운 중심지를 향한 집합적 행위”(Turner & Turner, 1978)로 규정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관광적 요소와 결합하여 문화유산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장됨(Reader, 2007; Collins-Kreiner, 2010)
- 둘째, 종교의 의례와 수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종교문화의 교육·관광적 확산을 끌어냄.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2)은 템플스테이를 불교 수행과 명상, 예불,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Shinde(2012)는 일본 선(禪)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좌선·서예·정원 활동을 종교체험 관광의 하나로 분석함. 이는 종교문화를 관광객과 대중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적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영성 치유·웰빙 프로그램도 갈수록 증가하는 활용 사업임. 현대사회에서 전통 종교가 약해지는 대신, 명상·요가와 같은 ‘영성 기반 웰빙 문화’가 확대되는 현상을 “영적 혁명(Spiritual Revolution)”으로 설명하기도 함(Heelas & Woodhead,

2005). 이 유형은 특정 종교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내적 치유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 넷째, 종교유산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짐. 유네스코(UNESCO, 2010)는 종교유산을 세계문화유산 정책의 핵심 범주로 제시하며, 보존뿐 아니라 교육·관광·콘텐츠화도 강조함. 문화재청(2018)은 종교문화유산 활용 정책에서 사찰·성당·서원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함. 이는 종교문화를 문화산업과 결합하는 중요한 사업 유형으로 이해됨
- 이처럼 종교문화는 제도·유산적 측면을 통해, 영성문화는 치유·체험적 측면을 통해 각각 현대사회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함
- 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영성문화적 측면에서 방문하는 산티아고 순례 관광, 불교 신자가 아닌 체험객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경우 등이 이를 잘 보여줌



[그림 2-1] 종교문화 및 영성문화의 특징과 활용 방향

나. 전북의 현황

■ 전북의 종교·영성 문화 특징⁴⁾

- 전북은 여러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 고유의 종교문화를 잘 간직한 지역이며, 특징이 두드러지는 5대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증산교, 원불교)⁵⁾의 주요 성지와 민속신앙 관련 유산을 다양하게 보유함
- 전북에는 백제 후기인 6세기에 불교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금산사와 미륵사가 창건되면서 백제 말엽에는 전북에 불교가 활발히 전파됨. 종교단체 또한 다른 지역 대비 비중이 크며, 근세 이후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단체 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위였고, 민족종교 단체 수도 전국에서 1위였음

[표 2-1] 전북의 종교단체 현황

분류	단체 수	전국대비 비율	비고
전 체	4700	6.3%	
불교	547	4.0%	
기독교	3808	6.7%	수도권 제외 1위
천주교	113	5.5%	
민족종교	161	18.2%	전국 1위
기타 종교	71	5.9%	

자료 : 전국사업체현황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2012년 기준 자료)

- 신흥종교 12계통 가운데 가장 교단이 많은 증산계를 비롯하여 불교계·남학계·무속계·연합계 등이 모두 전북에 시원을 두고 있음
- 각 교단 본부의 지역적 분포를 보아도 지방에 교세를 가지고 있는 종단이 편의상 서울 본부를 두고 교단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본부를 옮겨 간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북의 신흥종교 교세가 전국적으로 두드러짐
- 모악산 일대는 예로부터 내세 지향의 미륵신앙이 결집된 곳이며, 구한말 증산교를 비롯해 민족종교와 신흥종교가 발상하고 융성한 지역

4) 이상열·장세길, (2015_).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계획. 최종보고서 참조

5) 우리나라에서 4대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이고, 7대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로 구분됨

- 역사적으로 볼 때 전북은 후백제의 중심지, 조선시대 전통 세시풍속 및 생활사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대동사상, 동학사상, 원불교, 증산교 등 각종 민족사상과 종교사상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정신문화의 뿌리가 깊음

■ 전북의 천주교 자산과 특징⁶⁾

- 서학과 실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천주교가 실천의 맥락에서 꽃피었다는 점에서 전북은 한국의 천주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임. 바티칸의 성베드로, 프랑스의 성드니의 몽마르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의 순교자와 최초의 순교터는 원형의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님.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에서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단연 그 으뜸에 자리하고 있음
- 또한 윤지충, 권상연의 유해를 모셨고, 전라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항검의 삶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음.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학과 실학을 받아들이면서 평등사상을 피하고 공동체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서학으로 시작한 천주교가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천주교인은 심산궁곡으로 숨어들었음. 그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공소(교우공동체)를 꾸리며 신앙생활의 명맥을 이어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소가 전북에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공소는 공동체의 원천을 담고 있고, 다른 여러 중요한 요소를 간직함
- 선교사의 활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나바위에 처음으로 도착한 페레올과 다블뤼와 김대건은 모두 다 중요한 인물이자 성인으로, 이들의 첫 기착지가 갖는 중요성도 두말할 필요가 없음. 이후 전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한 블랑, 베르모렐, 비예모, 카닥스, 보두네 등은 순교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교육, 의료, 구제 등의 활동에 온 힘을 기울임⁷⁾

-
-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2).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참조
- 7) “블랑주교는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종교자유 이후에 명동성당의 기를 마련했는데, 그는 천주교에서 단연코 전라도의 초기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포졸들에게 쫓기던 시절의 일화, 경기도의 신앙인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 하루 한 끼만 겨우 먹던 전라도 신앙인들이 십시일반하여 사식을 넣을 자금을 마련했는데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얘기, 배재에서의 최초의 가톨릭 서적의 인쇄출판 등의 일화가 아름답게 전해짐. 베르모렐신부는 수류에서 콩 한 알이라도 나눠먹는 공동체정신, 나바위에서 텃밭빼기 하나라도 신앙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에리카향이 담긴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향생각

-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가 근·현대 안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임. 현대에 이르러서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며 가난한 백성을 사랑한 지정환 신부, 자신에게는 철저히 가난을 실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 배영근 신부, 선진 독일의 문물과 문명을 도입하여 빠르게 적용한 윤에릭 신부 등이 있음
- 전북이 순교 일번지, 선교 일번지, 순례 일번지 등으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순례에 관해서도 주목됨. 천주교 내에서의 순례는 이미 선교사들이 박해와 관련해 십산궁곡을 다니는 궤적을 따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활발하고 체계화된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받음

[표 2-2] 전북 내 천주교의 주요 성지 (국가순례지)

성지명	내용
전동성당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권상연, 유항검 등 순교지에 세워진 성당
전라감영	윤지충, 권상연, 유항검, 이경언 등 순교자들이 사형선고 받은 장소
초록바위순교터	남명희, 순교자 홍봉주의 아들을 비롯한 순교자가 순교한 장소
치명자산성지	유항검 가족과 동정부부 합장묘가 있는 순교자 묘소지
초남이성지	유항검 복자 및 동정부부 생가터, 윤지충, 권상연 등 유해 발굴지
되재성당	1895년 건립된 한국 최초 한옥 형식 성당. 우리나라 두 번째 성당
천호성지	150년 전통의 교우촌이며, 많은 순교자가 묻힌 영적 터전
전주옥순교지	각지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옥게 갇힌 채 고문을 받으며 순교한 장소
전주 숲정이성지	이순이 등 유항검 가족 4명, 이일언과 신태보 등 5명 등 순교 장소
범바위	병인박해 때 숲정이성당에서 순교한 여섯 성인 시신의 임시 매장 장소
서천교 순교터	조화서 성인이 순교한 다음 날 18세 순교자(조윤호)가 순교한 장소
김제순교성지	한정흠이 신안과 헌신을 기리는 장소
수류 성당	100년 이상 교우촌 중심으로 유지된 성지
어은공소	진안군에 건립된 한옥성당. 1900년 9월 22일 본당 설립
수분공소	장수군에 설립된 전통 한옥 양식과 바실리카식 평면 결합 성당
여산순교성지	백지사형 등 참혹한 처형 현장 다수 포함, 여산 전체가 성지
나바위성지	성 김대건 신부가 첫 발을 내디딘 축복의 땅
안대동성당지	함열·용안·임피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한 신자들이 살던 곳
신시도최양업공원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가 부제서품 받고 최초로 밟은 땅
개갑장터순교성지	번창했던 시장에서 최여검 복자가 순교한 역사적 현장
신성공소	1903년 6월 수류본당 남쪽을 분리, 신성리 본당 설립(장수군)

을 하던 추억 등의 일화를 담아냄. 카닥스신부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학교 설립, 약국설립 등을 했던 일화를 유럽과 북미의 언론에 소개함”(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2).

■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⁸⁾

-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주, 군산, 익산, 진안, 고창의 5개 지역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에 관한 역사관, 기념관, 체험관, 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음

[표 2-3] 전북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구암동 일원)	2022~2024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784㎡ • 건축연면적 1,394㎡ • 기념탑 조성, 선교 역사관 건립 등 	6,080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나바위성당 일원)	2022~2024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4,479㎡ • 건축연면적 2,300㎡ • 체험관, 쉼터조성, 순례길 정비 등 	10,000
진안 마이산 전통문화체험 전시관 건립 (금당사 사찰 내)	2022~2024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7,875㎡ • 건축연면적 1,497.5㎡ • 체험관, 전시실 등 	8,000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치명자성지 주차장)	2016~2021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48,283㎡ • 건축연면적 9,877.2㎡ • 복합문화관, 생태학습장 등 	29,690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예수병원 인근)	2017~2021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1,156㎡ • 건축연면적 2,758.25㎡ • 전시실, 영상관 등 	8,000
불교세계평화 명상센터 건립 (서고사 일원)	2017~2021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80,696㎡ • 건축연면적 3,358㎡ • (1차)명상생활체험관 • (2차)교육복합관 • (3차)평화명상파크 	10,000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 (선운사 경내)	2018~2021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3,582㎡ • 건축연면적 1,024㎡ • (1차)선체험관, 다도실 • (2차)수장고, 전시실 	5,000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교촌리 222-5일원)	2018~2020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2,619㎡ • 건축연면적 1,077.03㎡ • 전시관 및 체험관 등 	3,000


- 2012년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시군이 4:6 예산 매칭을 통해 이웃종교 탐방길(아

8) 전북의회를 통해 취합한 전북 14개 시군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이 자료 이외의 내용은 전북도청 누리집, 신문기사, 기타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활용해 정리함(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2에서 전재(轉載))

름다운 순례길)을 구성함. 코스는 모두 10개이며, 원불교, 불교, 기독교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가 포함됨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의 상생, 화합, 평화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함. 2014년까지 개최되었던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 세계종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함
 - 전북도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해 세계종교문화축제 지원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해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가 돌아가면서 담당 종단으로서 역할을 하며 최소 2일, 최대 5일 동안 개최되어 옴. 담당 종단이 되면 축제의 실행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축제의 개최·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2023년까지 세계종교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나, 2024년부터 개최되지 않고 있음

[표 2-4] 세계종교문화축제의 특징

① 4대 종단의 종교적 화합을 목표로 한 축제적 만남 ② 4대 종단 중 하나의 종단이 담당하는 축제 실행 ③ 4대 종단별 기념일을 별도로 설정 ④ 축제적 시공간 안에서 4대 종단별로 분절된 내용의 콘텐츠 실현 ⑤ 전북 일대의 종교성지 순례 ⑥ 열림→공존→단합의 축제구조	
---	---

자료: 김진형(2021), 58쪽 내용 전재

■ 전북 치유관광지 현황

- 전북은 2023~2025년 매년 10개소의 치유관광지를 6개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30개소 치유관광지가 운영됨
 - 치유관광지 주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주제를 적용하여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힐링/명상, 뷰티/스파, 한방, 치유음식으로 구분
 - 전북형 치유관광지는 자연/치유 15개소, 전통/생활문화 6개소, 힐링/명상 2개소, 뷰티/스파 2개소, 한방 1개소, 치유음식 4개소
-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치유관광지는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관광지가 제일 많고, 전

통문화를 활용하여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만든 치유관광지도 많은 편임

- 전북 방문 관광객의 방문목적 중 1위가 음식 때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전북특화 주제인 '치유음식'을 주제로 한 치유관광지가 4개소 운영 중

- 시군별 치유관광지는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다양한 주제로 지정됨

[표 2-5] 전북도 시군별 치유관광지 지정 현황

시군	테마						합계
	자연/치유	전통/생활	힐링/명상	뷰티/스파	한방	치유음식	
익산시	3	2	-	-	-	-	5
정읍시	1	-	-	-	-	-	1
남원시	1	-	-	-	-	-	1
김제시	1	-	-	-	-	1	2
완주군	-	4	-	-	1	-	5
진안군	2	-	-	1	-	-	3
무주군	2	-	1	-	-	-	3
장수군	1	-	-	-	-	-	1
임실군	-	-	1	-	-	-	1
순창군	-	-	-	-	-	2	2
고창군	2	-	-	1	-	1	4
부안군	2	-	-	-	-	-	2
합계	15	6	2	2	1	4	30

자료 :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부 자료 재구성

■ 전북 성지혜움길

- 서부내륙권관광진흥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성지혜움길 사업은 5대 종교(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지를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화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함
- 성지혜움길은 종교적 의미를 품은 장소를 통해 치유, 성찰, 영감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관광객에게 감성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짐
 - 종교별, 지역 내 다종교, 지역 간 종교 등 총 16개의 여행프로그램 개발
- 성지혜움길 여행프로그램은 종교 자원과 지역의 전통, 생태, 미식 등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성지 인근의 치유 프로그램인 다도, 명상, 체험을 결합함

[표 2-6] 전북 성지혜움길 프로그램 중 천주교 관련 프로그램 현황

구분	지역	종교	프로그램명	성지
지역내 다종교	전주	천주교, 천도교, 개신교, 불교	고요한 사색의 도시 전주	풍남문, 전동성당, 서문교회, 치명자산성지, 동고사
지역내 다종교	익산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잔잔한 위로의 도시 익산	여산숲정이순교성지, 백지사터, 여산동헌, 나바위성지, 미륵사지, 남전교회, 원불교총부
지역내 다종교	완주	천주교, 불교	평화로운 속삭임의 도시 완주	천호성지, 초남이성지, 위봉사, 위봉폭포
지역간 종교별	완주, 전주, 익산	천주교	순교자의 숨결이 깃든 길, 마음 위로 여행	완주 초남이성지, 전동성당, 치명자산성지, 여산숲정이순교성지, 백지사터, 여산동헌, 되재성당
지역간 종교별	익산, 완주, 전주	천주교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치유의 시간	나바위성당, 완주초남이성지, 전동성당, 치명자산성지
테마형	전주	천주교, 개신교	전주 역사와 종교, 치유의 여정	치명자산성지, 신흥학교, 서문교회,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테마형	익산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익산에서 만나는 종교 드로잉	백지사터, 여산동헌, 여산성당, 여산숲정이순교성지, 미륵사지, 원불교중앙총부, 익산박물관
테마형	완주	천주교, 불교	완주에서의 비움과 채움	천호성지, 송광사

자료 : 전북문화관광재단(2025), 전북 성지혜움길 연계스토리 발굴 및 치유순례 상품개발

[표 2-7] 성지혜움길 천주교 여행프로그램 사례

- (주제) 천주교_순교자의 숨결이 깃든 길, 마음 위로 여행
- (내용) 가슴 아픈 탄압 속,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순백의 마음을 지닌 순교자들의 희생과 신앙의 숨결을 경험
- (지역) 전주, 익산, 완주
- (소재) 성당, 미사, 피정, 성지, 명상, 종교건축, 자연
- (인물) 유항검, 권상연, 김대건, 김성철
- (방문장소) 전주_전동성당, 치명자산성지, 익산_여산숲정이 순교성지, 백지사터, 여산동헌, 완주_초남이성지, 되재성당
- (체험) 치명자산성지 피정의 집 피정
- (코스) 완주초남이성지 → 전주 전동성당 → 치명자산성지(피정의 집) →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 백지사터, 여산동헌 → 되재성당
- (연계) 천주교전주교구 삼례성당, 천주교전주교구 소양성당, 천호성지, 천주교전주교구 고산성당, 천호성지가톨릭성박물관, 전주숲정이성지

[표 2-8] 전북 특화체험관광 프로그램 20선

지역	프로그램	운영기관
10개 지역	20개	
전주	전주한옥마을 비빔김밥 쿠킹투어	요리놀이터
	전주한옥마을 모주체험	여
	자만의 전통주 키트만들기	모은
익산	반짝이는 미륵사지 유리공예 DIY	새록유리공방
	자연이 주는 따뜻한 위로	우리들의 정원 치유농장
	전통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된장कु키 클래스	4남매 체험농장
	열대과일 브런치 쿠킹 클래스	서동팜
	황토길 걷고 자연 속 힐링족욕	왕궁포레스트
	치유농장 오감 팜크닉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
완주	도예명장과 함께하는 숲길 달항아리 빚기	봉강요
	오두막 힐링 팜크닉	드림뜰힐링팜
무주	무주덕유산 블루베리&피자 브런치	무주눈꽃 덕유크amp
진안	머위 연잎밥&트리하우스 여행	농갈원
장수	섬이 있는 힐링스테이 650	전부산림
정읍	365 알로에 황토맨발 걷기	알로에사랑 영농조합
임실	다시피는 한복: 전통의 아름다움을 일상으로	크레쥔 아트센터
	임실친환경 로컬푸드 치유쿠킹 클래스	약식동원
남원	수목원의 4계절 자연탐험 스탬프 투어	아담원
	지리산 마음온 홍삼치유여행	정가네
순창	순창 엉겅퀴 고추장 만들기	가인농장



[그림 2-2]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선

[표 2-9] 전북형 치유관광지 30선

테마	지역	시설명	주요 체험
합계	12개 지역	30개 관광지	
자연/치유 (15)	익산	왕궁포레스트	힐링족욕, 원예체험, 피크닉체험
		달빛소리 수목원	시낭송, 금목서추제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이끼테라피움, 원예체험, 식사체험
	남원	운봉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숲길 산책, 족욕, 산악콘서트 등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와인테라피, 수영장 등
		무주눈꽃	눈꽃 피자, 불꽃BBQ, 카페
	부안	벗님네 포레도 치유정원	원예체험, 수테라피, 오디체험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	탄소중립체험, 사계절 사색체험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	숲체험, 곤충체험, 생태체험
	고창	국립 고창 치유의 숲	노르딕워킹, 싱잉볼명상, 해먹
		섬드림	불명, 맷돌커피, 족욕, 음식체험
	진안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곱돌명상, 족욕, 크나이프 체험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산림치유, 다도, 싱잉볼명상
	장수	그린장수 치유의숲	봉체조, 맨발걷기, 싱잉볼, 향기테라피
	김제	꽃다비팜	넬솔다육, 압화부채, 향기주머니
전통/ 생활문화 (6)	완주	대승 한지마을	한지제조, 한지공예, 한옥스테이
		오성 한옥마을	대통밥체험, 다도체험, 한복체험
		봉강요	핸드빌딩, 물레체험, 도자기빚기
		아원고택	명상, 요가, 다도, 숲체험, 한옥숙박
	익산	함라한옥체험관	한옥숙박, 돌담산책로
		4남매체험농장	된장कु기, 고추장, 마들렌, 양갱만들기
힐링/명상(2)	임실	성수산 왕의숲 생태관광지	숲속놀이터, 수영장, 숙박
	무주	태권도원	태권도체조, 수련영상, 힐링테라피
뷰티/스파(2)	고창	고창 웰파크시티	스파, 힐링황토길, 명상, 요가
	진안	진안 홍삼한방타운	홍삼스파, 스킨, 허브, 윈드 테라피
한방(1)	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찜질방, 한의원, 모주, 천연염색
치유음식(4)	순창	שללנד	명상, 건강요리체험, 요가, 숲체험
		순창발효테마파크	발효쿠키클래스, 장담그기
	고창	영농조합법인 토굴발효	복분자코디얼, 초콜만들기
	김제	휘게팜 영농조합법인	피자, 수제청, 치즈만들기, 원예체험

2. WYD 개요와 준비 현황

가. 본대회

■ 2027 서울 WYD

- 서울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이며, 비그리스도권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림
- WYD는 상징순례, 교구대회, 본대회로 구성되며, 서울 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교구대회가 열리고,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본대회가 진행됨
- 본대회는 WYD의 메인 행사로, 개막미사, 문화행사, 교리교육, 십자가의길, 철야기도, 파견미사 등으로 구성됨. 특히 교황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며,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종교문화 유적지를 순례하는 일정이 포함됨

[표 2-10] 2027 서울 WYD 개요

- (대 회 명) 2027 서울 WYD (World Youth Day(WYD) SEOUL 2027)
- (대회규모) 국내·외 최소 40만 명 이상 (최대 100만 명)
- (대회기간) 2027.7.29~2027.8.8
 - 본대회(5박6일): 교황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길, 젊은이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
 - 교구대회(4박5일): 지역교구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

시간	7월29일	30일	31일	8월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오전	도착	교구대회			이동	개막 미사	교리교육 성삼일			밤샘기 도이동 (순례)	폐막 미사
오후							젊은이 축제(YF) 성소센터(VC)				
저녁							YF	환영 행사	십자가 의길	밤샘 기도	

- (대회장소) 본대회(서울) 및 15개 지역 교구
 - *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전주, 광주, 제주, 군중
-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2027 WYD 조직위원회

나. 전주교구대회

■ 주제

- 교구대회 TF팀 회의에서 전주교구대회 주제 선정을 위한 다양한 키워드로 유항검 가족, 나눔, 사랑의 실천, 순례, 순례자, 발걸음, 증거(흔적), 만남(환대, 친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십자가, 참 가족 등이 도출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포용성과 확장성, 다양한 지역과 언어, 신앙과 문화를 아우르는 ‘만남’을 주제로 선정함
- 만남이라는 주제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곱 개의 만남을 설정

만남 Encounter / in contra

01	02	03	04
(우연히) 만나다, 맞닥뜨리다	(문제, 어려움 등을) 직면하다, 경험하다	(우연한) 만남, 조우 (遭遇)	(영적 또는 내면적) 특별한 만남, 체험

일곱 개의 만남 Encounter

01	순례자들과의 만남	WVD 순례길에서 이루어지는
02	순교자들과의 만남	순교자의 땅 전주교구에서 이루어지는
03	보편교회와의 만남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신앙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04	가정 신앙공동체와의 만남	홈스테이를 통한
05	한국전통문화와의 만남	가장 한국적인 고장,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리는
06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산, 들, 강, 바다가 공존하는 전북의
07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 대회 진행 계획(안)

- 홈페이지 통한 참가자 접수 계획
 - 전국 교구대회 홈페이지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각 교구대회의 기본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 세계 각국 청년의 교구 선택을 받게 됨
 - 세계 각국 청년의 교구대회 참가 접수는 2026년 5~6월 중에 시작
- 숙소 운영 계획
 - 목표: 참가자 100% 홈스테이 (등록 예상 인원: 최대 4,000명)
 - 운영 기준: 한 가정당 2인 이상 체류. 총 필요 가정 수 최대 약 2,000 가정 필요
 - 접수 인원이 초과하면 교회 시설과 공공시설 이용(지자체 협조 필요)

A 01

문화 체험의 기회

- 현지 가정과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
- 식사·대화를 통한 **깊이 있는 상호 이해**

A 02

따뜻한 정(情)의 나눔

- 가족 같은 관계 형성
- 한국인의 **정서와 따뜻함**을 외국 청년들에게 전할 기회
- 참가자들이 가장 **감동받는 경험**으로 꼽음

A 03

비용 절감 효과

- 숙박 및 식사 비용 절감
- **경제적 부담 완화**,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 가능

A 04

봉헌의 자세로 함께하기

- 참가자들을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환대**
- **신앙 안의 나눔과 섬김** 실천의 시간

[그림 2-3] 홈스테이의 의미

[그림 2-4] 홈스테이의 목적

○ 일정별 주요 행사 계획

- 전주교구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일정별로 현대의 날, 본당 및 지구의 날, 교구의 날, 공동체의 날, 파견의 날로 계획

	1일차 (목요일)	2일차 (금요일)	3일차 (토요일)	4일차 (일요일)	5일차 (월요일)
주제	현대의 날	본당 및 지구의 날	교구의 날	공동체의 날	파견의 날
오전		- 아침기도 및 식사 - POC 집결, 전례 프로그램 - 지역탐방	- 교구미사	- POC 주일 미사 - POC 공동체와의 친교	- 점정리 - 파견 프로그램
오후	- 순례자 도착 - 오리엔테이션 및 등록 - 본당 환영식 및 미사 - 홈스테이 배정	- VOC 권역별 순례 및 문화체험	- 교구별 특색 프로그램 - 신앙/문화 체험 - 부스 운영	-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 문화 교류 활동 - 지역 성지 및 명소 방문	- 본대회 지역으로 이동
저녁	- 홈스테이 가정과의 시간	- VOC 축제마당	- 교구대회 축제 마당	- POC 나눔 잔치	

[그림 2-5] 전주교구대회 일정(안)

■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 2025년

- 5월 25일 WYD 전주교구대회 조직위 발대식 및 미사(전동성당)
- 11월 23일 세계 젊은이의 날 교구 비전 선포식 및 창작 성가제

○ 2026년(전주교구대회조직위의 계획)

- 상반기, 지구조직위원회, 본당조직위원회 구성, 봉사자 2차 모집교육, 교구대회 참가자 신청 접수

- 5월 이후, 교구대회 주요 장소 섭외, 외주 업체 선정, 사업 참가팀 선정
- 4월 28일, Youth Festival 개최
- 8월 15~17일, 전주교구 청년대회 실시 (미리 만나는 교구대회)
- 하반기, 홈스페이 가정 교육, 봉사자 3차 교육, 교구대회 프로그램 기획 완료
- 2027년
 - 상반기, 프로그램 사전 점검
 - 4월 28일 ~ 5월 31일, WYD 상징물 (십자가와 이콘) 교구 순회
 - 7~8월, 교구대회 진행 및 본대회 참여

다. 대회 준비 현황

■ 서울대교구 차원의 준비 현황

- 서울대교구 주도 프로그램
 - 'Hee Hee Hee' 청년 페스티벌: 2025년 5월 서울에서 3일간 30,000명 이상 참가, 신앙·문화·대화 중심 프로그램 구성(Truth, Peace, Love 구역), 야외 미사·기도집회 포함
- 조직위원회 활동
 - 2025년 2월: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시작, 3월: 사무국 오피스 조직, 4~5월: 교구 사제 대상 포럼, 연구팀 구성, 국제 사목 발표 등 준비 진행

■ 교구 지역별 준비 현황

- 경기도 'WYD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성된 '2027 WYD 지원협의체'를 통해 도내 6개 시·군(수원, 의정부, 용인, 파주, 남양주, 안성)이 참여
 - 종교계, 해당 시·군,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문화·청년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
 - 대회 준비 상황 공유, 해외 청소년·청년의 체류 지원, 안전 대책, 사후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논의

3. 교구대회 운영 사례

가. 2016 크라쿠프 WYD⁹⁾

■ 2016 브로츠와프 대교구(갈릴래아)

[표 2-11] DID 프로그램 (2016 WYD 크라쿠프 대회, 브로츠와프 대교구)

날짜	오전	오후	저녁
7.20(수)	도착	본당별 환영	미사 및 환영식
7.21(목)	아침미사, 교리교육	관광	자비의 축제(MERCY FEST)
7.22(금)	아침미사, 교리교육	고해용서활동, 관광	자비의 축제, 십자가 경배
7.23(토)	그룹모임, 자비의문 통과	대주교 만남, 미사	문화의 밤
7.24(일)	미사	관광	자비의 축제
7.25(월)	크라쿠프로 출발		

○ 프로그램

- 영성 프로그램('자비의 메시지', 교리교육, 아침미사)
- '자비의 날' 특별행사, 병원 및 노숙인 보호시설 방문
- Mercy Fest (자비의 축제): 시내 곳곳에 무대 설치, 콘서트·애니메이션 상영·참가자 그룹 소개 등
- 관광, 대주교와의 만남, 문화의 밤, 브로츠와프 분수쇼

○ 참가자와 봉사자 규모

- 예상 15,000명 → 실제 13,000명 참가
- 교구 자원봉사자 약 600명, 장기 봉사자 50명 내외

○ 특징

- 2016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로서 문화도시 행사와 DID를 연계
- 서울대교구 등 한국 청년 약 900명 참가

9) 천주교서울대교구 2027 서울WYD지역조직위원회. (2024). World Youth Day WYD 안내자료

■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베들레헴)

[표 2-12] DID 프로그램 (2016 WYD 크라쿠프 대회,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

날짜	오전	오후	저녁
7.20(수)	도착	본당별 환영	미사 및 저녁식사
7.21(목)		미사	문화이벤트
7.22(금)		관광	미사(아침 또는 저녁), 저녁식사
7.23(토)	아침식사	관광, 활동	특별 행사, 저녁식사
7.24(일)		미사	호스트 가족과의 시간
7.25(월)	미사		크라쿠프로 이동

○ 프로그램

- 도착 환영, 본당별 미사 및 관광
- 문화 이벤트, 특별 행사, 호스트 가족과의 시간 (미사·관광·문화행사 중심)

○ 참가자와 봉사자 규모

- 본당 봉사자 약 1,500명, 교구 봉사자 200명, 교구 직원 3명

○ 특징

- 본당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2개 가톨릭 대학과 연계
- 리더 봉사자 양성과 본당-교구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 참가자 수용 능력은 폴란드 교구 중 최대 규모(약 3만 명 수용 가능)

[표 2-13] DID 프로그램 비교 (2016 WYD 브로츠와프 대교와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

구분	브로츠와프 대교구	바르샤바-프라가 대교구
상징명	갈릴래아	베들레헴
프로그램 성격	영성·문화·자비 실천(병원 방문, Mercy Fest)	미사·관광·문화행사 중심
문화 연계	유럽문화수도(2016) 지정, 도시 축제와 결합	2개 가톨릭 대학과 연계, 문화 이벤트
참가자 규모	약 13,000명	최대 3만 명 수용 준비
봉사자 체계	교구 600명, 장기 50명, 체계적 본당위원회	본당 1,500명, 교구 200명, 봉사자 양성
준비 기간	교구 준비위원회 중심, 1~2년	2013년부터 3년 이상 장기 준비
특징	Mercy Fest 통한 대규모 시민참여	본당-교구 연계, 대규모 수용능력 확보

나. 2021년 리스본

■ 개요 및 운영 구조

○ 날짜 및 장소

- 2023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포르투갈 전역의 17개 교구에서 진행
- 참가 교구: Algarve, Angra, Aveiro, Beja, Braga, Bragança-Miranda, Coimbra, Évora, Funchal, Guarda, Lamego, Leiria-Fátima, Portalegre-Castelo Branco, Porto, Viana do Castelo, Vila Real, Viseu

○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다섯 가지 핵심 기둥에 따라 교구대회 프로그램 구상 : Welcome (환영), Discovery (발견), Mission (선교), Culture (문화), Sending (파견)

○ 주요 프로그램

- 기도와 묵상, 선교 활동 및 서비스 프로젝트, 문화 교류와 지역 사회 참여
- 각 교구는 지역 본당과 신자 가정 커뮤니티와 연계, 현지 공동체 체험을 통해 참가자가 신앙과 삶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도록 구성

■ Beja 교구

○ 문화의 집 외벽에 공동 참여 벽화 제작

- DID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Casa da Cultura) 야외 암피극장 외벽에 공동 참여 벽화를 제작·공개
- 교구 조직위원회가 “와서 붓을 들고, 당신도 이 DID의 일부가 되세요(“Come, take a brush...”)”라는 참여형 메시지로 순례자·시민이 함께 완성하는 공동체 상징물 제작: 교구 청년·순례자·주민 참여 독려
- 제작 기간: DID 주간에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벽화를 그림
- 공개(인증) 행사: 7월 30일(일), Casa da Cultura(베자) 야외 암피극장 외벽에서 공식 공개

○ 선행·연계 활동

- 사전(준비) 행사: 2023년 3월 25일, 알가르브·베자·에보라 3개 교구의 청년이 베자에서 인터-디오세산

만남을 가지며 ‘페디 페이퍼’(도시 미션 활동), ‘벽화 만들기’, 베자 대성당 철야기도 등을 공동 진행

- DID 이전에 WYD 십자가와 성모 이콘이 베자 시내(교구 신학교-주교좌성당 구간) 순례

■ Lamego 교구

○ 전통과 지역 체험 중심 프로그램

- 다국적 참가자(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카보베르데, 리투아니아, 독일 등)를 호스트가족이 맞이하며, 첫날 환영식 만찬에서 포르투갈 전통 음악과 음식·문화를 소개
- 참가자들은 전통 게임, 문화유산 방문, 지역 특산 와이너리 투어 등을 통해 DID가 단순한 신앙 체험을 넘어 포르투갈 내륙의 지역성과 전통을 폭넓게 체험하는 기회였음을 보여줌
- 마지막 날, 참가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파견식 진행

■ 기타 교구대회

- 환영 문화행사, 포르투갈 전통음식 제공 및 생활 체험, 지역 내 기업 또는 전통산업 현장 방문(지역문화 관광 개념), 마을 양로원 등 취약계층 대상 장소 방문, 체육활동과 춤바댄스 등 문화체육 활동 참여, 현지 중·고·대학생과의 만남 등이 진행됨

“26일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347km,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모젤로스 본당 앞에 신자들이 모여 기타로 WYD 주제가를 연주하고 박수를 치며 환대했다. 호스트 가족들은 정성스러운 식사를 마련해주었고 오전에는 성당에 모여 준비된 전례를 한 뒤 코르크 마개 공장 견학, 마을 오케스트라 공연장 및 마을 양로원 방문, 체육활동과 춤바댄스 등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본당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그룹을 지어 포르투를 탐방했다.”(살레시오수녀회의 리스본 대회 참가 글 중에서 일부 발췌)



[그림 2-6] 2023 리스본 WYD에서 교구행사 참여 사례

자료: 살레시오수녀회 사이트 : http://salesiansisters.or.kr/2023_08_31_2023년-WYD/

■ 타 종교 및 비종교 단체의 참여 활동

- 천주교 신자가 아닌 지역사회 및 종교 공동체가 행사 운영, 문화 활동,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운영
 - WYD Lisbon은 선교적 차원을 넘어, 이슬람교·유대교·힌두교 등 비기독교 공동체를 명시적으로 초대 한 WYD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시도
 - 조직위원회는 '종교 간 대화 작업 그룹'을 구성,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 등 비기독교 종교 장소 방문을 프로그램에 포함
 - 6대 주요 세계 종교(유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지도자가 함께 벨렘 식물원(Tropical Botanical Garden)에서 나무를 심는 평화의 상징 의식에도 참여
- 비기독교 종교 공동체의 참여 및 문화 공연
 - 몰몬교(Latter-day Saints) 청년들이 Canto Pela Paz(평화를 위한 노래)라는 개막 공연에 참여하고, 교황과 교류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
 - 다종교적 공동체 구성원이 문화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 WYD를 포용성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장
- 스카우트 및 청년단체의 참여
 - 국제적인 청년 조직인 스카우트도 WYD 프로그램에 참여, WYD 스카우트 캠프 운영
 - 청년 문화 축제, Great Scout Celebration 등 다양한 문화·종교 프로그램에 참여
 - 스카우트 단체 외 비등록 청년도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개방
- 행사 개방성 및 포용적 참여 원칙
 - WYD 웹사이트는 "이 행사는 천주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점 강조
 - 참가 자격, 종교,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선행 교구대회의 특징과 시사점

■ 공통적 특징

- 종교적 영성과 교구대회 개최 지역 문화의 결합
 - 브로츠와프(폴란드): 아침미사·교리교육과 함께 Mercy Fest(콘서트·공연·자비 실천)를 개최
 - Lamego(리스본): 환영 만찬, 전통 음악·요리, 와이너리 체험, 전통 게임 등 지역문화와 신앙을 결합
 - Beja(리스본): 참가자·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교구대회 주간에 벽화 공동 제작·공개
- 자비·선교 실천: 교구대회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강조
 - 브로츠와프: 병원·노숙인 시설 방문, 자비의 날 행사 진행
 - 리스본 교구: 도시 미션, 봉사 프로젝트,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홈스테이 등 지역 공동체와의 밀착 강화
 - 참가자 숙소를 가정과 본당이 제공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도록 유도
 - Beja: 벽화 공동 제작을 통해 청년·시민이 함께 교구대회 유산을 창출
 - Lamego: 환영 만찬·전통 게임·와이너리 투어 등 지역 전통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운영
 - 문화 행사(콘서트·축제·예술 참여)와 봉사활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하여 공동체적 유대 강화
- 코디네이터 제도, 공동 방향 설정 등 체계적인 조직·운영
 - 바르샤바-프라가(폴란드): 본당 코디네이터 제도, 수천 명 봉사자 조직
 - 리스본: 5개 주제(환영·발견·선교·문화·파견)를 공통 방향으로 제시, 교구별 창의성 반영하도록 유도
- 리스본 대회에서 두드러진 다종교·지역사회 포용
 - 공식 메시지로 “이 행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
 - 리스본 대회에서 처음으로 비기독교 공동체를 공식 초청: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 방문 포함.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평화의 나무 심기 의식 참여. 물문교 청년단의 공연 참여 등
 - 스카우트 단체와 같은 청년 조직도 캠프·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전주교구대회에 적용할 시사점

- 종교적 영성과 K-문화수도로써 전북의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이 중요함. 또한 문화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형, 특히 지역 예술가·예술단체 참여형으로 개발되어야 함
 - Beja 벽화 사례처럼, 순례자와 주민이 함께 기념 아트월·조형물·합창제 등을 제작하되, 지역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지나치게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도록)하여 운영
- 세계 각국 청년이 직접 지역에서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 폴란드, 리스본 대회에서 청년들이 양로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듯이, 전북만의 독특한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는 대상과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 기억에 남도록 구상
 - 예를 들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 학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 호스트 가정·본당 중심 환대 체계를 만들고, 전북만의 생활문화 체험이 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스테이 등에 제공해야 함
 - WYD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 참가자가 지역 가정·본당에 배정되어 현지인의 생활을 경험. 단순히 가정집의 생활 경험을 넘어 한국적인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 체험 키트 등을 선정하여 홈스테이에 제공하는 방안
- 전주교 신자 중심의 자원봉사자 외에 시민 자원봉사자의 배치가 필요함
 - 전주교 내 자원봉사자 외, 다국어가 가능한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배치하는 사업 검토
- 전북이 갖는 종교문화의 특성을 살려 다종교·지역사회 포용의 상징 대회로 구상함
 - 리스본 WYD처럼 다종교 대화·포용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전북은 세계종교문화축제, 이웃종교 탐방 등 종교 간 포용을 대표하는 지역인바, 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구상 실행
 - 지역 다문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설계
- 전주교구대회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순례코스를 개발해야 함
 - 순례길·세계유산(예: 미륵사지, 고창 고인돌)과 연계한 순례코스를 운영하고, 전주교구대회 이후에도 방문객이 순례관광 목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K-문화, 미식관광, 농촌체험과 결합하는 순례상품 개발

4. 대회 이후 활용 사례: 충남

가. 교황 방문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경위

- 한국 천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재위 때부터 교황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후 한국 천주교는 교황 방한을 추진했고, 당시 대통령(박근혜)도 교황의 방한을 요청함. 2013년 말, 2014년 충남 일원에서 천주교 대전교구가 주관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6th ASIA YOUTH DAY, 6th AYD) 기간에 교황이 한국을 찾는 계획이 현실화됨

[표 2-14] 교황의 청년대회에 참여 계기가 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편지 내용 설명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대전교구는 한국 순교자의 3분의 1을 배출한 성지들이 많은 교구로서, 성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청년대회의 젊은이들과 대전교구 신자들, 한국의 모든 신자와 국민을 교황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희망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여 편지를 드렸습니다.”

(미래사목연구소, 「사목정보」 2014년6월호)

■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일정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4 아시아·한국청년대회’에 참가함
- 충남지역에서의 일정으로, 교황은 8월 15일 당진시 솔피성지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어 8월 17일 서산시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면담 및 오찬’,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집전을 통해 6천여 명의 카톨릭 청년에서 ‘아시아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라는 대회 주제와 관련해 강론 등을 펼쳤고 아시아 주교와 함께 현안을 논의함

[표 2-15]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충남지역 일정

날짜	일정	장소
8월 14일(목)	한국 도착	
	대통령 면담 및 양국정상 연설	청와대(서울)
	한국주교들과의 만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
8월 15일(금)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대전월드컴경기장(대전)
	아시아청년대표와의 오찬	대전카톨릭대학교(세종)
	아시아청년대회 청년들과의 만남 ※ 내방객 20~25천명 추정	솔미성지(충남)
8월 16일(토)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 미사	광화문 광장(서울)
	장애우 재활원 방문	음성 꽃동네(충북)
	수도자들과의 만남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만남	
8월 17일(일)	아시아주교들과의 면담 및 오찬(50명) ※ 천주교 내부행사	해미순교성지(충남)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 ※ 내방객 50~60천명 추정	해미읍성(충남)
8월 18일(월)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	명동성당(서울)
	한반도 평화·화해 기원 미사	명동성당(서울)



[그림 2-7] 솔미성지 및 해미읍성 방문 모습
(좌) 솔미성지 김대건 신부 생가터에서의 교황 모습, (우) 해미읍성 방문과 카퍼레이드

나. 교황 방문 준비와 효과

1) 2014년 교황 방문에 따른 충남의 준비

- 아시아청년대회와 한국청년대회 행사를 주관하는 천주교 대전교구와 각 행사가 열리는 시, 도, 경찰청, 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교황 방문을 준비함

주체	준비 내용
천주교 대전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한국 청년대회 행사 추진 -행사 참가자 6천명에 대한 교통, 숙박, 이동, 행사장 운영 등
서산시·당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관련 순례객, 관광객 방문에 따른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교통 안내, 임시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응급의료지원 등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황 방문 준비 관련 광역적 공공서비스 지원 -대중교통망·환경정비, 소방안전, 성지순례길, 홍보 등

자료: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 행사장 및 주요 기반시설 정비

-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읍성의 도로와 시가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방문객의 주요 이동로 및 성지 순례길의 환경정화를 추진함

구분	장소	내용
기반시설 정비	서산,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해미성지·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해미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 해미읍성~해미성지 구간(1.2km) 도로 정비 - 해미읍성 정비(아시아·한국청년대회 폐막미사) • 당진 솔피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강초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완료 - 우강초등학교~솔피성지 구간(0.6km) 도로 정비 -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장 성토(20천㎡) 및 행사천막 시공
시가지 환경정비	서산,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해미 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미읍성 주변 노후간판 131개소 정비 - 해미면 내 도시 공공구조물 디자인 개선 - 행사장 주변 상가 인도 적치물건 정비 • 솔피성지 및 해미읍성 주변 꽃길 조성·꽃답 설치 • 방문객 주요 이동로 및 성지·순례길 환경정화 추진

■ 천주교 성지 순례길 정비

- 김대건신부의 탄생지인 솔피성지에서부터 서산의 해미순교성지까지 내포 천주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포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함

- 방문객과 순례객의 편의를 위해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안내 표지판과 방향 표지판을 설치

[표 2-16] 내포 천주교 순례길 개요

구분	코스		
주코스	솔피성지-합덕성당-신리성지-배나드리-덕산-한티고개-해미읍성-해미성지		
부코스	① 공세리성당-솔피성지	② 신리성지-여사울	③ 흥성성당-흥주성지



[그림 2-8] 내포 천주교 순례길 코스와 주요 지점

2) 교황의 충남 방문

■ 당진 솔피성지 아시아청년과의 만남

- 아시아청년과의 만남을 위해 당진 솔피성지 방문하고, 한국에 천주교를 전파한 김대건 신부에 대한 추모를 위해 생가를 방문하여 기도함
- 아시아청년과의 만남은 전국 16개 천주교 교구에서 온 5천여 명과 아시아 22개국에서 온 1천여 명 등 1만여 명이 교황을 맞이함
 - 교황은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희망'을 강조. '교회는 장벽을 극복하고 편견을 거부하는 씨앗이 돼야 한다'라며 장벽의 극복, 분열의 치유,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

■ 서산해미순교성지 아시아주교와의 면담

- 해미순교성지 내 소성당에서 아시아주교와 면담함. 한국천주교 주교단 15명, 아시아 각국에서 온 추기경과 주요 관계자 50명이 참석함
 -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갖고 있을 것', '전정한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진정한 만남을 끌어냄'을 강조하며,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함

■ 서산해미읍성 아시아·한국청년대회

- 도보순례 및 파이널 페스티벌
 - 순교자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도보순례 행사(일명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한서대에서 해미읍성까지 6천여 명이 참가, 세족례)와 22개국 아시아 청년의 화합과 우전을 다지기 위한 파이널 페스티벌 진행(해미읍성 내)
- 아시아·한국청년대회 폐막 미사
 - 해미읍성 내에서 폐막 미사 진행. 교황은 22개국 아시아청년 6천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신자와 시민 등 2만 5천여 명에게 '아시아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라는 주제로 강론

3) 교황 방문 효과

■ 관광 측면

- 교황이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여하면서 충남과 대전이 주요 행선지에 포함됨. 특히 해미(충남)에서 폐막 미사를, 서울 광화문 및 명동 등에서 대규모 행사(시복식,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 등)가 열려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충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서울 광화문 시복식 장면과 함께 아시아청년대회가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충남의 주요 지역이 천주교 거점 관광지로 부각됨

[표 2-17] 아시아청년대회 방문객 추정과 연계된 관광효과 추정

시나리오	행사 관람·참여 인원(명)	충남 체류 전환 비율	동반자 포함 계수	행사주간 추가 체류객(명)
보수	50,000	35%	1.3	22,750
표준	55,000	45%	1.4	34,650
낙관	60,000	55%	1.5	49,500

[표 2-18] 아시아청년대회 지역경제효과 추정

시나리오	행사주간 추가 체류객(명)	1인1박 지출(원)	행사주간 직접지출(원)
보수	22,750	120,000	27.3억원
표준	34,650	150,000	51.9억원
낙관	49,500	180,000	89.1억원

■ 브랜드 측면

- “Francis Effect”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황 방문 자체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브랜드 이벤트로 작용함
- 특히 수도권 외 지역—대전, 해미, 충남 등—이 주요 행사 지역으로 등장하면서 이 지역들이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는 기회가 되었음

- 교황청·바티칸 공식 채널이 해미 행사 영상·문헌을 상시 보관·배포
- 대한민국 정부 대외홍보채널(Korea.net)이 해미 행사 기사를 영문으로 배포
- 국제 가톨릭·글로벌 뉴스(VOA 등)가 해미 폐막 미사 사진·리포트 송출
- 교황의 메시지(겸손, 평화, 화해)는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 브랜드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 공동체 측면

- 교황이 해미읍성을 방문해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면서, 충남은 한국 천주교의 뿌리이자 순교 성지로서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알려지며, 충남도민에게는 “우리 고장에 세계적인 성지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줌
 - 해미성지가 국제순례지로 지정(2020.11.29.)
 - 솔미성지(당진): 당진시에서는 “2014년 교황 방문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매년 전 세계 순례객이 찾는 명소”라고 소개, 2015년부터 ‘프란치스코 데이’ 상설화
- 천주교 국제행사의 경험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계기가 마련됨. 해미행사에 는 아시아 23개국 청년들이 참여하여 충남에 머물렀음. 도민은 다문화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시각과 개방성을 체험함
- 시복식, 평화 미사 등에서 ‘화해’와 ‘포용’, ‘연대’를 강조한 메시지는 충남도민에게도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일깨워 줌
 - 교황 방문 이후, 충남 대전 교회 내부에서도 이주민, 난민, 다문화 가정과의 연대, 종교 간 대화 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짐

다. 2014년 교황 방문 이후 충남의 변화와 준비

1) 교황 방문을 기념하고 정신을 알리는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4. 6. 11. - 장 소 : 해미읍성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150, 시비 350) - 참여인원 : 10,000여명 - 주요내용 : 10주년 기념 문화예술 행사(음악회, 드론쇼 등) 행사장 조성 및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8. 14(수) ~ 8. 18(일) - 장 소 : 솔뫼성지 및 버그내 순례길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60 시비 140) - 주요내용 : 10주년 기념 종교·문화예술·학술·전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사 : 10주년 특별미사, 도보성지순례 · 문화예술행사 : 기념음악회, 김대건 신부 관련 연극 상연 · 학술행사 : 제8회 아시아 천주교 청년대회 의미와 성과, 2027 WYD 준비 계획(학술 세미나) · 전시행사 : 교황 사진전, 교황방문 기획전시전 · 리마인드 행사 : 2014년 아시아 대회 참여 청년의 밤 행사 	

2) 충남 천주교 유산의 세계적 명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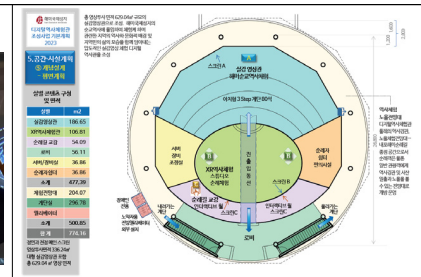
- 2027년 서울 WYD를 계기로 충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 구체적으로 천주교 사적지 정비 사업에 착수하였고, 선도사업으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함. 또한 서산, 당진, 홍성, 예산의 ‘내포 천주교 순례길’을 세계적 도보길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명소화하려 함
- 현재 예산과 당진, 홍성, 서산 지역의 천주교 유적을 연결한 내포 천주교 순례길 5개 구간 58.7km가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 야간 경관 시설과 순례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

-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추진을 통한 ‘2027 서울 WYD’ 기반 마련
 - ① 국제성지 업그레이드 : 순례문화센터 건립, 야간경관, 전망대 등
 - ② 해미읍성 일원 정비 : 행사장 공간 조성, 해자 경관 조망대 등
 - ③ 순례길 정비 : 도내 성지 정비, 순례길 정비 및 야간경관 설치 등

■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

- 2027 서울 WYD 기반으로 몰입형 실감영상 체험 및 역사경관 조망공간을 조성함
 - 사업기간 : 2023. 3. ~ 2024. 6.
 - 사업주체 : 서산시(보조사업자 :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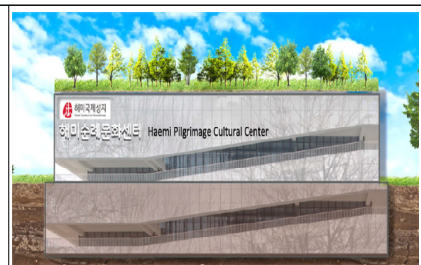
- 디지털 역사체험관, 역사체험 전망대



■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 국내외 순례자 다국어 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스마트 순례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4. 2. ~ 2025. 12.
 - 사업주체 : 서산시(보조사업자 :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도입 가능
 - 순례문화체험관, 다목적홀, 다국어순례지원실 및 순례 문화서비스 기능
 - 해미순교자 영성만남관, 교황방문기록전시관, 숙박순례 안내 기능
 - 무한자 나무 숲이 있는 치유의 옥상정원 기능



라. 전북에의 적용 시사점

1) 충남의 행사와 활용 사업의 한계

■ 인프라 부족

- 방문객을 수용할 교통·주차·숙박 인프라가 충분치 못해 행사 직전까지 긴급히 확충함
- 해미읍성 등 주요 행사장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소화하기엔 공간·편의시설이 부족함
 - 해미성지가 국제순례지로 승인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국내 다른 일반 순례지와 비교했을 때 국제순례지로서의 규모, 방문객 수, 인지도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¹⁰⁾

■ 조직 운영 미흡

- 교황 방문은 국가적 행사였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계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조율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
 - 준비 일정이 촉박하여 시민 자원봉사 조직이나 지역 상권과의 협력이 미흡

■ 지역 주민 참여 한계

-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에 참여하기보다는 행정·교계 주도의 방식에 머물러, 주민 체감과 자발성이 약했음
 - 일부 주민은 교통 통제나 생활 불편으로 행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

■ 안전 관리의 부담

- 교황 방문 자체가 세계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안전 관리, 특히 군중 안전과 교통 통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음
 -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만큼 행사 안전과 사고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컸음

10) 국토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3).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프랜 수립. 3쪽.

2) 국제행사 대응과 종교유산 활용의 시사점

■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

-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일시적 시설 보강이 아닌, 장기적 교통망 개선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행사 종료 후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화·관광 자산으로의 승화 필요

- 교황 방문을 계기, 언론매체 노출을 활용하여 연계 종교, 전통 공간을 문화·종교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2014년(8월)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아시아청년대회로 인한 '특수': 해미읍성(서산)과 솔뫼성지(당진) 일대 대규모 행사로 당해 연도 방문객이 '일시적 급증'(이벤트 피크)을 보임. 이후 2015~2019년 행사 효과의 잔존과 시설 정비·브랜딩으로 연평균 방문이 '완만한 증가'(특히 해미읍성·솔뫼성지 중심)를 보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급감(전국 공통 패턴).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는 회복되지 못함. 관광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예:충남도 '충남 방문의 해(2025-2026)' 홍보)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부, 지자체, 종교계, 지역사회가 사전에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혼선을 줄이는 것도 대안

■ 지역주민 주체성 강화

- 단순한 동원 수준을 넘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교황 방문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

5. 종교유산의 국제화 사례

가. 국제순례지

1) 국제순례지 지정 요건과 과정¹¹⁾

■ 국제순례지 지정 요건

- 국제순례지는 보통 바티칸(교황청) 또는 세계천주교 순례 조직(ACRP, 국제순례지 네트워크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지정되는데, 대체로 신학적·영적 요건, 신앙 공동체적 요건, 문화·관광 인프라 요건 등이 검토됨

[표 2-19] 국제순례지 지정에 관한 주요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신학적·영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적 의미와 역사성: 성인·순교자·중요한 종교적 사건과 직접 연결된 장소일 것 • 교구와 한국천주교회의 공인: 교회 내 공식 성지로 인정받고 순례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신앙 공동체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순례자 집객력: 이미 국내 신자·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국제적 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 • 지속적인 전례(미사, 고해, 피정 등)와 신앙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 인프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교통망, 숙박·편의시설, 안내 인프라 구축 • 국제순례자 수용체계: 다국어 안내, 순례길 정비, 국제 홍보 역량

■ 국제순례지 지정 절차

- 국제순례지로 지정받으려는 순례지에 대하여 교구 차원의 순례지 지정과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후 국가순례지 지정 단계를 거쳐 국제순례지 지정을 추진해야 함

11)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New Evangelization)의 1993년 「International Pilgrimage Sites Guidelines」 초안 및 후속 문헌(순례지 지정의 신학적·영적 요건과 교구장의 신청 절차를 명시). 가톨릭 교회법 (Codex Iuris Canonici, 1983) 제1230조-제1234조: 성지(Shrine)의 정의와 조건 규정(제1230조 "성지는 신자들의 특별한 신심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소"라고 명시). 세계천주교순례협회(ACRP, Association of Catholic Shrines and Pilgrimages in Europe) 국제순례지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접근성, 순례자 수용, 다국어 안내, 국제적 홍보 요건 강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CBCK) 순례위원회 지침(한국 내 성지 및 순례지 관리 지침, 성지 지정·운영 기준 포함) 참조하여 정리

- 국가순례지는 교구 성지 → 주교회의 순례위원회 검토 → 주교회의 본회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신앙적 역사성과 전국적 상징성이 핵심 요건임

[표 2-20] 국가순례지 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구 차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성지가 먼저 교구 성지로 지정되어야 함 - 교구장(주교)의 법적·사목적 선언에 따라 성지로 인정 ● 주교회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구장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순례위원회에 국가순례지 신청서를 제출 - 역사성, 신앙적 의미, 운영 현황, 순례자 수용 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 포함 ● 순례위원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회의의 순례사목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 - 성지 운영의 안정성, 전국적 순례 가능성, 교회적 필요성 평가 ● 주교회의 본회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례사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교회의의 전체 회의에서 국가순례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 ● 공식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경우,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가 공동으로 공표 - 국가순례지 현판, 전국 교구 공지, 공식 순례 노선 편입
--

- 국제순례지를 추진하는 국가순례지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주교회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교구장이 교황청에 국제순례지 지정에 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함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순례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국내 성지 간 조정 및 국제적 위상을 평가
- 교황청은 역사적·신학적·영적·실무적 요건을 검토한 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승인을 거쳐 교황청 공식 문서로서 국제순례지로 선포함

[표 2-21] 주요 국제순례지

순례지 이름	위치	승인 형태 및 시기
천주교 서울 순례길	대한민국 서울	2018년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로 승인·선포
메주고리에 (Medjugorje)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24년 9월, 교황청이 'Nihil Obstat'부여—순례와 헌신 권장
산 Zvir (Slovakia)	슬로바키아, Litmanová 주변	2025년 7월, 마리아 현현과 관련된 공적 헌신에 'Nihil Obstat'부여
성좌 산 Pellevoisin 성지	프랑스, Pellevoisin	2024년 8월, “Our Lady of Mercy” 헌신 활동에 대해 'Nihil Obstat' 부여
로마 7대 순례 교회	이탈리아, 로마	전통적 순례지로, 성년(주빌리) 해에 거룩한 문(Holy Door)개방. 교황청 전통적 승인

2) 국내의 국제순례지

■ 천주교 서울 순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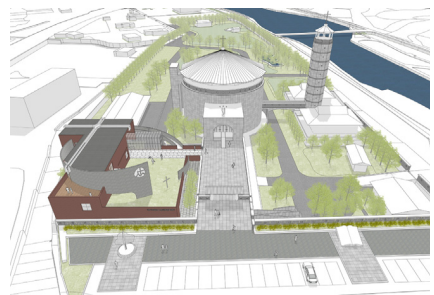
- 2013년 국가순례지로 승인받은 후에 아시아 최초 교황청 공식 ‘국제순례지’로 승인받았고, 총 44.1km에 걸쳐 24개 순례지(성지·순교성지·교회사적지)가 연결됨
 - 서울대교구는 2012년 문체부 발주 용역을 통해 2012년 국제순례지 조성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에 국제순례지로 승인 획득
- 2012년 국제순례지 후보인 ‘서울 천주교 성지순례길’은 서울 도심 소재 명동성당 → 수표교 → 좌우 포도청터 → 서소문 성지 → 용산 시계동의 당고개 성지 → 새남터 → 절두산 성지로 이어짐
- 국제순례지 지정 이후에 3개 보행형 코스로 개발되어 대중에게 개방됨
 - 말씀의 길 (8.7km, 약 2시간 소요): 명동대성당 → 장악원터(김범우의 집터) → 이벽의 집터 → 좌포도청 터 → 종로성당 → 광화문 → 성신교정 → 석정보름우물 → 가회동성당
 - 생명의 길 (5.9km, 약 1시간 30분 소요): 가회동성당 → 광화문 시복 터 → 형조 터 → 의금부 터 → 전옥서 터 → 우포도청 터 → 경기감영 터 → 서소문 역사공원 → 약현성당
 - 일치의 길 (29.5km, 약 8시간 소요): 약현성당 → 당고개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절두산 순교성지 → 노고산 → 용산성심신학교 → 왜고개 성지 → 삼성산 성지



- 해설이 있는 순례길 투어를 제공함. 서울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하며, 한·영·중·일 4개 국어 안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됨. 참여자가 스탬프를 찍어 코스 완주를 인증할 수 있음

■ 해미 국제 성지순례길

- 2018년 국가순례지로 지정받았고, 국내 유일하게 단일 성지로 국제순례지를 지정받음
 - 2020년 11월 29일,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순례지로 선포된 이후에 2021년 3월 1일 공식 인증
 -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단일 국제순례지로 평가.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인정받은 사례
- 충남 내 천주교 순례길로서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향함
 - 총 9개 구간, 140.5km 규모의 순례길로 조성 중이며,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별칭 사용
 - 해미 국제순례지 중심으로 보령,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지역까지 이어지며, 역사적 순교터를 연결
- 2023~2033년까지 1,250억 원 규모로 성지순례 관련 시설과 인프라가 구축 중임
 - 디지털 역사 체험관: 내포(충남 서해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실감형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해미역사탐방로 야간 순례길: 한티고개에서 해미성지까지 6km 데크, 보안등, 보행교 설치
 - 순례길 종점 구간: 옛 해미초등학교 부지에서 해미국제성지까지 1.7km 구간에 벽화거리, 쉼터, 안내표지, 데크, 징검다리 조성
 - 간월암 명품 가로수길: 경관 중심의 고품격 산책로 조성
 -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해미성지 종점에 조성 중이며, 교황 방문 기록 전시관, 순례문화 체험관, 다국어 안내지원실, 옥상정원 등을 포함해 국내외 순례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예산 여사울성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
- 예산과 당진 등 주변 지역별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순례길을 조성 중임
 - 내포문화숲길 - 홍주천주교순교성지 순례길: 예산군 내포문화숲길은 홍주성 순교터(증거터·순교터·생매장터), 여사울·배나드리성지, 솔뫼·신리·해미 등 여러 성지를 잇는 순례 문화 연결망
 - 당진 버그네 순례길: 솔뫼성지 → 합덕성당 → 신리성지까지 이어지는 순례길로, 황금 화하나무 200그루를 조성 중이며 2028년까지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



[그림 2-9] 순례방문자센터 조감도

나.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¹²⁾

■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소, 한국의 천주교 공동체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내용 : 연속유산 구성을 위한 유산 심층조사 및 비교연구, 등재 추진협의체 구성,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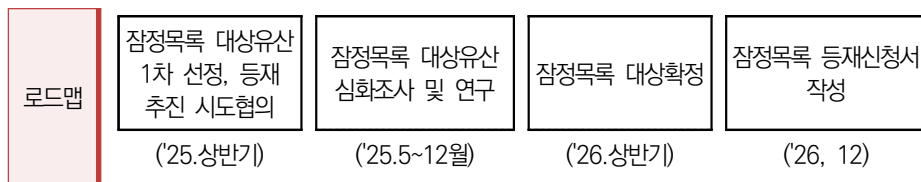
○ 추진경과

- ('16.~'18) 천주교 종교유산 학술용역 발주(충남역사문화연구원)
- ('19. 9.)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 부결(사유 : 비교연구 부족 등)
- ('20~'22) 유네스코 사전자문(upstream) 선정 및 진행
- ('22.11~'23.12) 충남 천주교 신앙공동체 유산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 ('23.8~'24.12) OUV 개발, 전국 신앙공동체 유산 기초조사, 심화 조사
- 심화 조사(잠정목록 예비) 대상 선정, 유산별 현황 및 특징 등 보고서 작성

【1차 대상유적 : 12개소】

- ▶ 충남 : 여사울성지, 신리성지, 성거산성지, 상홍리공소, 합덕성당, 진산성지
- ▶ 전북 : 초남이성지, 되재성당지, 어은공소, 나바위성당, 전동성당
- ▶ 서울 : 명동성당

○ 향후계획



12)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원. (2024). 2023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에서 인용

■ 세계유산 가치와 추진 방향

- 핵심 개념은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 공소(公所)임. 공소는 자발적 수용기-박해기-신앙자유화기를 거쳐 한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으며, 평신도 주도의 독창적 신앙문화 형성 과정을 보여줌
 - 공소의 가치: 민가 활용 전례 공간, 한옥·한양절충·서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 평신도 중심 운영 방식, 연도(위령기도)와 같은 무형 전통 등이 포함
 - 공소의 범위: (① 신앙공동체) 일반적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공동체 (=교우촌), (② 건축물) 신자들의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는 공간 (공소, 성당), (③ 행위) 공동체가 모여 행하는 정기적인 집회나 사제가 와서 진행하는 일련의 전례 행위 및 선교
- 공소 개념은 특정 문화 전통·문명의 특출한 증거이자, 사건, 살아있는 전통, 사상·신조 등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기준에 부합함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기준: (iii) 특정 문화 전통·문명의 특출한 증거. (vi) 사건, 살아있는 전통, 사상·신조 등과의 직접적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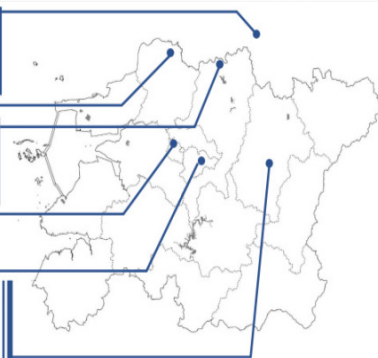
■ 유산 현황 조사 및 선별

- 충남역사문화원 연구진이 전국 929개 천주교 관련 유산을 파악하여, 교우촌, 공소, 성당, 순교유적, 기타로 분류한 뒤 선별 과정을 거침
- 1차(신앙공동체 관련성 낮은 유산 제외), 2차(기록만 전하는 항목 제외), 3차(역사성 낮은 유산 제외)의 선별과정을 거쳐 모두 123개 대상 유산을 도출함
 - 전주교구 포함 현황: 전북 지역 26개 유산(성당 4, 공소 19, 교우촌 2, 기타 1) 조사

■ 등재 대상 유산(잠정)(안)

- 세 축으로 구분하여 대표 유산군을 선정함
 -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직후에 형성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산으로, 첫째, 서울의 명례방 공동체 유산군, 둘째 충남의 여사를 공동체 유산군, 셋째, 전북의 초남이 공동체 유산군으로 구분

[표 2-22]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내용과 초남이 공소 유산군 현황

○ 한국 천주교 공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이루는 속성		
천주교가 평신도 주도로 자발적으로 수용되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토착화한 문화 전통의 특출한 사례	공소 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흔적 및 사건	자발적 수용기, 박해기, 신앙자유화기를 반영하는 공소 공동체의 입지 시기별 공동체의 존재 양상과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유적, 유물, 인물
	공소 공동체 전례 공간의 특징 및 발전을 반영하는 건축 양식과 디자인	민가를 이용한 전례 공간 한옥 공소 강당 한식과 서양식의 절충 남녀를 구분하는 칸막이나 출입문 서양식 성당의 마룻바닥
	평신도 주도의 공소 운영 방식과 가톨릭 전통과 한국의 전통 문화의 조화를 반영하는 전례와 의례	공소회장의 공소 예절 공소 관리 방식 장례 시 연도 (위령기도)
○ 대상 유산		
- (명례방) 서울 명동성당		
- (여사울) 당진 신리공소, 당진 합덕성당, 서산 상흥리공소, 예산 여사울성지(교우촌), 천안 성거산성지(교우촌)		
- (초남이) 완주 초남이성지(교우촌), 금산 진산성지(공소), 완주 되재성당지(공소), 익산 나바위성당, 전주 전동성당, 진안 어은공소		
* 천주교의 자발적 수용기(18세기 후반)에 전라도에 형성된 첫 신앙공동체인 초남이·진산공동체를 모태로 박해기-신앙자유화기에 이르리까지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확산·발전		
<div><div><div>익산 나바위성당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정의 신앙자유화 초기 분당, 사목 거점 구성 한양절충 성당, 김대건 신부 입국 터 지정 국가 사적</div><div>완주 초남이성지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정의 자발적 수용기 신앙공동체 형성 구성 유령검 성가터, 첫 순교자 윤자중 관상연 유적 지정 전라북도 기념물</div><div>전주 전동성당 전주시 완산구 전동 정의 신앙자유화 초기 분당, 사목 거점 구성 서양식 성당, 한국 첫 순교 터 지정 국가 사적</div></div><div><div>금산 진산공소 금산군 진산면 지평리 정의 박해기 교우촌 형성, 신앙자유화 공소 구성 성지성당, 구 성당 지정 국가 등록문화유산</div><div>완주 되재공소 완주군 화산면 송치리 정의 박해기 교우촌 형성, 신앙자유화 초기 분당 구성 한옥성당(복원), 교우촌 지정 전라북도 기념물</div><div>진안 어은공소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정의 박해기 교우촌 형성, 거점 교우촌 구성 한옥공소, 교우촌 지정 국가 등록문화유산</div></div></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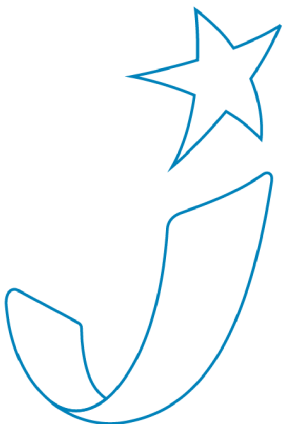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4). 2023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참조



제3장

WYD 자원 및 연계 방향

1. 환경 분석
2. 전략방향 설정



제3장 WYD 지원 및 연계 방향

1. 환경 분석

가. 거시적 환경 분석(PEST)

■ 정책적 환경(Political)

- WYD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 등 다양한 정책 지원 구상
 - 개최 준비를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는 ‘2027 제41차 서울 WYD 지원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복수로 발의되었으며(2024~2025년), 현재 소관 상임위 계류 상태임. 법안에는 국무총리 주재 정부지원 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음. 정교분리 논란 등이 있으나, 법안의 심사·의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직접 지원도 가능함
 - 특별법 제정 시 정부 차원의 조정·지원 창구가 공식화되어 준비·안전·교통·의료·환대 등 공공기능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가능해지고, 제정이 지연·불발되더라도 개최 확정 사실 자체가 중앙부처·지자체 간 업무협조·가이드라인 정비(안전, 접근성, 정보 일관성 등)의 근거로 작동할 전망이다
- 외래관광객 확대 정부정책과 외래 ‘순례·체험’ 유입 기대
 - 정부는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중기 목표로 제시하고, ‘K-컬처와 결합한 체류형 체험’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범부처 전략회의). 이는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의미·체험·학습형 방문을 장려하는 큰 틀의 정책 신호임
 - K-ETA(전자여행허가) 임시 면제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어 다수 국가 방문자의 사전 절차 부담이 완화된 상태이며, WYD 전후 단기 순례·체험 일정을 계획하는 해외 청년·단체에 우호적으로 작용함. 즉 입국 편의와 체험 장려 기조로 WYD 전·후 기간의 외래 순례·체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와 초광역권 연계사업 확대
 - 5극3특 전략에 따라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초광역특별협약(Co-Design)’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포괄보조 확대가 예고되어 초광역 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됨. 또한 17개 시·도 체계에서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 내 ‘60분 대중교통 생활권’ 구축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되어, 권역 간 이동·접근성 표준화가 뒷받침됨

- 이는 전주교구대회 지원·순례 네트워크·영성문화 거점화 같은 초광역 성격의 과제를, 협약·조작·재정·이동 표준까지 묶어 정책 패키지로 설계·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함. 전북(‘3특’-충남(‘중부권’)-서울(‘수도권’))을 잇는 초광역 연계 과제를 공식 전략 틀 안에서 설계·협력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전주교구대회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의지

- 2025년 전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는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지역 공공 리더십이 참석하여 협력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전주교구대회 관련 사업이 계획됨. 또한 전북도 및 시군,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주교구대회 연계한 지역의 영성문화 및 종교관광 거점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 전북도 차원의 지원협의체가 결성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광역(서울·충남)과의 초광역 연계 논의에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또한 이 협의체가 전주교구대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면 전북의 국내·외 영성문화 거점화를 본격화할 수 있음

■ 경제적 환경(Economic)

○ 영성문화·종교와 맞닿은 웰니스·치유관광의 고성장

- 글로벌 웰니스 경제는 2023년 6.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8년 9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이 제시됨.¹³⁾ 팬데믹 이후 ‘회복·의미·자기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임. 웰니스는 단순 휴양을 넘어 명상·침묵·영성·자연 치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
- 전북의 가톨릭 핵심 장소(전동성당-치명자산-나바위-여산)와 조용한 체류·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한옥, 향교, 무형유산)은 ‘영성 중심 웰니스’로 해석될 때 부가가치가 커짐

○ 한국 정부의 인바운드 확대·목표 상향과 순례·체험 유입 기대

- 정부는 2027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공식 목표로 제시하고, K-컬처와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정책을 추진 중임. 입국 편의 측면에서는 K-ETA(전자여행허가) 임시 면제 연장(2025.12.31까지)로 단기 체험 방문의 마찰 비용을 낮추고 있음
- 목표 상향과 입국 편의 완화는 WYD 전후 사전·사후 순례 수요를 키우는 경제적 전제임. 간결한 다언어 핵심 안내와 일정·예절 정보의 일관성을 갖춘 지역이 실제 방문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음

○ 전주한옥마을의 초대형 방문 수요와 전북관광의 문제점·과제

13) https://globalwellnessinstitute.org/press-room/statistics-and-facts/?utm_source=chatgpt.com

- 전주시는 2023년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1,536만 4,206명(역대 최대)을 공식 집계했음. 외국인 방문도 전년 대비 4.8배 증가했음. 다만 한편 지역 차원의 지출 구조는 음식 편중·숙박 약세가 지적되며, 체류형 전환(숙박·체험·학습 결합)의 필요성이 공공·연구 부문에서 반복 제기됨
- 이미 존재하는 초대형 유입을 영성문화 체류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즉, 도심(한옥·향교)-가톨릭 코어·주변을 잇는 짧은 루프의 고품질 체류를 만들 때 숙박·교육적 지출이 따라올 수 있음
- 국외 관광객(필리핀 등) 전북 방문 현황
 - 전북도는 2024년 외국인 방문 234만 명 돌파를 발표했으며, 시군별로 군산(101만)·전주(63만)·익산(24만)·완주(20만)·김제(11만) 순으로 집계했음(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인용).
 - WYD와 깊게 관련된 필리핀의 2024년 방한객은 51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0.7% 급증했음. 가톨릭 인구가 두드러지는 국가의 유입 확대는 순례·영성체험 잠재 시장을 의미함(한국관광 데이터랩)
 - 전북도는 일본·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을 주요 시장으로 로드쇼·설명회를 추진 중입니다. 국적별 점유율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가톨릭 비중이 높은 필리핀의 방한 확대는 전북의 사전·사후 순례 루프 제시에 경제적 근거를 더함
- 지역 균형관광 및 광역 연계 루트 조성 트렌드
 - 중앙정부는 초광역 협력 기조 속에서 권역 단위의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권역 내 웰니스 특화·스토리형 루트 등 연결형 상품화를 강조함. 이는 개별 지자체 단위의 중복·분절을 줄이고 권역 공통규격(표지·표기·안내)을 유도하는 방향임
 - 서울-충남-전북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순례 네트워크는 시대적 트렌드와 맞물림. 경제적으로는 홍보·안내의 공동비용 절감, 상호 송객·체류 연장 효과, 권역 브랜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적 환경(Social)

- 종교 간 갈등 이후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한국 사회는 종교 인구의 다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신교·불교·가톨릭·원불교 등 4대 종교 외에도 천도교·이슬람·무종교 등 다양한 신념 체계가 공존함
 - 종교 간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이 때때로 불거지나 최근에는 오히려 '종교 간 공존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짐. 정부와 시민사회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종교평화포럼', '다종교 대화 주간'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배타적 선교 중심의 접근에서 '상호 존중과 학습 중심의 종교문화 교류'로 전환

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전북은 가톨릭과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종교 거점이 집적되어 있어 “공존을 배우는 현장”으로서 상징성이 큼. 종교 간 협의체 및 공동 사업의 제도화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흐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임

○ 비종교적인 ‘영성문화’ 선호 및 체험 활동 증가

- 2021년 한국갤럽 조사 기준 무종교 비율은 약 60%,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내면의 평화·자기돌봄’을 중시하는 ‘비종교적 영성’(Non-religious Spirituality) 추세가 뚜렷함. 이를 반영하듯, 미디어를 통해 명상·묵상·요가·마음챙김·걷기 등의 심리적·영적 치유 콘텐츠가 일상문화로 자리 잡았음
- 청년층의 경우 교회나 성당보다 ‘명상센터·숲길·힐링캠프’ 등 개방형 공간에서 영성을 체험하는 비율이 높아짐. 이는 신앙의 소속보다 체험의 질·메시지의 진정성이 선택 기준이 되는 흐름임을 말해줌
- 전북은 고요한 자연환경과 성지의 조화로운 배치로 ‘신앙적 깊이와 보편적 영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묵상·산책·침묵의 시간·문화적 해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신자·비신자 모두에게 개방적인 영성문화로 확장할 수 있음

○ K-Culture의 세계적 인기와 청년문화와의 연동 가능

- 2024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30억 달러를 넘어, 세계 6위 규모의 문화 수출국으로 성장했음. K-팝, K-드라마, K-푸드뿐 아니라 ‘한국적 정서·예술·공동체성’ 자체가 세계 청년 세대의 관심 키워드로 확산되고 있음
- 종교적·문화적 행사를 찾는 해외 청년들은 K-Culture 경험과 의미 있는 사회참여·학습형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호함. WYD 참가자나 국제 청년 순례객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전통·예절·공동체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요임
- 전북은 한옥·국가무형유산·전통예술·음식·예학의 본고장으로, “K-Culture의 정신적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짧고 의미 있는 참여형 체험을 도입하면, ‘한국적 영성’과 ‘청년문화’의 연동이 가능함

○ 심리적 안정·공동체 회복·자기 돌봄의 치유문화 확산과 순례의 확장

- 팬데믹 이후 ‘치유’는 문화·여가·관광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며, 심리적 안정·공동체 회복·자기 돌봄을 추구하는 ‘힐링 산업’이 급성장함.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육성하고, 2024년 기준 70개 이상의 치유 거점을 관리 중임
- 순례도 더 이상 종교 의례에 국한되지 않고 걷기·명상·사유의 여정으로 확장됨. ‘카미노 데 산티아고’형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변화의 증거임
- 전북의 가톨릭 성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하면 ‘치유형 순례’라는 새로운 영성문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조용한 걷기·묵상·자연과의 교감은 세대·국적을 초월한 공통 언어임. 치유 중심 순례는 관광적 소비보다 내적 회복과 의미 탐구의 경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한문화 수도이자 종교문화 거점으로서의 지역 정체성

- 전주는 역사적으로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한(韓)문화 수도'로서 전통예술·의례·음식·서체 등의 근원을 간직하고 있음. 동시에 전주 전동성당, 치명자산, 나바위, 여산 등은 한국 천주교 초기 역사와 순교 서사를 대표하며, 인근에는 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의 중심지가 함께 자리함. 이러한 복합적 유산 구조는 전복을 단일 종교 도시가 아닌 '종교문화의 공존도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전북의 정체성은 "전통과 신앙, 일상과 영성, 문화와 평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표현될 수 있음. 지역 주민과 청년 세대가 '한문화와 영성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공유할 때, 종교 행사를 넘어선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형성됨.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WYD 전주교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영성문화 네트워크로 발전할 기반이 됨

■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 가상현실 기술의 고도화와 종교문화 재현

- 메타버스·XR(확장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공간·인물·의례를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 특히 AI 이미지 복원·모션 캡처·홀로그램 투사 기술을 활용하면, 역사적 인물·성인·순교 현장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신앙 체험'이 가능함
- 국내·외 주요 박물관과 종교기관은 VR·AR 기반 디지털 성지순례 콘텐츠를 이미 개발·운영 중임. 예컨대 교황청은 '바티칸 VR 박물관'을, 한국은 일부 성당에서 성인 복원 홀로그램 전시를 시도함
- 전북은 가톨릭의 초기 역사와 순교 서사가 풍부하고, 미륵사지·왕궁리·전동성당 등 문화재적 현장성이 높음. 이러한 유산과 디지털 복원 기술(VR·AR·홀로그램)을 결합하면, 방문자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의 입국 여정(나바위 성지), 전동성당의 건축 과정, 치명자산의 순교자 복원 등을 3D·AR 기반으로 시각화하면, 신앙교육·역사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 이러한 디지털 재현은 국제 순례자가 언어 장벽 없이 신앙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비언어적 소통 도구로도 유용함

○ 치유 관련 기술 발달 및 콘텐츠의 다양화

- AI 피트니스, 디지털 명상 앱, 바이오피드백·EEG 기반 명상 체험, 사운드 테라피·조명 치료, 자연음 가상화 기술 등 ICT 기반 웰니스 기술이 급속히 확대됨. 치유 콘텐츠의 범위가 의료 중심에서 감성·정서·정신적 회복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힐링(Digital Healing)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음
-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웰니스 관광지' 70곳 이상을 지정해, 디지털 명상·숲치

유·사운즈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전북은 산과 바다, 사찰과 성지, 한옥과 향교가 공존하는 복합 치유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힐링 기술을 접목하면, 신체적 휴식 + 정신적 성찰 + 영적 위로를 통합하는 '영성 치유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음. 성가·범패·풍류 같은 전통 음향 자산을 기반으로 한 사운즈스케이프 명상 프로그램, AI 호흡·심박 측정과 연동된 묵상 체험 등은 전북형 영성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음

○ AI·데이터 기반 수요예측 및 위치기반 서비스(LBS) 활성화

- 정부·지자체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관광객 흐름 분석·혼잡도 예측·이동경로 추천·맞춤형 알림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강화함. 예측·분석 기술은 기존의 관광산업을 넘어, 문화유산 관리·행사안전·교통제어 등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WYD 전후 대규모 방문객의 시간대별 이동 예측, 성지별 혼잡도 실시간 알림, 긴급 상황 알림 시스템 구축에 AI 데이터 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음.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순례자 이동 경로·기도 공간·휴식 지점 등을 자동 안내하고, 개인의 언어·국적·시간대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 전북은 디지털 정보 일원화를 목표로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앙체험의 질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병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술 기반은 '기술 중심 관광'이 아니라 안전·질서·환대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함

○ 관광·문화산업 관련 기술 확산과 융합 인프라

- 관광산업 전반에서 스마트 기술(무인 발권·IoT·모바일 결제·QR 인증·디지털 여권)이 표준이 되었고, 최근에는 감성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와 에너지 절감·탄소저감 기술이 결합됨. 전국 주요 도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내체계·디지털 표지·모바일 해설 플랫폼을 구축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2024년 기준 25개 도시로 확대되었고, AI 기반 음성 해설·언어 자동 변환 기능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음
- 전북은 전주한옥마을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공연·아카이브 시스템을 보유함. 이러한 기반을 순례·영성 분야에 접목하면 모바일 순례 여권, AI 해설, 디지털 지도·표식, QR 기도 안내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음. 단, 기술 활용의 목적은 편의가 아니라 경험의 집중과 질서의 확보, 즉 '기술을 통한 고요함의 회복'이 되어야 함. 장기적으로는 전북이 스마트 영성도시 모델—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앙과 문화가 조화되는 지역—을 선도할 수 있음

[표 3-1] WYD 연계 발전 전략 구상을 위한 PEST 분석 내용

PEST	거시환경 분석	시사점
P	WYD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정책 구상	WYD 지원 특별법 제정 시 정부 차원의 조정·지원 창구가 공식화되어 준비·안전·교통·의료·환대 등 공공기능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가능해짐
	외래관광객 정책과 순례·체험 유입 기대	입국 편의와 체험 장려 기조로 WYD 전·후 기간의 외래 순례·체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사업 확대	전북(3특)-충남(중부권)-서울(수도권)을 잇는 초광역 연계 과제를 공식 전략 틀 안에서 설계·협력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전주교구대회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의지	전북도 차원의 지원협의체가 결성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초광역 연계 논의도 활성화되어 전북의 국내·외 영성문화 거점화가 가능함
E	웰니스·치유관광의 고성장	전북의 가톨릭 핵심 장소와 조용한 체류·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영성 중심 웰니스'로 해석될 때 부가가치가 커짐
	인바운드 순례·체험 유입 기대	목표 상향과 입국 편의 완화, 간결한 다언어 핵심 안내와 일정·예절 정보의 일관성은 WYD 전후 사전·사후 순례 수요를 키우는 전제임
	전주의 초대형 방문 수요와 과제	기존의 초대형 유입을 영성문화 체류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즉, 도심-가톨릭성지-주변을 잇는 고품질 체류 프로그램이 필요함
	국외 관광객(필리핀 등) 전북 방문 현황	전북도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로드쇼·설명회를 추진 중임. 가톨릭 비중이 높은 필리핀의 방한 확대는 전북의 순례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임
	지역 균형관광 및 광역 연계 트렌드	서울-충남-전북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순례 네트워크는 공동비용 절감, 송객·체류 연장 효과, 권역 브랜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S	종교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전북은 가톨릭과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종교 거점이 집적되어 있어 공존을 배우는 현장으로서 상징성이 큼
	비종교적인 영성문화 선호 및 체험 증가	전북에서 묵상·산책·침묵의 시간·문화적 해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신자·비신자 모두에게 개방적인 영성문화로 확장할 수 있음
	K-Culture의 인기와 청년문화 연동	전북은 K-Culture의 정신적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한국적 영성'과 '청년문화'의 연동이 가능함
	치유문화 확산과 순례의 확장	가톨릭 성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하면 내적 회복과 의미 탐구의 경험 가치를 높이는 '치유형 순례'라는 새로운 영성문화 모델이 됨
	한문화 수도이자 종교문화거점 정체성	전북이 갖는 '한문화와 영성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은 영성문화 네트워크로 발전할 기반이 됨
T	가상현실 고도화와 종교문화 재현	전북의 종교 유산과 디지털 복원 기술을 결합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음
	치유 관련 기술 발달 및 콘텐츠의 다양화	전북의 복합 치유 환경에 디지털 힐링 기술을 접목하면, 신체적 휴식+정신적 성찰+영적 위로를 통합하는 영성 치유 콘텐츠로 발전 가능함
	AI·데이터 기반 관광 서비스 활성화	전북은 디지털 정보 일원화를 목표로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앙체험의 질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병행할 수 있음
	관광·문화산업 기술 확산과 융합 인프라	구축한 기술을 순례·영성 분야에 접목하여 단순 편의가 아니라 경험의 집중과 질서의 확보, 즉 '기술을 통한 고요함의 회복'으로 추진해야 함

나. SWOT 분석

■ S (Strengths, 강점)

- 전북은 초기 천주교회 역사의 서사가 집중되어 있음. 짧은 동선에 전래-순교-증언 스토리가 탄탄하며, 종교·자연·문화유산이 가까운 생활권 내에 고도로 집적되어 있음. 전동성당-치명자산-초남이성지-나바위·여산으로 이어지는 가톨릭 핵심 성지와 자연환경이 ‘치유형 순례’의 물리적 무대를 이미 제공함
- 6대 종교의 대표 성지가 가까이 있어 공존과 학습의 현장으로서 상징성이 높음. 또한 전북은 한옥·국가무형유산·예학·전통음식 등 한문화 수도로서의 자산을 갖추고 있고, 국립무형유산원과 UNESCO 등재 유산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전북에서 다년 간 열리며 4대 종단(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종교 협력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치유관광 사업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며, 순례 등 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 기반도 탄탄함. 예를 들어 한옥마을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무형유산원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순례·영성 콘텐츠에 확장하는 등 다양한 융·복합형 사업이 가능함

■ W (Weaknesses, 강점)

- 다양한 종교 자원이 밀집되어 있으나, 종교 간 협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15년 이어온 세계종교문화축제가 더는 개최되지 않는 등 종교 간 협력이 약해짐
- 전북의 방대한 종교·문화 자원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성지·기관별 안내·표기·시간 정보가 일관되지 않음. 또한 ‘한옥마을-미식’ 중심 노출이 강하고, 가톨릭·영성 브랜드는 플랫폼상 상대적으로 산발적이어서 브랜딩·메시지가 분산됨
- 전주한옥마을의 초대형 유입(2023년 1,536만 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 소비는 여전히 식음 중심·숙박 약세 구조로 체류형 전환이 부족함
- 천주교 유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신력과 인지도 측면에서 후발주자임. 서울(국제 순례길)·해미(국제성지) 대비 인증·인지도에 격차가 있음

■ O (Opportunities, 기회)

- 정부 차원의 WYD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로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5극3특 전략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로 서울·충남·전북을 잇는 문화·종교 연계 사업의 정책적 추진력이 확보되었음
- 세계적으로 웰니스·치유관광 산업(6.3조 달러, 2028년 9조 전망)이 성장하고, 정부의 인바운드 목표(3,000만 명·300억 달러)는 외래 순례·체험 수요의 확대가 기대됨
 - 서울 순례길(2018)과 해미 순교성지(2021)가 교황청 국제(순례)성지로 선포됨으로써 국내 및 아시아 순례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WYD를 계기로 외래 순례·체험 수요 확대 전망
- 종교 간 경계를 넘거나 비종교적 영성·치유문화의 확산, K-Culture의 글로벌 인기, 청년세대의 문화참여 선호 등 사회문화적 기반도 긍정적임
 - 문체부·관광공사, 2024년 '웰니스 관광' 우수 77곳 선정(자연·숲치유 25, 치유·명상 17 등) 및 전국 프로모션 운영. 명상·숲치유가 주요 테마로 부상
 - 치유의 숲 등 전국적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운영 완화(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 1일 600명 제한 해제)
- 전북 내 권역별 연계 프로모션 여건이 충분함. VR·AR·홀로그램·AI 등 디지털 복원·데이터 기술은 신앙·역사 체험을 다국어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부상함

■ T (Threats, 위협)

- 서울·충남은 이미 국제 순례지 인가를 확보해 브랜드 선점 효과가 크며, 각 지역의 웰니스·영성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어 경쟁이 심화됨
 - 서울과 충남의 국제 인증 순례길이 브랜딩 우위를 확보하였고, 유사한 사업이 전국에서 개발·운영
- 종교 간 오해나 정교분리 논란 등 사회적 갈등 리스크도 잠재되어 있음
 - 세계종교문화축제 2024 불발 등 공동행사·연계사업의 중단·갈등은 신뢰·지속성에 영향을 끼침
- 무분별한 기술도입이나 상업화는 '고요와 존중'이라는 영성의 본질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해외 순례객의 급증에 대비한 숙박·언어·응급 인프라가 아직 제한적임

2. 전략방향 설정

가. TOWS 전략분석

■ SO 전략 -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활용한다’

- 짧은 생활권에 집적된 6대 종교의 다양한 유산과 산·들·바다가 망라된 자연환경, 가장 한국적인 무형유산 자산을 활용하여 전북형 ‘치유형 순례’ 거점을 조성함. 이를 통해 전북을 단순 방문지가 아니라 “회복과 배움의 여정지”로 만들
- 전동성당-치명자산-초남이성지-나바위-여산 등 천주교 주요 성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주요 명소 등 자연치유권을 연계해 WYD 전·후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함
- 한옥·향교·음식·소리 등 한문화 요소를 결합해 ‘가장 한국적인 영성체험’ 콘텐츠로 고급화하고, VR·AR 기술을 활용한 성인·순교 현장 복원으로 국제 순례자에게 언어를 초월한 이해의 창을 제공함
- 정부의 인바운드 확대와 초광역 협력 기조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성은 유지하되 하나로 잇는 K-순례길을 서울·충남·전북이 공동으로 추진함
 - 공동 순례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동 홍보·공동 안내 루트로 구성해 글로벌 순례·치유 거점화
- 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순례를 활성화하고, 선택적 ‘이웃종교 탐방’을 연계함. 천주교 순례를 하면서 원하면 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의 학습 방문을 곁들일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 ST 전략 - ‘강점으로 위험을 미리 낮춘다’

- 국제적인 경쟁, 국내에서의 유사한 프로그램 중복이라는 환경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른 이미지, 예를 들어 ‘조용하고 깊은 체험’과 같은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전북을 방문한 WYD 청년을 비롯하여, WYD 이후에 전북을 방문하는 순례객을 대상으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장소(예를 들어, Must-See 4)를 선정하고, 이 장소를 중

심으로 주변 명소를 연계하는 순례 프로그램을 제공함

- 종교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협력적인 전주교구대회가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WYD 이후에도 종교 공존의 지역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
- ‘기술로 돕는 침묵’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치유 기술을 접목하여 전북의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함

■ WO 전략 - ‘약점을 기회 활용으로 메운다’

- 5극3특 체계와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통해 서울·충남과 공동 안내·공동 예절·공동 일정표를 합의·발행함으로써 정보 일원화·신뢰성 제고를 추진함
- 다언어 핵심 카드와 모바일 지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형 치유형 순례 플랫폼을 구축함
- 전주한옥마을의 초대형 유입을 도심·성자·자연·이웃종교로 잇는 짧지만 고품질의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소비 중심 구조를 의미 중심 체험 구조로 바꿈
- 종교 간 화합을 높이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이웃종교 상호방문을 추진함. 특정 시기에 상호방문·대화의 시간을 열어 종교 간 신뢰를 축적함

■ WT 전략 - ‘강점으로 위험을 미리 낮춘다’

- 정보 혼선·협력 피로·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핵심 집중·단계적 확장 원칙을 세움. 상설 협의체를 통해 기후·군중 안전관리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응급·의료·통역 인프라를 확충해 행사 안정성을 담보함
- 지역 내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 코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 4개 지점의 안내·접근성·침묵공간·안전 체계를 완비하고, 이후 주변 성지·이웃종교 탐방으로 확장함
- WYD를 위한 현장 안내자 및 영성문화 관련 자원봉사자를 양성함. 다언어 가능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핵심 장소별로 대회 및 전북 영성문화를 소개하는 인력을 배치함

나. WYD 자원 및 연계 전략 방향

■ (목표) “모두의 WYD와 현대의 영성문화 거점”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현대의 문화로 모두의 WYD가 되도록 지원함
- 전북은 속도의 시대가 아닌 깊이의 시대에 맞는 ‘치유형 순례’의 중심으로서 WYD 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영성문화 국제거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존과 치유의 상징 지역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함

[표 3-2] 모두의 WYD 및 영성문화 국제거점의 개념과 핵심 키워드

개 념	모두의 WYD	<ul style="list-style-type: none"> WYD를 특정 종교·집단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누리는 열린 축제로 만들자는 의미
	영성문화 국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인간·자연·공동체가 회복과 화해, 성찰과 배움을 나누는 세계적 배움터 단순히 특정 종교의 순례지나 관광지를 뜻하지 않음. 이는 신앙·문화·예술·자연이 함께 작동하는 회복과 공존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 국내외 시민·청년·신자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는 플랫폼
키 워드	현대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WYD를 찾는 모든 이들을 국적·언어·신앙을 넘어 먼저 맞이하고,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태도로서 ‘모두의 WYD’에 대한 기본 정신
	치유형 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장소를 찍고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몸·마음·영혼의 회복이 목적인 여행·여정. 신앙 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나 침묵·호흡·걷기·배움을 통해 내적 정리와 관계의 화해, 장소의 기억과 만남을 경험하는 공적 체험 모델

■ (방향) 3C+3H 가치를 통한 목표 실현

- 모두의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WYD를 계기로 천주교 유산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고요·연결·공존(3C), 치유·조화·인간다움(3H)을 가치로 전북을 치유와 공존의 영성문화 국제거점으로 조성함

[표 3-3] 모두의 WYD 개최 및 영성문화 국제거점화를 위한 핵심 가치(3C+3H)

3C	고요(Calm)	속도를 늦추고 침묵·사유·명상의 시간을 회복하는 문화적 질서
	연결(Connection)	종교·세대·국가를 넘어 인간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연대
	공존(Coexistence)	다양한 신앙과 가치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우는 상호 이해의 공간
3H	치유(Healing)	내면의 상처, 사회의 분열을 회복하는 개인·공동체적 치유
	조화(Harmony)	전통과 현대, 신앙과 일상,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인간다움(Humanity)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보편적 윤리 기반

- 모두의 WYD 실현과 전북을 영성문화 국제거점 조성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함

[표 3-4] 목표 실현의 다섯 가지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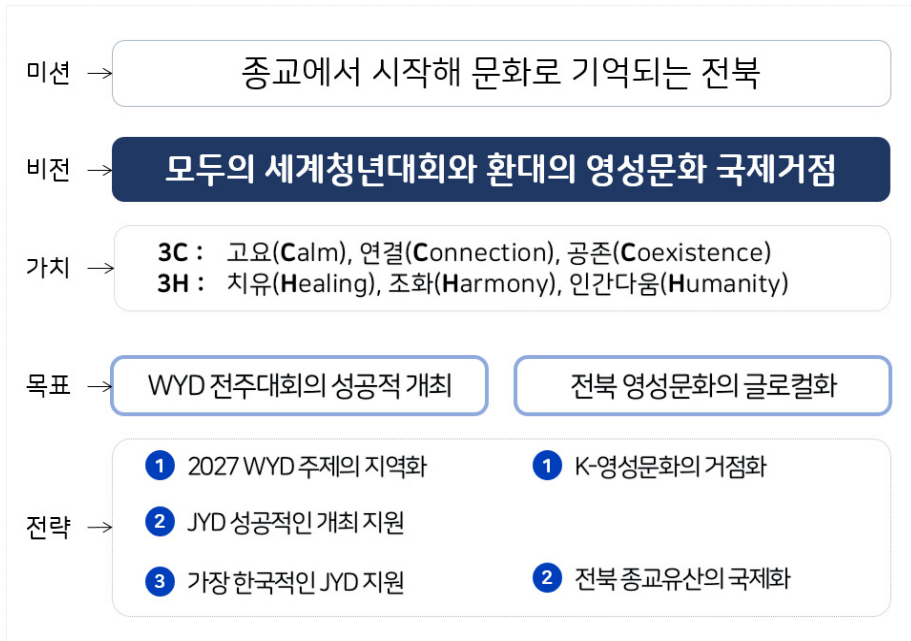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신앙의 장소'에서 '공존의 문화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성지·사찰·향교·기념관을 종교시설이 아니라 공공적 영성공간화 • 성지별 해설·체험 프로그램을 전도·선교 중심이 아니라 공존과 배움의 해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이벤트형 행사'에서 '상시적 학습·치유 체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YD 전주교구대회, 치유형 순례 주간 등 일시적 행사 이후에도 연중 운영되는 영성문화 아카데미·포럼·워크숍 개발 • 종교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을 연결한 상설 교육·연구·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관광소비'에서 '의미·학습 중심 체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체험·상업형 관광을 지양하고, 한옥·자연·성지를 연결한 짧고 깊은 체류형 여정(1~2박 명상·묵상 프로그램)으로 전환 • 주민 참여 생활문화 기반의 영성 체험을 강화, 지역경제 질적 성장 유도
'지역의 종교공간'에서 '국제연대의 플랫폼'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성지를 중심으로 전북 영성문화유산 루트를 개발 구축 • 서울 국제순례길·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연계, 'K-순례길 네트워크' 추진
'문화자원 보유지'에서 '융합형 영성도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AR·홀로그램을 활용해 순교자·성지의 역사적 장면 복원 등 추진 • 기술융합형 영성문화 체험콘텐츠 개발

■ (전략) 전주교구대회 성공개최 지원과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 ①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북 특성을 반영한 대회가 되도록 지원함
 - 첫째, 2027 서울 WYD 주제(용기와 청년)가 지역화되도록 전주교구대회의 사업을 구상·지원하고, WYD 정신이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융합되도록 노력함
 - 2027 서울 WYD 공식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전북도의 일상에 맞춰 '두려움의 시대, 희망을 향해 걷는 청년, 세상을 이기는 용기'(예시) 등과 같은 주제로 융합
 - 둘째,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로서 전주교구대회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대의 마음으로 환대의 대회가 되도록 행사를 지원함
 - 셋째, K-문화수도로서 가장 한국적인 WYD를 지향함
 - '한국적'이라는 말은 볼거리보다 시간·공간·관계의 미학에서 드러남. 전북은 K-문화수도이자 천주교 핵심 장소가 짧은 동선에 모여 있어 가장 한국적인 체험의 무대 기능

② 전주교구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영성문화를 특화하여 국제화를 추진함

- 첫째, 영성문화의 국내·외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지역특화 자원으로서 영성문화를 진흥하는 협력 및 지원 체계, 관련 사업을 발굴
- 둘째, 전북 천주교 유산의 국제화 및 종교화합의 국제적 배움터를 조성함
 - 현대적 영성 추구는 소속과 무관하게 배움·관찰·대화에 열린 경향을 보임. 전북은 천주교 성지와 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의 거점이 가까운 생활권에 있어 공존의 배움터가 되기 좋은 조건
- 셋째, 서울-충남-전북을 연계하는 K-순례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세계적으로 순례는 관광이 아닌 문화·평화·교육 프로젝트로 발전, 순례 3축을 K-순례 네트워크이자 K-영성(Spirituality)의 핵심 축으로 개발



[그림 3-1] WYD 지원 및 연계 전략 체계도

비전	모두의 세계청년대회와 환대의 영성문화 국제거점
가치	3C : 고요(Calm), 연결(Connection), 공존(Coexistence) 3H : 치유(Healing), 조화(Harmony), 인간다움(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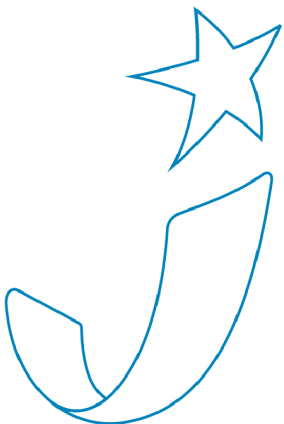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목표	전략	세부 사업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WYD 정신의 지역화	• WYD 주제를 반영한 '모두의 WYD' 슬로건 설정
		•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용기학교(가칭) 운영
		• 다문화·약자와 함께 만드는 환대 프로젝트
		• '온숨' 전북 버전 - 나무심기·생태 순례
		• WYD 유산화(Legacy) 프로젝트
	전주교구대회지원	• 전북 민관협의체 구성: 전북WYD지원위원회(가칭)
		• 전주교구대회 지원 전담 전북도 조직(TF팀) 운영
	가장 한국적인 전주 교구대회 지원	•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
		•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과 WYD 홍보
		• 세계청년 전북대회: Jeonju Youth Day
		• 예술가·시민·신도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 전주교구대회 주제, '일곱 개의 만남' 연계
		• 전북도만의 '환대 꾸러미'(welcome kit) 제작 지원
		• K-공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전주교구대회 연계 전통예술행사 및 '예술난장' 개최
		• 천주교 성지 활용 'K-미디어 파사드' 공연
		• 전주교구대회 대응 순례길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K-영성문화의 거점화	• 천주교 실감콘텐츠 개발
		• 종교유산 공연 제작 및 상설 공연
		• 순례길 명소화 사업(중·장기)
		• 전주교구대회 연계 순례 프로그램(안)
		• 다시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청년대회 기록관 조성
		• 전북청년축제 연계, 리턴 청년축제 개최
		• 전북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 종교간대화센터(가칭) 건립
		• 종교 및 영성문화 국제행사 개발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북 종교유산 국제화	•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 K-순례 네트워크 구축



제4장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1. WYD 주제의 지역화
2. 전주교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3. 가장 한국적인 전주교구대회 지원



제4장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1. WYD 주제의 지역화

가. 2027 서울 WYD 주제

■ 공식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 서울 WYD를 위해 선택한 주제 성구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가 제자에게 남긴 약속임
- WYD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 구절을 수난과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미 예수께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넘어선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설명함
- 여기에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부활 신앙에 뿌리내린 ‘희망과 용기’를 뜻하며, 오늘의 청년과 지역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용기를 선택하자”라고 정리될 수 있음
- 한국의 청년이 겪는 치열한 경쟁, 취업난, 사회 양극화, 분단의 상처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주제는 “포기·냉소 대신, 복음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선택하자”라는 초대의 의미를 담음

■ WYD의 기본 정신

- 만남과 교제
 - 전 세계 젊은이가 교황과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언어·신앙을 나누는 보편 교회 체험의 장
- 순례와 회심
 - 단순 축제가 아니라, 기도·성사·교리교육·십자가 순례를 통해 각자가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영적 여정
- 증언과 선교

- “너희도 나의 증인이다”(요 15,27)에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증언하는 선교자로 파견되는 과정
- 연대와 공동체
 -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와 서울 LOC는 WYD를 통해 청년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
- 생태와 책임: 지구를 위한 WYD
 - ‘온 세상에 생명의 숨을’ 온숨 캠페인·나무심기 프로젝트 등 환경·생태 책임을 핵심 주제로 삼음

나. 전주교구대회 연계 지역화 방향

■ WYD 주제를 반영한 ‘모두의 WYD’ 슬로건 설정

- 교회 안에서는 기도·교리·순례·청년 리더십으로, 도시와 도민에게는 공공예술·교육·생태·사회봉사로 풀어내어 행사 1주일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과 구조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향으로 WYD 주제의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추진함
- WYD 주제를 반영한 ‘모두의 WYD’ 슬로건을 설정함. 슬로건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비신도 일반 시민도 WYD 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표 4-1] WYD 주제 반영, ‘모두의 WYD’ 슬로건(예시)

슬로건 구분	세부 내용
청년의 용기, 전주의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청년)와 희망(도시·시민)을 짝지어서 청년이 용기를 낼 때, 도시 전체가 희망을 얻는다는 메시지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함께 걷는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를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도시로 해석 • WYD = 순례, 전주 = 함께 걷는 도시
세상을 이기는 용기, 함께 만드는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을 이겼다”를 직접 살리되, 이기는 주체를 예수→용기 있는 시민으로 전환 • “함께 만드는 전주”로 시민 참여·연대 강조, 시민 프로젝트 슬로건으로 사용

■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용기학교(가칭) 운영

- 서울 WYD가 이미 진행 중인 청년 리더십 연수·수퍼클래스 모델을 참고, 신도와 비

신도, 청년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생태·평화 감수성 교육 등의 ‘용기학교’를 개설함. 이 학교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실제 교구 사업으로 진행함

- 예를 들어, ‘두려움보다 희망’ 교실·특강 시리즈 등을 구상함. 초·중·고·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차시 분량의 토론형 수업안(불안·도전·용기·공동체)을 개발하고, 종교 수업이 없는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문·시민·평화교육 언어로 재구성함

■ 다문화·약자와 함께하는 현대 프로젝트

- 예를 들어, 현대의 식탁(이주민·노숙인·어르신과 함께하는 무료급식·공동식사), 현대의 집담회(청년+이주민+노인 등이 함께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다문화 동네 축제 등을 구상하여 전주교구와 함께 진행함

■ ‘온숨’ 전복 버전, 나무심기·생태 순례

- 서울 WYD는 「찬미받으소서」에 근거해 ‘온 세상에 생명의 숨을’ 온숨 캠페인과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서울시·산림청과 함께 진행 중임
- 예를 들어, 전북에서는 ‘온숨 전복’ 또는 ‘숨:林 전복’(가칭) 같은 이름으로 하천·들녘·도시숲을 잇는 도 단위 나무심기·하천 살리기, 순례길(숲정아·치명자산·한옥마을 인근 등)에 ‘생명의 나무길’ 조성 등을 추진함. 전주교구·전북도·시군·산림청이 같이 하는 민관·교회 협력 모델로 설계함

■ 프로젝트 결과물의 WYD 유산화 고려

- WYD 개최 도시는 대회 후에 청년센터·문화공간·순례길 같은 인프라, 즉 유산을 남김
- 시민이 참여하고, 예술가와 신자가 함께 한 ‘예술로 현대’의 상징공간과 작품, 공공프로젝트 결과물, 숲정이 순례방문자센터(가칭) 등을 WYD 이후에도 영성문화 및 순례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함
- 대회 유산으로서 전복을 방문한 세계 각국 청년의 글·그림·영상·프로젝트, 각 권역의 주요 사업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을 기록하고, 영상콘텐츠로 개발하여 남김

2. 전주교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가. 민관 협력 방안

1) 사례: 2014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 2014년 충남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AYD)는 교회가 준비한 사목 프로그램과 지역이 책임지는 행정·안전 인프라가 맞물린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임
- 대회를 총괄하는 지원조직은 광역(충청남도) 합동 협의체임
 - 충남도(도지사 주재)·대전교구(주최 측)·충남지방경찰청·충남도교육청·서산시·당진시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주요 의제는 성지·주변 정비, 순례객 안전, 교통대책, 행사 전후 활용방안 등
- 기초(시·군) 대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지자체별로 운영됨
 - 서산시: 7개 팀(기획홍보·의전안전·교통대책·의료지원·환경정비·행사지원 등) TF 54명 구성, 해미읍성·해미성지·교황 이동선 등 현장 합동 점검을 상시화
 - 천안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기관별 역할을 사전 확정. 시는 숙소 안전·위생, 의료·방역, 환경정비, 환영 분위기, 경찰은 방법·교통안전, 소방은 화재·구조 등 분담
 - 당진시(솔뫼성지 소재): 범주민지원협의회를 꾸리고, 해미면(서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지원 활동
- 준비 단계부터 충청남도와 주최 교구, 경찰·소방·교육청, 개최지 기초자치단체가 상시 협의 체계를 갖췄고, 이 거버넌스는 도 단위 총괄 조정 아래 시·군 및 유관 기관이 실행하는 다층 구조로 운영되었음

분야	지자체·유관기관 역할
안전·치안	(경찰)교통 통제·혼잡 경비·참석자 안전 총괄, (소방)현장 대응(화재·구조)체계 구축
의료·방역	(시·군)임시의료 지원·방역, 숙소·행사장 위생 관리
교통·동선	교황 이동선·행사장 접근로·주차장 확충, 셔틀·임시주차장계획 및 운영
시설·환경정비	성지·주변 경관·편의시설 정비, 기도 공간 조성, 도보순례길 정비
숙박·환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등 공공숙박·대규모 숙소와 연계, 환영 분위기 조성
주민참여·자원봉사	범주민지원협의회·주민자치위 주도 현장 지원, 학생·시민 자원봉사 모집·운영

■ 분야별 대회 대응 내용

- (행사 장소와 주변 인프라) 대회 전부터 보강이 이루어짐. 주요 성지와 역사 공간은 수용 능력과 비상 대피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접근로 정비·표지 개선·임시 편의시설 확충으로 순례자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함. 교계 대표단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대기·휴식 공간 마련, 전례와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 여건을 점검함
- (숙박과 환대) 본당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함. 대규모 숙박이 필요한 구간에는 공공 수련시설과 학교 기숙사를 사전에 지정해 배정했고, 홈스테이 가정에는 간단한 안전·위생 가이드와 환대 교육을 제공함. 다국어 안내와 생활 상담 창구를 시·군에 설치, 작은 불편도 신속히 해소되도록 한 점이 순례자 체감 만족도를 높임
- (교통) 행사장-숙소-본당을 잇는 셔틀버스를 순환 노선으로 운영하고, 시내버스 증편·임시 정류장 설치·우회 통제 계획을 미리 공지함. 역·터미널·성지 입구에는 다국어 표지와 임시 안내소를 배치했고, 보행 밀집 구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이동 자체가 순례의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함
- (안전과 보건) 행사장과 순례길 주요 지점마다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지역 병원과 이송 네트워크를 연결해 폭염과 탈진 같은 경증부터 응급상황까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함. 기상 악화나 과밀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사전 훈련으로 반복함
- (프로그램 설계) ‘분산 체험-집중 파견’의 흐름을 따름.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읍성 같은 상징적 공간을 축으로, 지역 곳곳에서 교리교육·전례·문화교류·자비 실천이 분산해 열리도록 하고, 대회 하이라이트로 공동 전례를 진행함. 도보순례 구간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포함해 이동 자체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이 되도록 함

■ 시사점: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환대

- 이 대회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주민이 주체가 된 환대임. 읍·면 단위의 주민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통 정리, 환경 정비, 길 안내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을 맡았고, 상인회·청년회·자원봉사단이 문화행사와 먹거리 준비에 힘을 보탬

- 이 대회와 민관 거버넌스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광역-기초-교구-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다층 협의체를 초기에 마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는 점임. 둘째, 주요 행사 현장의 인프라를 사전에 우선 정비했다는 점임. 셋째, 본당과 주민이 주도하는 환대 문화를 제도화해 순례자가 만나는 첫 얼굴을 지역이 책임졌다는 점임. 이를 통해 신앙의 감동과 도시의 품격이 함께 드러나는 대회를 만들었음

- 도 합동회의(도·교구·경찰·교육청·시군)→시군 TF→읍·면 범주민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 협의체 구조
- 도보순례길·주자장·기도공간 등 행사 경험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를 선제 정비
- 지역사회 주도 환대: 읍·면 범주민지원협의회로 주민 참여를 제도화, 축제 분위기·생활 지원 강화

2) WYD 매뉴얼의 주요 내용

■ 교구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조

- WYD는 교황청과 개최 교구의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지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문서에서는 교구대회를 주관하는 각 교구 관할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는지 구분해 설명함. 특히 교구대회는 본당과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공동체와의 만남, 현지 문화 체험이 핵심이므로 기초 지자체의 세밀한 행정·현장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함

■ 분야별 협력 방향 및 권고 사항

- 지자체 협력은 장소·교통·안전·의료 같은 ‘하드’ 인프라뿐 아니라, 비자·미디어·자원봉사·문화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 영역까지 포괄함
- (장소와 시설) 지자체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 공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사전에 확보·점검하고, 접근성·수용능력·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함
 - 크라쿠프 본대회의 사례처럼 도심 대형 광장과 외곽의 초대형 집전 공간을 병행할 때 동선·수용 규모·비상 대피 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관건
- (교통과 이동) 지자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행사장과 숙박지, 본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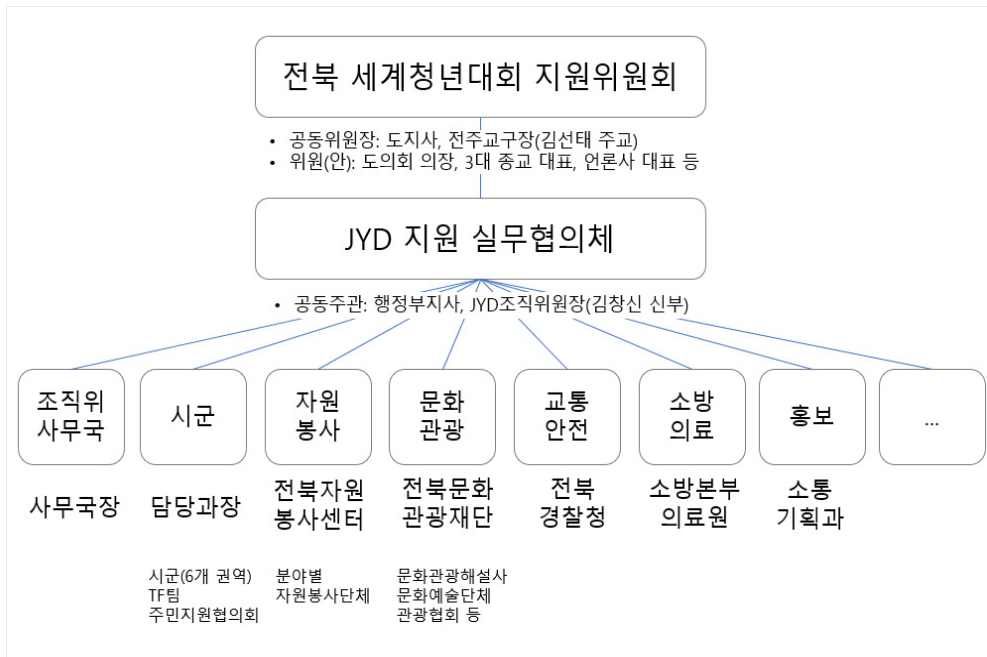
문화행사를 잇는 구간에 대중교통 증편·우회 운영을 적용하고, 임시 셔틀버스를 투입해 이동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다국어 표지판과 임시 안내데스크 설치, 보행자 밀집 구간의 통행 관리 역시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
- (안전과 치안) 별도의 합동체계가 필요함. 경찰·소방과의 합동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밀집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함
- 유럽에서 열린 WYD의 경우 기차역·상업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보안 인력과 일상적 순찰이 배치되었고, 국경 검색 강화 같은 범정부적 조치가 병행
- (의료와 보건) 행사장과 주요 거점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이송 네트워크를 마련함
-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를 고려해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의료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 사례처럼, 언어 지원과 안내 체계를 의료·보건 서비스 안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입국과 비자) 지자체만이 아닌 중앙정부·조직위원회와 함께 정비해야 할 분야임
- 참가자 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비자 절차, 초청·추천서 발급 안내, 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입국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자원봉사와 인적 자원) 본당·교구의 사목 체계와 지자체의 시민·청년 자원봉사 조직이 맞물려야 함. 다국어 안내, 도시 길잡이, 의료·안전 보조, 행사 운영 보조 등 역할을 세분화하고, 교육·배치·근무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함
- 문서에는 자원봉사 체계와 운영 방안이 별도 장으로 제시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교구대회 기간의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종교적 전통을 체험하는 성지순례·기도와 관광·오락·문화 활동 사이의 균형이 강조됨
- 참가자와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의미 있는 만남, 소그룹 나눔과 적정 자유시간 배정이 권고되며, 지자체는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자비 실천 프로그램을 이 원칙에 맞춰 공동 기획할 것을 권고
- (재정과 후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후원금·현물·기술 지원을 연계하고, 전통적으로 운영돼 온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부’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청년을 돕는 장치를 마련함

3) 전주교구대회 민관 협력 방안

■ 전북 민관협업체 구성

- 민관협력은 전주교구가 기획한 사목적 내용이 행정·안전 인프라와 자연스럽게 접합되도록 유도해야 함. 따라서 대회의 주체인 전주교구대회조직위원회와 전북도·시군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행정·안전·교통·숙박 같은 기반과 신앙·문화·자비를 나누는 내용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도지사와 주교(교구대회 위원장)가 공동 주재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전북도가 총괄 위원회를, 시·군이 현장 실행을 맡을 실무반을 담당하는 이원 구조로 운영함
 - 대회 주체인 전주교구가 조직위원회 담당, 전북도는 ‘대회 지원’ 조직 담당: 전북지원위원회가 예산·홍보·국제협력·안전 총괄, 시·군이 숙박·교통·환경 같은 생활 밀착 영역 담당
- 전주교구대회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영성문화 국제거점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계획함



[그림 4-1] 전북WYD지원위원회 조직도(안)

명칭	전북WYD지원위원회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기구)
공동 대표	전북도지사, 전주교구장
참여 분야	전북도, 전주교구청, 시군, 소방·안전·교통 관련 기관,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문화관광해설사 기관, 자원봉사단체 기관, 타 종교 종단, 언론사 등
설립 목적	① 전주교구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② 전북형 영성문화 거점 조성의 기반 마련
운영 기간	① (단기) 2026년 1월 ~ 2027년 12월 (WYD 사후 레거시 사업까지) ② (장기) 2028년 12월 ~ (전북의 영성문화 국제거점화 조직으로 전환)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부문별 협력 조정 • 안전·교통·숙박 등 공공 지원 체계 구축 • 영성문화·치유형 순례 관련 공동사업 기획

■ 전주교구대회 지원 전담 전북도 조직(TF팀) 운영

- 대규모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예가 적지 않음. 전주교구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 청년의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계 기관이 참여하는 전북WYD지원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행정 조직으로 전북도청 내 전주교구대회지원TF팀을 구성·운영함

[표 4-2] 전북의 크루즈 관련 TF 구성 현황 및 계획(사례)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 전담 TF를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 기존 TF팀과는 별도로 ...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 예정.”(www.ksppnews.com/2423740?utm_source=chatgpt.com)

- 2026년 상반기의 경우 5명 내외의 TF팀으로 구성하고, 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는 각 기관에서 전담 직원을 파견받아 10명 내외로 규모를 키워야 함

■ 분야별 민관 대응 내용

- (숙박·환대) 본당 홈스테이 중심이되, 증가하는 해외 청년 수요를 고려해 전북도·시군 공공숙소를 확보해야 함. 숙박 장소가 시군으로 분산되므로 권역별 확보가 필요함
 - 홈스테이 가정에는 다문화 환대 교육과 간단한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군에는 24시간 다국어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소한 생활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 2014년 충남 사례: 공공시설(수련원·체육관·학교 기숙사 등)을 임시 숙소로 지정하고 위생·소방 점검을 끝내 두고 피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권역별 공공숙소 예시) 전주교구 중 3지구(VOC)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남원 소재, 합숙실 90실 보유)을 공공숙소로 활용



[그림 4-2] 남원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 (교통·이동) WYD는 등록 참가자뿐 아니라 비등록 참가자도 많음. 등록 참가자의 경우 전주교구대회조직위에서 교통수단을 마련하므로 행정에서는 비등록 참가자가 전주교구대회 행사장 및 순례길, 주요 성지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계획을 세워야 함. 또한 전주에 집결하여 주요 순례지를 방문하는 3~4일 차의 경우, 권역별로 순례자를 분리하더라도 수천 명에 달하는 순례자가 각 거점을 방문하므로 이에 대한 이동 대책이 필요함
- (대중교통) 전주역, 버스터미널 등과 주요 행사장, 성지, 순례길 거점을 이동하는 전용 노선버스를 운영하거나, 전주교구대회와 연계되는 환승 체계가 필요
- (순례길 이동) 전주교구청 순교현양원이 진행하는 전주순례길 행사 참여자가 60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순례길 이동 시 도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더불어 위험 요소가 존재. 수천 명의 순례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동 계획 수립이 중요
- (안내) 주요 거점에 장소에 대한 설명과 순례길 이동에 대한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임시 안내소를 도심·터미널·거점 성지에 설치. 보행자 밀집 구간에는 안전 및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

[표 4-3] 서울 '성수동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안내사와 자원봉사자 등 관광안내사들이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 서울숲, 아틀리에 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통역 서비스, 지리 안내를 비롯해 관광코스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관광통역안내사 5명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능통한 자원봉사자 20명 모두 25명으로 구성”(www.seoul.com, 2024-07-04)

- (안전·보건) 경찰·소방·의료의 합동 대응을 원칙으로 함. 행사장과 순례길 주요 거점에

응급의료소를 두고, 도내 병원과 이송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 폭염·탈진·경증 부상에서 중증 응급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함








- (프로그램) 기도·전례·선교와 문화·관광·환대의 균형이 중요함. 교황청 지침은 청년이 신앙을 체험하는 시간과 지역 공동체와 어울리는 시간을 함께 설계하라고 권함
 - 전주교구대회의 주제인 ‘만남’에 한국 천주교 및 전북 천주교의 역사적 특징인 공소, 한문화수도로서의 전북의 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가장 한국적이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주교구대회 프로그램 기획
 - 신앙의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가 조화를 이룬 홈스테이, 본당, 지구, 교구별 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사회의 참여) 연대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특히 교구대회 미등록 방문자를 포함할 경우 2만 여명이 예상되는바, 전주교구청의 천주교 신자 봉사자 외에 일반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중요함
 - (분야별 단체 참여)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문화예술과 대회(본당, 교구, 지구)의 만남, 관광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구별 순례의 다양화,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불편함 없는 전주교구대회 운영 등이 요구
 - (자원봉사자 사례: 2016 폴란드 WYD) 관광 목적의 바르샤바 방문객을 위한 안내 봉사자 제도 운영.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영성적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전달과 안내(관광 자원 및 숙소, 행사 장소 및 관련 정보 등) 담당

[표 4-4] 전주교구대회의 필요 자원봉사자 유형과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천주교 신자 자원봉사자	전례와 성사, 신앙 나눔을 돕고 순례자의 영적·정서적 돌봄 담당
일반 자원봉사자	등록, 안내, 이동·안전·환경 관리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 실무 지원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	순례자가 지역을 깊이 이해하도록 각 지역의 역사·문화·신앙 유산 해설

- (필요 자원봉사자 규모) 전주교구대회의 예상 등록 참여자 4천 명, 미등록 참여자 2만여 명으로 예상. 이를 ‘2023 리스본 WYD’ 사례(등록 순례자 35만여 명, 전체 자원봉사자 25,000명)인 참여자 1명당 0.071명(7.1%)을 적용하고 여유 인력까지 고려. 전주교구대회 필요 자원봉사자는 2천여 명(안내, 진행 등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부터 문화관광해설, 문화예술공연 참여자까지 포함)으로 추정

[표 4-5] 전주교구대회의 폭염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예시

폭염 안전 사업(안)	주요 내용	
전주형 '시원 보행길' (Cooling Street)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이동하는 간선도로와 인도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 스마트 시원 안개길(Cooling Fog Gate): 전주한옥마을, 전동성당, 치명자산 성지 구간에 다국어 안내 방송과 안개 분사 기능이 결합된 '시원 안개길'을 연속 설치 - 행정안전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감 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 가능 	
얼음 생수 보급 '냉장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대형 야외 냉동고를 설치하고 순례객과 시민에게 무료 얼음 생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현장형 '천사 구급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응급 의료단(Emergency Medical Squ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 활동 시간을 고려해 '이동형 폭염 응급 센터'를 운영 - 주요 행사장 내에 제빙기와 냉방 기기를 갖춘 안전 교육장을 상시 개방 	
이동형 '얼음 방 쉼터' (Cooling Container) 스테이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식 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행사장 등에 이동식 냉방 기지를 배치 • 냉동 탑차 기반 '얼음 역'(Ice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탑차를 개조하여 내부를 영하의 기온으로 유지, 열사병 전조 증상이자 즉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운영 • 전기버스 활용 '무더위 쉼터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의 수소·전기 시내버스를 행사장 주변에 상시 공회전(냉방) 상태로 배치하여 누구나 들어가 쉴 수 있는 이동식 라운지로 활용 	 
폭염 안전키트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개개인에게 공공 차원에서 폭염 방어 장비를 지급 • 냉감 스카프 및 아이스 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교구 로고와 대회 엠블럼이 새겨진 고성능 냉감 스카프를 웰컴 키트에 포함 	
전주 '우물가' (Well-site) 복원 및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의 역사성과 폭염 대비를 결합한 문화적 인프라 사업 • 스마트 음수대 '전주 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마을과 주요 성지 인근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물(음수대)을 설치하고, 고도로 정제된 냉수를 24시간 공급 • 친환경 종이팩 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 브랜드인 '전주음음' 등을 종이팩 형태로 대량 생산하여 주요 거점마다 '무인 얼음 상자' 형태로 배치 	

3. 가장 한국적인 전주교구대회 지원

가. 환대의 문화 확산

1) 환대의 방향: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

■ 전북 전체를 하나의 큰 환대 무대로 설정

-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 전북 전체가 하나의 큰 환대 무대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WYD를 맞이하는 전북도민의 환대 문화 형성, △다른 교구·타 개최지와 비교해도 기억에 남는 예술·문화 환대도시 전북이미지 구축, △청년·예술가·신자·비신자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축제를 목표로 함
- (사례) 유럽문화수도(ECOC) 사업에서는 시민·예술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체를 예술 프로젝트로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핵심 주체로 세우는 방식이 일반적임

■ 일상적 환대와 예술적 표현을 결합, '함께 걷는 동료'로 맞이하기

- WYD 참가 청년을 관광객이 아닌 함께 순례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주민·청년·예술가도 WYD에 초대받은 손님이자 주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강조함
- 미소·인사·친절한 안내 같은 생활 환대 위에, 전북만의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이미지로 참가자를 맞이하고, 벽화, 거리공연, 집 앞 환대 현수막·스티커, 음악 등 예술적 장치를 엮어 환대의 기억을 극대화함

• 태국의 '미소의 나라' (Land of Smiles)

- 태국인은 친절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유명하며,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로 마음을 표현하고 인사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음
- 태국 관광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며, 외국인 방문객의 85% 이상이 태국인의 친절한 태도와 미소를 높이 평가



- 전주교구대회 참가자가 순례하는 곳곳에 환대하는 예술적 표현을 배치함

■ 전주교구대회 예술 환대 추진단(가칭) 및 예술 환대 봉사단 등 운영

- 전주교구대회조직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주요 문화시설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예술환대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술 환대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함
- 가칭 예술 환대 봉사단(HospitART Youth)을 운영함. 유럽문화수도처럼 자원봉사자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교육·인증·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함
- 도민예술 공모로 ‘우리 마을 예술 환대 프로젝트’ 등을 기획함. 선정된 팀에게 소액의 프로그램 기획비를 지원하고, 전주교구대회 기간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함

■ 예술 환대 기록 프로젝트 추진

- 전북 청년 크리에이터·영상팀이 교구대회 준비 과정, 도민·순례자의 환대 이야기, 전주교구대회 주요 행사, 순례, 홈스테이 등을 기록하여 전주교구대회 후 영상을 제작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단편 다큐멘터리·사진전으로 재구성함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정체성(예술·환대·신앙)을 남기는 유산으로 축적

2) 예비 행사 및 WYD 홍보


■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과 WYD 홍보¹⁴⁾

- 전주교구대회를 위한 첫 예비행사이면서, WYD를 전북도민에게 알리는 ‘Youth Festival’을 조직위 주최로 2026년 상반기에 개최함
- 성소 주일과 WYD 홍보 및 체험을 목적으로 추진. 성소 주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을 비롯, 청년 이상 모두를 포괄하는 WYD 홍보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함
-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의 첫 번째 행사이자, WYD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이해를 높이는 목적에서 지역 예술단체·예술인의 행사 참여를 추진함

14) 전주교구대회조직위원회. (2025.7.24). 2027 WYD 전주교구대회 준비현황 자료 참조

- '전북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연계, 길놀이 및 사전 공연 진행
-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사업 연계, 밴드공연, 전통예술공연, 퍼포먼스 공연 등 진행

[표 4-6] 서울시의 '유스 페스티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 사 명: 유스페스티벌 '희희희' ○ 행사목적: 2027 WYD 홍보하고 그 영성을 확산한다 ○ 행사일시: 2025년 5월 10일(토)~11일(일) ○ 행사장소: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일대 ○ 참여인원: 15,000명(등록참가자 3,981명) ○ 봉사자수: 102명 ○ 프로그램: 성소주일 미사, 수도자와의 수다, 가톨릭 청년작가 기획전, OSEYO 콘서트, 사랑 부스존(44개), 토크 콘서트 <나, 너, 우리를 노래하다> 등 	
--	--

■ 세계청년 전북대회: JYD-pre DID(Jeonju Youth Day)

- 2027년 전주교구대회 일정에 맞춘 예비 행사를 진행함. 2027년 행사처럼, 홈스테이, 주요 장소별 프로그램(성지순례, 문화 탐방, 미사, 축제마당 등)을 운영함
- 세계청년 전북대회(JYD)의 개요
 - (사업기간) 2027년 전주교구대회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 : 2026년 8월 초, 2박 3일
 - (사업지역) 치명자산 평화의전당 일대 및 전북도 일원 (권역별 순례)
 - (참여대상) 청소년 및 청년 (만16~39세), 도내 거주 유학생 및 다른 지역 거주 유학생, 도내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주민 등
- '세계청년 전북대회'(Jeonju Youth Day)의 주요 내용
 - (홈스테이 체험) 외국인 참가자 우선적 홈스테이 가정 운영
 - (문화공연 및 교류 행사) 도내 예술인 초청 공연 및 한국문화 체험 활동
 - (전북도 문화유산 탐방) 권역 내 지자체별 명소 탐방, 무형 문화 체험 활동 등
- 2027년 전주교구대회 대비, 도 예술인 지원사업 활용, '예술난장' 운영 등을 검토함
 -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프로그램 연계 추진: 전북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등

■ 예술가·시민·신도가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 모두의 WYD,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를 위한 대표 사업으로 상징공간을 설정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함
- (방향 설정) 2027 서울 WYD의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를 활용하여 용기(청년, 이주민, 약자 포함 모든 이의 용기), 연대(종교를 넘어 함께 걷는 시민), 환대(전주에 오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첫인사), 기억(순교·역사, 그 위에 서는 오늘의 청년) 등 키워드를 공공미술·참여형 작품으로 풀어냄
- (상징 공간) 예술 프로젝트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전주역 ‘첫 마중길’, 또는 중요한 성지이면서 전주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전통성당’을 WYD 환대의 상징 공간으로 설정하고, 시민·예술가가 참여하는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함
 - 전북·전주로 들어오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가 ‘WYD 주제’를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길이면서, 동시에 시민에게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신앙·희망·연대를 스쳐 지나가는 길”로 포지셔닝
- (프로젝트 예시) 전주역 첫 마중길, 또는 전통성당을 ‘도민과 세계 청년이 함께 걷는 용기와 환대의 공공예술 순례길’로 만드는 예술 프로젝트로 구상함

[표 4-기] 시민참여,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시 (전주, 첫 마중길)

세부 프로젝트명	컨셉트	세부 내용
용기의 길 - 바닥에 그리는 복음	‘용기의 길’을 상징하는 빛·문양의 산책로를 일부 공간에 만드는 프로젝트 걷는 것 자체가 기도이자 퍼포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 WYD 로고처럼 붓질 느낌의 선(붉은 선=순교, 푸른 선=청년)을 바닥 패턴으로 깔기 - 횡단보도·보행로 일부를 물결치는 WYD 로고처럼 보이게 디자인 • 인터랙티브 조명 설치 - LED 타일·조명 라인 설치. 일정 간격마다 다국어 로 “두려워하지 마”, “함께 걷자”, “평화” 같은 짧은 단어들이 은은하게 나타나도록 구상 • 비신자도 거부감 없는 희망·용기 언어 사용 - “희망을 향해 걷는 청년, 세상을 이기는 용기” 등
청년의 얼굴, 세계의 얼굴 - 시민 참여 초상화, 미디어아트	전북 및 세계 청년의 얼굴을 한데 모아 희망의 스크린 만드는 프로젝트 특정 신자 행사로 보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미디어월 또는 LED 스크린 - 첫 마중길 광장 쪽 벽면이나 구조물에 설치. 시민과 청년이 찍은 얼굴 사진, 손 사진, 실루엣, 그림 등을 업로드하면 실제로 화면에서 십자가·파도·나무 모양의 모자이크로 구성

세부 프로젝트명	컨셉트	세부 내용
	얇게, 전복의 모든 청년과 시민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세우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일·금속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그린 작은 그림·문구를 세라믹 타일·금속판으로 제작해 “청년의 얼굴 벽”을 만드는 방식 이야기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옆에 “내가 이 시대에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을 짧게 적는 코너 -종교를 넘어서, 청년·노인·이주민·장애인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용기의 아카이브’로 쌓기
WYD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시민·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2027년까지 매년 1회 WYD 아트나잇 -첫 마중길에서 공연·미디어파사드·퍼포먼스 완공 후에는 WYD 교구대회 기간에 맞춰 특별 조명·행사 진행

[표 4-8] 종교 관련 및 시민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JR의 「Inside Out Project」 - 세계 최대 참여형 초상 공공미술 -세계적인 참여형 포트리이트 프로젝트. 동네 주민·청년들의 흑백 얼굴 사진을 크게 인화해 건물 외벽·광장·계단 등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진짜 주인공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진을 제출하면, 인화·설치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오픈 플랫폼 형태. 이미 전 세계 수백 도시에서 “우리 동네 버전 Inside Out”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ions of the Cross(국제 프로젝트: 런던·뉴욕·워싱턴) -예수님 수난 여정을 따라가는 도시 곳곳의 미술·건축·기념물과 연결한 도시 순례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피티 Stations of the Cross (텍사스 루터란 대학) -루터란대학 캠퍼스 전체에 그래피티 스타일의 십자가의 길 11처를 설치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NYC AR Memorials - 노예제 역사 AR 추모 전시 -뉴욕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노예제 관련 장소에 증강현실(AR) 작품을 겹쳐 놓은 전시

나. 전북특화 프로그램 구상

1) 전주교구대회 주제: 만남

■ 전주교구대회 주제, ‘일곱 개의 만남’ 연계

- 전주교구대회 주제 ‘만남’에는 모두 일곱 개의 만남이 있음. 이 중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순교자와의 만남(순교자의 땅), 가정 신앙공동체와의 만남(홈스테이), 한국전통문화와의 만남,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에 대해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함
- 첫째, 한국 최초의 순교지인 전주교구와 순교의 역사(순교자와의 만남),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홈스테이), K-문화의 본향 전북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전북의 산·들·강·바다)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 QR을 활용한 웹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제공함
 - (예시)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전주교구의 순교 역사, 한국의 예절(간단한 인사말 등)과 의식주 문화(좌식문화와 온돌, 음식 등), 전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10선 또는 꼭 가야하는 명소와 꼭 먹어야 하는 ‘음식 10’ 등을 다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로 제작
- 둘째, WYD의 경우 대회 개최 지역의 저소득층 등을 찾아 봉사하도록 권유하므로, 이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되 주변의 명소와 연계하여 의미와 재미를 함께 누리도록 계획함. ‘가난 구경 금지, 동행·연대 중심’, ‘지역 조직과의 파트너십’, ‘절반은 봉사, 절반은 순례·학습·성찰’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춰 권역별 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함

[표 4-9] 오전 봉사, 오후 순례(관광) 일정의 프로그램(예시)

구분	대상 지역과 협력기관	주변 명소
도시형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복·송암 새들마을(전주 덕진·완산 일대) -빈곤지역, 열악한 주거환경의 저소득층 지역 대상으로 인프라·주택·휴먼케어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복예술공장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대표 사례 • 서학동예술마을과 전주한옥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원도심(월명동·영화동 일대) -구도심 쇠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옥산면 외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근대미술관, 동국사, 일본식 가옥거리, 영화의 거리 등 일제 수탈과 근대역사가 남아 있는 거리
농촌형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군 팔덕면 백암마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천산군립공원(트레킹·구름다리·단풍), 순창고추장마을, 전통장 체험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평마을(익산시 망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지정돼 주거·생활 인프라를 개선 중인 농촌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왕궁리유적·미륵사지 등, 백제 후기 왕궁·사찰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셋째, 순례자와의 만남과 관련하여 WYD에 참여한 순례자만이 아니라 전북도민과의 만남이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 (예시) 홈스테이 지역, 주요 행사 장소, 순례 거점 등에서 버스킹 등 예술 행사 진행
- 넷째, 전북은 오랜 기간 민족종교의 발원지이자, 자생적인 천주교가 성장한 지역이면서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한 지역임. 전주교구대회 만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북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웃 종교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함
 - 이웃 종교를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웃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순례 과정에 이웃 종교를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 (예시) 전북도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활용

[표 4-10] 아름다운 순례길 코스와 관련 사업 사례



■ 전북도만의 ‘환대 꾸러미’(Welcome Kit) 제작 지원

- 한여름 전주·전북에서 세계 청년 5,000명이 ‘순례+홈스테이+K-팝+한국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만드는, ‘실용적인데 예쁜’ 환대 꾸러미(Welcome Kit)를 제작 지원함
- 대회 기간이 한여름으로 기온이 높고 습하다는 기후의 특성,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K-문화 본향의 특성, 한국 가정집에서 홈스테이하므로 한국 의식주 문화를 체험한다는 경험의 특성, 상당한 거리를 순례한다는 활동의 특성, K-POP을 비롯한 최근 경향에 민감한 청년이라는 대상의 특성, 친환경적이면서 공공적이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환대 꾸러미에 포함될 물품을 구성함

[표 4-11] 환대꾸러미(웰컴키트) 구성 예시

구분	주요 내용
기후 특성	• 부채의 대표 도시 전주스러운 문양의 합죽선 또는 단선
K-문화 본향 특성	• 순례길에 먹을 수 있는 한국 전통 간식과 음료(티백): 로컬 커피 브랜드 포함
홈스테이 특성	• 친환경 나무 수저 세트(젓가락 문화 체험), 한방 족욕제, 친환경 칫솔 세트 등
순례 활동 특성	• 전북 순례 여권 (Pilgrim Passport), 순례 지도, 방수용 바우치 등
트렌드 민감 청년	• 트렌드 반영 키링 세트, K-POP 포토카드, 한국적 디자인의 에코백 등

[표 4-12] 전통문화를 활용한 웰컴키트 사례

지역	사례명 / 주체	대상	주요 구성품(요약)	전통문화 활용 포인트
대한민국	K-Friends 웰컴키트 (한국관광공사)	세계 K-컬처 온라인 서포터즈	전통문양 마스크, 전통 패턴 파우치, 한글 패턴 리버서블 에코백, 마스크 스트랩 등	한국 문양·자수·한글을 현대 감성 굿즈(마스크·가방)에 입혀 “매일 쓰는 전통문화” 구현
대한민국 수원	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 웰컴키트	수원화성문화제 외국인 관람객	정조대왕(LEGO) 키링, 전통 한과 (약과·유과), 수원화성·행궁 포토카드/노트, 다국어 리플릿·지도, 7보물 미션맵	정조대왕·수원화성(세계유산)을 캐릭터와 미션게임으로 풀어, 전통 과자+역사 체험을 묶은 패키지
포르투갈 리스본	WYD Lisbon 2023 순례자 키트	세계 청년 순례자	WYD 로고 배낭, 재사용 물병, 티셔츠, 모자, 랜야드, 목주 등	가톨릭 신앙 상징물(목주·십자가), 재사용 물병으로 환경가치 결합 신앙+가치형 키트
태국 남부	Happy Paradise Welcome Kit & Souvenirs	푸켓 샌드박스 입국 국제 관광객	관광대사 배지, 여행북, 마노리비즈 키체인, 휴대폰 가방, 바틱 노트·바지·매트·마스크, 고무나무 모양 홀더	태국 남부 전통공예(마노라 춤, 바틱, 판다누스, 고무나무)를 실용 굿즈로 만들어 관광수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
싱가포르	SG60	SG60 기념 숙박	전통 간식, 싱가포르 옛 시절을	옛날 간식·추억의 소품 넣어 국가

지역	사례명 / 주체	대상	주요 구성품(요약)	전통문화 활용 포인트
	Welcome Kit	패키지 이용객	모티프로 한 기념품, 조식·바우처 등 제공	60주년 역사·정체성 체험하게 하는 복고형 웰컴키트
룩셈부르크	Cultural Welcome Kit	신규 이민자·난민·유학생 등	문화시설·공연·축제 정보, 문화체험 관련 안내/권장 프로그램 등 (정책형 패키지)	단순 생활안내 넘어, 박물관·공연·축제 등 문화 적극 경험 목적, “문화 통합”용 키트
영국	Cultural Exchange Welcome Kit	국제학생·오페어 (Au pair) 등	현지 스낵, 지역 관습·예절 가이드북, 교통지도, 재사용 텀블러·수저세트, 포켓 번역 가이드 등	국가·랜드마크 굿즈보다는 음식·예절·언어 같은 일상문화 중심으로, “생활 속 영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구성



- 환대꾸러미 제작·지원 사업비는 1인당 2만원 내외, 전체 100백만 원(5,000명 제공) 수준으로 계획함. 다만, 개인에게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적 예산으로 만들어진 환대 꾸러미를 받는 이들에게 전복도와 관련한 공적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관광공사의 K-프렌즈 사업처럼, 환대 꾸러미를 받는 참가자를 'JB-프렌즈'(가칭)로 임명하고, 한국을 떠난 뒤 민간 외교관으로서 전복을 홍보하도록 역할을 부여함
 - JB-프렌즈 커뮤니티 구축, 환대 꾸러미 제공 시 JB-프렌즈 가입신청서 작성, 대회 이후 전복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교관 활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후 전복 재방문 시 혜택 제공

[표 4-13] 한국관광공사의 K-프렌즈(K-Friends) 사업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서포터즈 커뮤니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전파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 수행
-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세계에 K-컬처 팬덤을 구축
- 대상: 소셜 미디어(SNS) 팔로워 수가 100명 이상인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 주요 활동
 -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SNS 채널에 공유
 - 한국 여행, K-팝드라마, 한국 음식, 뷰티 등 한국 관련 주제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직접 제작 공유
 - ‘모이자마켓’과 같은 커뮤니티 내 신규 서비스를 통해 한국 관련 상품을 체험할 기회
- 혜택: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급별로 한국관광공사 기념품, 관광상품 할인, 관광지 무료입장 등

2) K-공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공소의 중요성: 역사·공간·의례의 세 갈래

- ‘공소’는 평신도 주도성의 뿌리임. 한국 천주교는 18세기 말 선교사 부재 상태에서 평신도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 시작되었고, 이후 박해기·순회사목 체제에서 공소가 실질적 신앙 기반이 되었음. 공소는 주임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구역 공동체로,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공소예절(성찬 없는 미사 형식)이 자리 잡았음
- 초기 공소는 공간문화 측면에서 한국형 특성을 보임. 성당 상당수가 한옥 구조(온돌·마루·툇마루)에 맞춰 지어졌음. 대표적으로 완주 되재성당은 국내 최초 한옥 성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툇마루 좌·우에 남녀 분리 출입구가 있는 독특한 배치를 보임. 진안 어은 공소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공소 건축의 유형을 잘 보여줌

[표 4-14] 전북도 내 한국형 공소 현황

되재성당(완주, 1895)	국내 최초 한옥성당으로 알려짐. 남녀 분리 출입구 배치. 한국형 예배공간의 성별 공간문화 흔적을 보여줌
어은 공소(진안, 1910)	국가등록문화재 제28호로 지정. 공소건축의 보존가치를 공식 인정받음
신성 공소(정읍)	1900년대 초 전통 한옥식 성당·사제관·사랑채 건축 내력이 전함

- 농산어촌 그물망 사목의 핵심인 공소는 산간·농촌에 특히 많아 전체의 80% 이상이 농촌에 위치해 왔고, 계절별 순회 사목이 공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도시-농촌 격차를 메우는 생활밀착형 사목 체계로 기능하였음
- 한국 고유의 연도(위령기도) 전승은 공소문화와 함께 뿌리내린 의례로, 오늘도 지역사회가 함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공동체 신앙 실천을 가능하게 함
 - 연도(위령기도)와 같은 공동체 의례는 공소의 교육 자원. 지역 어른들이 전승한 연도 가락·문안 관습은 청년·가정 사목의 세대교류 콘텐츠로 확장 가능

■ WYD와 공소의 관련성

- WYD의 교구대회는 현지 교회의 삶을 체험하는 시간임. 공소는 한옥·의례·농촌 환대가 어우러진 전주교구대회 고유의 신앙생활을 제공하므로 교구대회 취지에 부합됨. 또

한 공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순례 동선을 지구별로 분산하고, 본당·가정체류와 결합해 안전·숙박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음

- 전주는 순교기억(전동성당 등)·초기 교우촌(나바위 등)·공소예절(연도)까지 초기 천주교 역사에 관한 기억의 서사가 풍부함. 교황 권고처럼, 청년이 뿌리(기억)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경험을 하도록 전주교구대회를 설계할 수 있음

■ 비전: “작은 교회, 큰 만남”

- 전주교구대회 틀(주제·일정·조직·숙소·권역)을 유지하면서 공소를 전주교구대회 전반의 콘텐츠 구조로 녹여낸 ‘작은 교회, 큰 만남-공소에서의 일곱 가지 만남’을 설정함
 - 조직위가 제시한 주제 만남과 일곱 개의 만남(순례자·순교신앙·보편교회·가정공동체·한국문화·자연과 환경·예수 그리스도)을 유지하되, 이를 공소의 3요소(신앙공동체-공간-행위)와 역사 3단계(자발적 수용기-박해기-신앙 자유화기)로 체계화해 POC-VOC-교구 본행사 과정에 일관된 이야기와 체험을 제공
 - 만남을 대회의 영성 키워드로 삼고, 프로그램 전반은 공소의 사람-공간-행위를 통해 구현. 핵심 서사는 자발적 수용-박해-자유화의 신앙 여정을, 전주교구 대표 공소·성지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재현
- 만남×공소×한국(K)문화를 축으로 공소 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함. 구체적으로 만남의 7축을 공소의 3요소로 체화하고, 그 경험을 전통문화·예술 무대와 도심·농산어촌 현장으로 확장하여 전주교구대회와 홈페이지를 ‘살아있는 공소’로 운영함

- (사업 예시) 지구별 ‘공소의 날’ 추진
 - 각 지구가 대표 공소 1~2곳을 선정, 공소 세계유산 구조(공동체·건축물·행위) 접목
 - ① 공간: 한옥 공소·성당 해설(마루·툇마루 구조 체험, 남녀 분리 출입의 역사 등)
 - ② 공동체: 공소회장·장년회·자모회와의 대화(평신도 사목 체험)
 - ③ 행위: 한국식 연도·시노달 대화모임(장례·위령 문화 이해, 기억과 젊음의 연결) 세션 운영

■ K-GONGSO 포럼 개최와 홍보

- WYD 참가자와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함.
 - 한국의 공소는 초기 천주교 역사를 보여주는 신앙공동체-공간·행위의 복합체로서, 가장 한국적인 K-공소를 다국어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공개 포럼으로 운영
- K-공소에 대한 역사성과 신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작성·제공함

3) K-문화 및 지역 예술 연계

■ 전주교구대회 연계 전통예술행사 개최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예술 ‘농악’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전북문화관광재단 지원)를 전주교구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함
- 5개 시군(2024년 전주익산남원진안고창)에서 진행하는 「노상놀이야」를 VOC와 연계 진행하고, 전주교구로 모이는 일정에는 5개 시군 「노상놀이야」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퍼레이드(약 200명 규모)를 진행

[표 4-15]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례



-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 공연을 전주교구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함. 또한 전북독립국악원 및 전주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등을 전주교구대회 일정에 맞춰 특별 공연을 개최함

[표 4-16] 국립무형유산원의 2025년 7~8월 공연 현황



■ 전주교구대회 장소별 ‘예술난장’ 개최

- 전주 예술난장을 활용, 전주교구대회 주요 거점에 ‘전주교구대회 거리예술 난장’(가칭)을 개최함

- (전주 예술난장)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열리는 전주시·전주문화재단 주관 거리예술 축제이고, 거리공연·퍼포먼스·행위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섞인 자유로운 거리예술 난장 형태

- ‘뛰어라 청년, 울려라 복음, 전주교구대회 거리예술 난장’ 슬로건으로 기본 구조를 설계함. VOC 예술난장은 동네형 길거리 축제, 치명자산 예술난장은 조용한 영성·평화 예술축제, 전주실내체육관 예술난장은 전 세계 청년이 섞이는 대형 거리예술·K-컬처 페스티벌로 차별화하여 개최함

-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사업을 활용하여 버스킹, 청년밴드, 미디어아트, 거리극 등 자유 공연을 추진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무대 제작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특화형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병행

[표 4-17] 전주교구대회 거리예술 난장 공통 컨셉: VOC 중심

공간 구성	주요 내용
스테이지 존 - 거리 공연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청년의 K-POP·전통춤 커버, 청년밴드·찬양팀·비트박스·뮤지컬 등 -마임, 저글링, 거리극(소규모 연극) 등
참여예술 존 - 체험·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을 참여자로 만드는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한글 이름 써주기) -각국 언어로 ‘평화’, ‘희망’ 적어서 걸어두는 프래그(가·천) 만들기
로컬컬처 존 - 전북·본당·VOC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전통공예·음식 소개(사진·작품 전시, 시식은 최소한으로) • 각 VOC·본당 청년이 준비한 마을소개, 사목 소개 부스 • 성소·수도회·해외선교 홍보 부스(예술+소명 연결)
기도·쉼 존 - 조용한 영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가성화 설치, 잔잔한 연주 BGM • 기도 카드 작성, 묵상문 구절 붙이기 • 성체조배·고해성사 장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더 좋음

- 모든 사람이 모이는 전주실내체육관 예술난장은 ‘대형 거리예술 난장’으로 구상함. 전 세계 청년이 한데 섞이는 최대 규모 예술난장으로 설정함

[표 4-18] 전주교구대회 메인 행사 거리예술 난장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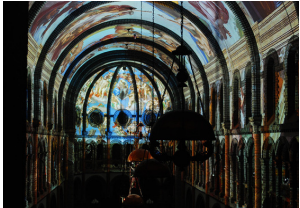
항목	주요 내용
장소	전주실내체육관 앞 광장 및 진입 보행로 일대
시기	교구대회 미사 전·후 2~3시간
대상	교구대회 참가 청년, 해외 순례자, 지역 청년·시민
목표	① 미사 전·후 대기시간을 축제·교류의 시간으로 전환 ② 세계 청년·전북 청년 예술이 섞이는 길 위의 무대구현 ③ K-컬처와 신앙, 환경·연대를 함께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 조성
컨셉트	거리예술 + 참여형 아트 + 기도공간을 한데 묶은 난장

공간 구성	위치(예시)	주요 내용
메인 스트리트 스테이지 (버스킹 벨트)	서틀버스 하차 지점 → 체육관 정문까지 주요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m 간격으로 소형 버스킹존 표시 ○ 한국풍 공연: 사물놀이,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 ○ 해외 청년 공연: 각국 전통 춤·악기, 노래 ○ 마임·저글링·워킹 서커스 등 거리예술 위주
월드 청년 밴드 스테이지	체육관 앞 광장 한쪽, 고정 무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드/찬양/댄스 중심 20~30분 단위 공연 ○ K-팝 커버, 월드뮤직, 복음성가, 합창 등 ○ 마지막 타임: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
참여형 아트존(1): 기도·평화의 벽	광장 주변 펜스 이동식 패널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패널·천에 기도문·평화 메시지를 각국 언어로 작성 ○ “나의 나라, 나의 교구, 가난한 이웃을 위한 기도” 적기 ○ 사진 찍고 SNS 공유 유도
참여형 아트존(2): 국가·십자가 페인팅	체육관 측면 천막 (테이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나무 십자가부채엽서에 국가·십자가 그림 그리기 ○ 서로의 나라를 그려주며 자연스러운 교류 유도
참여형 아트존(3): 업사이클 아트	광장 구석동선 밖 안전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뚜껑·종이컵 등으로 십자가·지구 모형 만들기 ○ “Laudato Si”, 지구를 위한 기도”와 연결
로컬 아티스트 & 정보존	광장 주변 부스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청년 예술가(팔복예술공장 등) 작품·공연 소개 ○ 교구·VOC 프로그램, 사회사목·환경사목 정보 안내 ○ 간단 굿즈(엽서, 스티커 등) 판매나눔
기도·쉼 존(간이)	체육관 입구 인근 조용한 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십자가·성화 설치, 잔잔한 음악 ○ 앉아서 기도·묵상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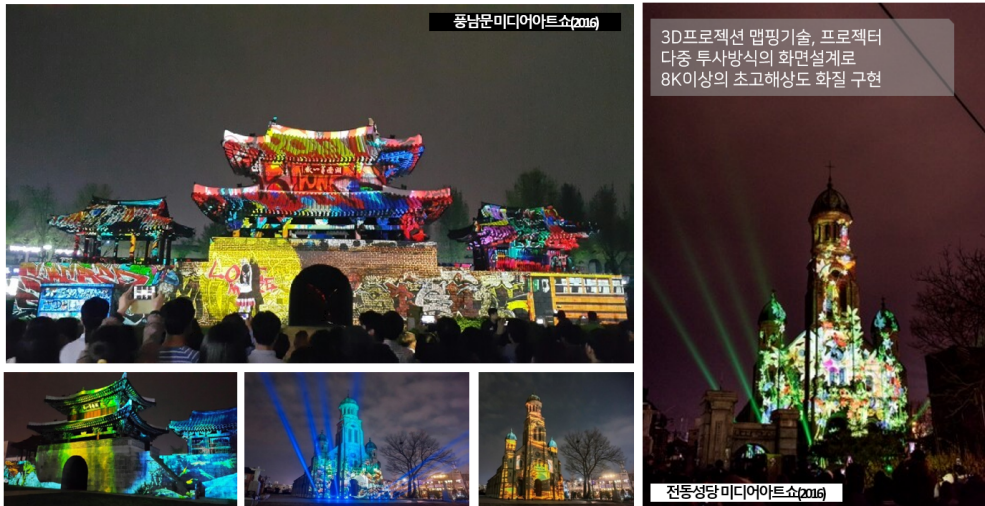
■ 천주교 성지 활용 ‘K-미디어 파사드’ 공연

- 2019년에 초연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는 진행되지 못한 전동성당 내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 프로젝트(빛의 성당 FIAT LUX)를 재추진함.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외 전주교구의 순교 역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함

[표 4-19] ‘빛의 성당 FIAT LUX’, (주)씨티데이즈의 전주전동성당 미디어아트 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전동성당 건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성당 본당 내부가 일반에 문화 공간으로 개방 ○ 내용: 전동성당의 아치형 천장과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 화려한 빛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아트 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제작 ○ 주관: (주)씨티데이즈와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성당 공동 주관 	
--	--

- 전동성당 본당 내부 외, 천주교 주요 성지를 대상으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교구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주교구대회 이후에는 순례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함



[그림 4-3] 풍남문, 전동성당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사례

■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대응

- 국가유산청이 진행하는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에 대응하여 2027년 전북 내 천주교 성지(국가유산 등록)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를 진행함
- 미디어아트 대상 성지(국가유산)를 선정하고, 관할 지자체와 전주교구,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에 대응, 전주교구대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사업 내용) 국가유산의 가치와 역사성을 소재로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감동적인 미디어아트를 제작·운영

[표 4-20]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 개요

사업 대상	○ 실외 실경을 배경으로 미디어아트가 가능한 세계유산 또는 국가유산
신청 주체	○ 광역 또는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취합 제출 * 기초 자치단체 직접 신청 불가
신청 자격	○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공모 지원 불가 - 3년 연속 지원 받은 지자체 :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다다음 연도 지원 가능
사업비	○ 국비, 지방비, 수행단체 자부담으로 구분
지원 예산	○ 지자체 신청 규모, 공모심사 평가등급, 재정당국 및 국회 심의 결과 반영, 규모 결정 - 5,400백만원 이내에서 6~7건 내외(1건당 8억원 내외)



제5장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1. K-영성문화의 거점화
2. 전북 종교유산의 국제화



제5장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1. K-영성문화의 거점화

가. 종교유산 콘텐츠 개발

■ 천주교 실감콘텐츠 개발: 디지털휴먼 기반 메모리얼 로드 구축¹⁵⁾

○ 메모리얼 로드 디지털관을 구축함

- 복자약전(福者略傳)*기록 및 순교사적(殉敎史跡)**유물 등 실증 기반 메모리얼 로드 디지털관 조성으로 순례길 방문객에게 순례의 역사, 추념, 피정, 쉼터의 기능을 제공

* 복자약전: 복자로 시복된 사람들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여 모아놓은 책

** 순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나 유적을 의미. 순교사를 적은 신앙의 증거이자 교육의 장

- 디지털 도슨트(Docent) 및 실감 영상 콘텐츠,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문화 관광거점 핵심 랜드마크로 구축



911 메모리얼 박물관(미국)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실감영상관



사발지석 사적

○ 전주형 문화관광 및 순례문화 콘텐츠로서 IP를 확보함

- 초남이 성지 ▶ 숲정이 성지 ▶ 전동성당 ▶ 치명자산 성지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기반 고품질의 디지털 휴먼,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 등 디지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전주형 문화관광 콘텐츠 IP 확보

*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캐릭터, 배경, 음악, 3D디자인 등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개별 창작물

15) 이 사업안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굴한 신규 사업 계획임

- 확보된 스토리 기반 3D애니메이션 제작 및 AI, 버추얼 프로덕션 3D디지털 에셋으로 가치 재창출



디지털 복원 (유함검의 파가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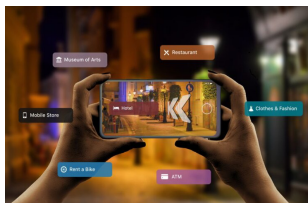


디지털휴먼 순교자 복원



디지털 에셋

- 메모리얼 로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함. 초남이성지 ▶ 숲정이성지 ▶ 전동성당 ▶ 치명자산 성지로 이어지는 순례길(요안루갈다길) 기반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캐릭터로 개발함
-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및 체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 MZ세대 및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지역 관광 특화 굿즈 마케팅 진행
- 포트나이트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 글로벌 관광 상품화 및 문화 수출



AR 순례길(요안루갈다길)



3D애니메이션



굿즈샵(OSMU)

2) 종교유산 공연 제작 및 상설 공연



■ '순례 + 공연 + 체류'가 한 번에 이어지는 신앙·문화 패키지

- 성당·성지·수도원·순례길 등 종교유산(특히 천주교 성지)을 무대와 배경으로 삼아 낮에는 순례·해설, 저녁에는 공연·미디어아트가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함
- 특정 종교 선포보다 환대, 생명, 평화, 용서, 연대 등 인류 보편가치를 전면에 두고,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지역 종교유산 이야기를 융합하는 방식을 검토함

■ 전통 공연과 디지털 아트의 결합, 지역 청년·신자·예술가의 협업

- 전북 내 주요 성당·성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성가와 전통음악(국악·퓨전국악) 라이브, 360도 사운드 디자인을 묶어 성지 야간 콘텐츠로 개발함
 -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해 성지 대성당 외벽에 빛과 음악을 투사한 비디오 매핑 공연 「Fatima - Time of Light」는 ‘기도적 체험 + 미디어아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
- 독일 오버암머가우의 ‘수난극’처럼 마을 주민 전체가 배우·스태프로 참여하며 마을 정체성을 만든 사례를 참고, 전주·완주·익산 등 교구 내 청년, 합창단, 연극인, 무용수, 영상팀이 함께 만드는 지역형 콘텐츠로 만들
 - 자원봉사자(천주교 신자, 일반 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를 공연·운영·관객 안내·해설에 참여시켜 ‘보는 공연’이 아니라 ‘교구 전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포지셔닝

[표 5-1] 종교 유산 활용 상설공연 사례

사례명	국가(장소)	핵심 내용	
오버암머가우 수난극 (Oberammergau Passion Play)	독일 오버암머가우	예수 수난을 마을 전체가 10년마다 공연하는 대규모 종교극. 주민들이 배우·스태프로 전면 참여하고, 순례·관광을 동시에 견인	
뮤지컬 「Bernadette de Lourdes」	프랑스 루르드 성지	성모 발현과 소녀 베르나데트의 삶을 뮤지컬로 재구성한 장기 공연.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 가능한 드라마 구조	
비디오 매핑 「Fatima - Time of Light」	포르투갈 파티마 성지	성당 외벽·광장에 빛과 음악을 투사하는 야간 비디오 매핑 공연. 순례 후 이어지는 기도·묵상형 콘텐츠	
뮤지컬 성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	대한민국 전주교구 치명자산성지	동정부부 순교복자의 사랑과 신앙을 다룬 창작 뮤지컬	

나. 순례길 명소화

1) 기본 구상

■ 비전 : 누구나 걷고 싶은 길,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길

- 천주교 성지와 유산을 연계한 순례길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화하고 주·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 천주교 순례자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순례길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비함

■ 개발 방향

- 보행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 시가지와 산길 구간 전반에 걸쳐 경사진 가로, 계단, 횡단보도 등 보행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순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역사성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함
 - 전동성당은 순례자들이 처형된 풍남문 터 위에 세워진 역사적 장소로서 그 상징성을 부각함
 - 치명자산성지는 유항검 성도 등 순교자의 무덤이 위치한 호남 대표 성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강조함
-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경관·조경을 개선함
 - 순례길 주변에 꽃나무, 잔디광장, 전망 데크 등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생태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설 간 접근체계를 강화함
 - 순례길의 출발지와 종착지, 주요 성지를 전주시·완주군 교통망과 연계하고, 주변 관광 명소(한옥마을, 사찰 등)와 연결되는 경로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편의를 제고

■ 차량 이동 시 주요 지점

- 이서면 주민센터 및 마을회관(신정마을회관 등), 초남이성지 입구 등이 주요 경유지임
 - 소규모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차량 정차 및 단체차량 회차 동선 계획
 - 이서면 소재 마을회관(농촌정서 함양 및 주민편의시설 기능)이나 이서휴게소 부근 나대지를 활용할 경우 주요 주차지로 설정 가능
- 소형 셔틀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체계의 구축이 가능함
 - 셔틀버스 운영 시 주요 정류장은 전동성당, 모란교차로, 이서면사무소, 초남이성지 등 연결
 - 대형 행사 시 별도의 전용 주차장 확보로 임시 운영 및 평상시 순례객 방문 시 이동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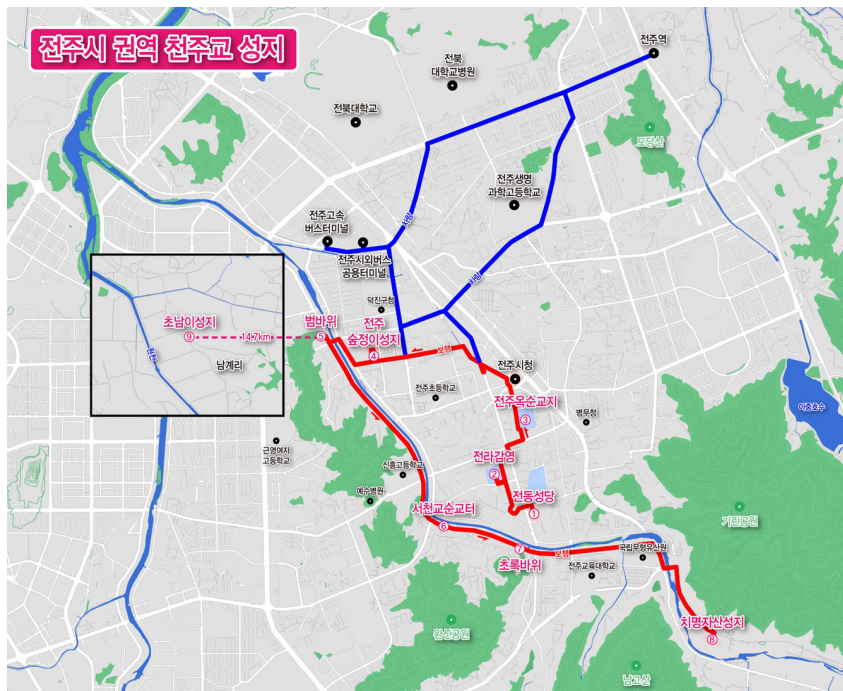
■ 보행동선 계획: 치명자산성지~초남이성지 구간

- 기존 농로와 마을길, 인도 등을 활용하여 순례 코스 정비
 - 실제 전주교구에서 운영 중인 “요안 루갈다길” 순례 코스는 약 20km에 이르지만, 전주~완주 권역의 경우보다 단축된 운영 가능
 - 초남이성지→만성동성당 부지→황방산→모롱지공원→숲정이성지→한벽루(장미공원)→치명자산 성지를 연결하는 기존 순례 코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걷는 코스
 - 본 계획 수립 시 숲정이성지 이전 구간(초남이성지→만성동성당→모롱지공원→숲정이를 중심으로 약 8~9km로 단축하여 설정하고 치명자산성지까지 연결
- 보행경로 이용 시 마을길 및 농로 우선 정비
 - 초남이성지→낙수정마을 경유 시 초남이성지→만성동(황방산) 방향 소로 활용이 가능하여 보도 미설치구간의 보도 확보, 반사경, 보행자방호울타리, 보행안내판 설치 필요
 - 전체 이동경로 중 국도 1호선 이서면사무소 주변이나 만성동 지역농로는 갓길이 미확보되어 있거나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순례객 위험 노출로 안전시설 확충 필요

■ 순례객을 위한 쉼터 구축

- 보행 이동이 긴 구간의 경우 중간 쉼터와 마을거점 연계 휴식 공간을 마련함

- 초남이성지 출발 후 첫 쉼터로 낙수정마을회관 부근 정비 필요(화장실, 휴게시설 등)
- 이서면사무소 인근 화장실 및 휴게공간이 기설치되어 있어 순례객 안내판 설치 필요
- 관광 부지를 활용한 순례길을 정비함
 - 순례객뿐만 아니라 관광객 이용 시 교통약자(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를 위한 BF시설 확충



[그림 5-2] 전주시 권역 순례길 차량 및 보행동선

3) 순례길 명소화 사업(중·장기)

■ 전주~완주 순례길은 천주교 주요 성지(9개소)를 연결하여 상징성 부여

- 성지의 진실성과 품격을 지키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길
 - 지역주민 참여가 조화되는 순례 체험공간 조성, 걷기좋은 도시재생 환경 마련

- 9개소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역사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코스를 창출함

- 구간별 역사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도출
- 단기 및 장기 사업계획 구상을 통해 단계적인 자원 조달 계획 수립

■ (구간 1) 전동성당 ~ 전라감영 ~ 전주옥순교지

- (도입배경) 전동성당은 풍남문 터에 세워진 천주교 성당으로 순교 1번지,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 청사로 당시 처형된 신사들이 압송되는 길목, 전주옥순교지는 신유박해(1801) 당시 옥사자가 투옥되었던 옛 교도소 유적지임
- (문제점) 성지 안내판·문화역사적 해설 부족, 도시 도로와 보행로의 안전성 미흡, 주변 휴식공간이 부족함
- (사업계획) 도심 보도 포장 및 횡단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안전 강화, 성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성지 역사 안내판, QR코드 연계자료 제공, 전라감영 주변 문화광장·벤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함
- (계획방향) 역사문화 관광과 연계한 전동성당~전라감영~옥순교지 경로를 “역사성 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안내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차원에서 옥순교지 인근 공원과 연계한 쉼터 겸 교육공간을 조성함

■ (구간 2) 숲정이성지 ~ 범바위 ~ 서천교 ~ 초록바위

- (도입배경) 숲정이성지는 1801년 유항검 성도 일가 7위가 참수된 장소, 범바위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자 여섯 위의 유해가 임시 안장된 곳, 서천교는 전주천 도계(禪川橋)로 이 지역 신앙인에게 익숙한 길목이고, 초록바위는 곤지산 절벽 아래로, 병인박해 당시 처형장이었던 자연유적임
- (문제점) 산길·하천변 일부 구간에 표시판·표지석 부족, 비포장 임도 구간이 있어 우천 시 보행 위험, 휴식벤치 및 전망데크 미설치 등 문제가 있음
- (사업계획) 보도 정비(자전거 겸용 도로 포함) 및 가로등 설치로 야간 보행 지원, 중간

지점 쉼터(벤치·정자) 조성, 초록바위 산책로 나무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순례길 안내 표지판(지도 포함) 보강 등이 필요함

- (계획방향)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역사경관 복원 - 초록바위 주변 이팝나무 군락을 보전하고 꽃피는 철(5월)에 관광객 유도. 범바위에는 안내판과 순교탑 설치, 숲정이성지 주변은 휴게광장으로 정비하여 묵상 공간 제공 등이 추진되어야 함

■ (구간 3) 치명자산성지

- (도입배경) 치명자산성지는 한옥마을 동남쪽의 산 정상에 위치하며, 1801년 순교한 호남의 사도 유헌겸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가족 7위의 묘가 위치, 순례길 입구인 몽마르뜨 광장에서 정상까지 십자가의 길(14처)로 연결됨
- (문제점) 산길이 가파르고 비탈로가 미정비되어 보행 안전이 우려되며, 이정표 부족, 중간 쉼터·표지판 미흡 등 문제가 있음
- (사업계획) 등산로 경사도 완만화(계단 정비·포장), 안전난간·손잡이 설치, 중간지점마다 정자형 휴게소 및 기도처(碑) 조성, 정상부 접근로 표지판 강화 등이 필요함
- (계획방향) 순교자 유해 안장지를 중심으로 둘레길과 연계하여 순례자센터·기도소 마련.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생태 통로(야생화 식재) 조성, 순례 과정 중 영성 체험을 유도하는 식물 안내판 설치가 진행되어야 함

■ (구간 4) 초남이성지(완주군)

- (도입배경) 초남이성지는 호남의 사도 유헌겸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생가가 있던 곳으로,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로 불림.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송광사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근처에 위치함
- (문제점) 진입로 안내 부재, 주차장 없음, 성지 내부 시설(본당·교육당) 노후화 등
- (사업계획) 성지 진입구 표지판·안내 간판 설치, 인근 공터에 순례자 전용 주차장 확보, 성지 광장 조성(순교비·십자가문 설치), 안내해설센터 건립 등 검토가 필요함

■ 연계 체계 강화 방안

- 차량 동선 계획수립 시 검토한 노선 중 주요 교차로 부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
 - 전주IC, 상관C, 이서면사무소 앞 등 순례길 안내 표지판과 노선 안내판 병행 설치로 순례객에게 정보 제공 및 경로 인식 강화
 - 전주 부근 시작 지점(전동성당 인근)과 초남이성지 입구에 대형표지판 설치로 아이덴티티 부여 및 순례길 로고, 차량 이동 경로 약식 표기
-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강화함. 이서면의 주요 마을회관과 휴게소에는 임시주차장 조성, 택시와 버스를 위한 승하차 지점을 확충함
 -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주차장 및 쉼터의 조성으로 순례길 명소화사업 지원
 - 순례객 수요에 맞춰 20~25인승 1~2대 소형 셔틀버스 도입으로 원활한 이동 체계 마련
- 보행안전과 안내시설을 설치함. 전체 보행 구간에 대하여 노면 안전시설(안전펜스, 보호울타리, 인도 확장)과 유도 표지판을 설치함
 - 도로변 인도 없는 협소 구간(예: 국도 1호선 낙수정~이서면사무소)에는 반사경과 우회 안내판을 설치, 마을 쉼터, 화장실, 휴게 의자 등 편의시설도 거점별로 배치하여 장거리 걷기에 따른 피로 해소를 도모

■ 사업의 기대효과

- 브랜드화 및 홍보를 지원함. 전주·완주 두 지자체와 전주교구가 협력하여 전주~완주 순례길 전용 안내책자, 모바일 앱, 표지판 로고 등을 개발·배포함
 - 구간별 소요시간과 난이도, 문화유산 해설 포함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성당, 마을회관에 비치
 - 도보 이동 순례객을 위해 스탬프투어 안내지를 제작, 중간 거점마다 스탬프를 비치하여 보행 동기 부여
 - 홍보·안내 투자는 연간 소규모 사업비(수천만 원 규모)로 추진할 수 있으며, 완성된 경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반영
- 전주시와 완주군 내 순례길을 연계함. 전주 시내 성지와 완주 초남이성지 간 교통·보행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WYD 참가자와 일반 순례객이 양 지역의 성지를 무리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차량 이동과 도보 이동이 모두 가능한 연계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순례길 시스템의 완결성을 높이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가능

■ 자원 조달 계획

- (관련 예산) 구입·임차 비용, 운행 인력 및 연료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순례 행사 기간에는 추가 예산을 배정함
 - 운영은 전주시 또는 완주군 관광센터, 교구 차원에서 대행하거나 민간·사회적기업 위탁 방안을 검토
 - 집행예산은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혹은 '종교문화 관광자원 조성 사업' 등을 활용하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
- (보행 안전 및 안내 시설) 도로 개량 사업 예산(전북도 또는 완주군 지방도 정비)과 관광인프라 조성비(전주시 관광과, 완주군 관광과)를 투입
 - 주요 분기점과 숙소, 교통편이 있는 거점(예: 전주시내 순례자집결장) 간 연계 교통망 (버스, 택시) 계획도 고려 필요

■ 연차별 정비 및 투자계획

- (단기, 2025~2027년) WYD 개최에 맞춰 중심 구간을 정비함¹⁶⁾
 - 구간 1~2(시내 구간)를 우선으로 보행로와 성지(전동성당~옥순교지, 숲정이) 위주로 길·안내체계 정비하고, 예산의 다수를 도심 안내시설 구축·도로 개선에 투입
- (중기, 2028~2030년) 치명자산~초남이 구간 정비를 추진함
 - 치명자산 등산로와 초남이성지 주변 경관·쉼터·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을 확충, 조경사업과 휴게시설(정자, 광장) 확대를 통해 순례의 질적 수준 향상
- (장기, 2031~2034년) 초남이성지 광장 조성 및 전주교구 순례자센터를 건립함
 - 신재생 에너지 조명(태양광 LED)과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완비하여 종합 순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순례 코스 확장 등 후속 사업 준비

16) 단기 과제는 제4장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와 연계하여 제안하였음(100쪽 참조)

다. 순례관광 활성화

1) 전주교구대회 연계 순례 프로그램(안)

■ 전북내 권역과 치유관광의 만남

- 전주교구대회 주제는 포용성과 확장성, 다양한 지역과 언어, 신앙과 문화를 아우르는 ‘만남’을 주제로 하므로 전북을 방문하는 순례자에게 전북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신앙심을 배가시키는 치유관광지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치유관광지는 12개 시군에 30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자연, 전통, 명상, 스파, 한방, 음식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음. 전북대회 권역별 치유관광지를 결합하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
- (예시 1) 완주지역 순례자의 전통생활문화 프로그램
 -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 봉강요가 등이 치유관광지로 지정
 - 전통 한옥을 비롯해 다도, 한지공예, 한복체험, 요가, 명상, 도자기 체험을 통해 전북의 문화를 알리고 순례자의 심적 안정감을 전달



대승한지마을
한지뜨기 체험



오성한옥마을
다도체험



봉강요
도자기 체험

- (예시 2) 익산지역 순례자의 자연치유와 미식 체험 프로그램
 - 전북의 치유관광지 중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익산지역은 식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왕궁포레스트, 달빛소리 수목원, 우리들의 정원 치유농장이 치유관광지로 지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음식체험을 하는 4남매 체험농장도 지정
 -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원예체험, 힐링족욕, 이끼테라리움 등 프로그램과 건강 먹거리의 식사체험 가능



왕궁포레스트
힐링족욕



달빛소리 수목원
트리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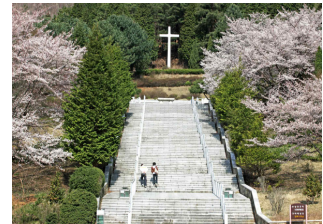
우리들의 정원
원예체험

■ 전북만의 순례길 코스: 전북의 성지를 걷다

- 순례길을 걸으면서 주변 지역의 치유관광지 프로그램, 문화체험도 경험이 가능함. 지역 내에 있는 천주교 성지와 불교 성지를 결합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예시 1) 성지해움길 천주교와 불교의 성지 순례

- (주제) 사찰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천주교성지에서 기도를 통해 마음을 치유
- (지역) 완주군
- (소재)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명상, 성지, 성당, 미사
- (방문장소) 완주 송광사, 천호성지
- (체험) 대승한지 싱잉볼 명상, 스님과의 차담
- (코스) 대승한지마을(싱잉볼 명상) → 송광사(템플스테이, 차담) → 천호성지(기도와 해설)



완주군 천호성지



완주군 송광사

○ (예시 2) 성지해움길 사색의 도시 전주의 다종교

- (주제)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전주, 고요한 종교성지에서 받는 위로
- (지역) 전주시
- (소재)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다도, 명상, 성당, 종교건축, 박물관 등
- (방문장소) 풍남문, 전동성당, 서문교회, 치명자산성지, 승암산 동고사
- (체험) 다도체험 :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 다도 체험을 통해 차 한 잔의 깊은 맛을 느끼고,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여유로운 순간을 경험
- (코스) 풍남문 → 전동성당 → 다도체험 → 서문교회 → 치명자산성지 → 승암산 동고사



- **풍남문:**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의 무혈 입성한 역사적 현장이며, 1971년 천주교 신유박해 때 윤지충, 권상연 등이 처형된 장소



- **서문교회:** 호남지역 개신교의 첫 교회로서 1893년 복음전도를 통해 1897년 처음으로 한국인 5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워짐. 1908년 호남 최초 서양식 종이 세워짐



- **전동성당:**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로서 1908년 착공하여 1931년 완공됨.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이 처형된 순교지



- **치명자산성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되면서 치명자산이라는 이름을 가짐. 유항검 등 가족 7인의 합동묘가 있고, 성지 내 평화의전당에 순교자의 유해 옹기와 사발 지석이 보존되어 있음



- **승암산 동고사:**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사찰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음. 신앙과 수행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명상과 사색을 위한 장소임

■ 순례길과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과의 결합

- 종교성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만남으로서 심의 여유를 전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
- 전북 특화체험프로그램은 공예, 음식, 자연탐색 등 20개가 지정되어 있음. 또한 공연 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활동이 전북 내 각 시군에서 펼쳐지고 있음
- (예시) 유리공예로 만나는 천주교

- 천주교 성당은 성서이야기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하고, 내부에 빛이 들어오면 화려한 빛깔의 창문이 하나의 예술로 표현
- 유리공예작가와 함께 성서이야기 또는 자신의 신앙일지를 유리공예로 표현하고 기념품으로 간직 가능
- 전주외 강희경 작가의 유리공예, 익산 새록유리공방의 공예체험은 회화적 이면서 예술성을 담고 있어 순례자의 감성에 부합



익산 새록유리공방

■ 순례자의 치유

- 순례자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가면서 신앙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과 배려는 필요한 행동요건으로서 예술을 통해 그들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성찰을 도모할 수 있음
- (예시) 장애인과 함께 미술여행
 - 예술은 오감을 깨우는 행위로서 장애인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매개역할을 함. 예술가와 함께 회화, 공예, 사진, 설치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으로 활동
 - (시각예술) 군산의 고보연 작가, 김제 파스텔, 전주 아홉손가락 도예교실 등

■ 방문객 인센티브 정책과 연계, 공식 방문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보

- 전북도의 사업 중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음. 지역 여행사와 조직위가 협력하여 이 사업 예산을 확보, 참가자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함
-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하므로, 홈스테이 대상 가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숙박과 함께, 관광객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음
 -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주택 연면적 230㎡ 이하,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전북도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전국 여행업 등록여행사 •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객 인원) 외국인 10인 이상, 내국인 20인 이상 - (지원 요건) 1박 이상 숙박 및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 필수(당일 X) * (예시) 1박 2일 : 유무료 관광지 2개소, 식사 2식 이상 •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 1박 20,000원 / 2박 35,000원 / 3박 50,000원(최대 3박) - (문화 체험비) 1인당 5,000원(10,000원 이상 유료 체험에 한함) - (차량 임차비) 1박당 1인당 10,000원 (최대 3박)

2) 지속가능한 치유형 순례의 방향

■ 다시 찾는 순례자를 위한 'WYD 기록관' 조성

- 전북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전례, 순례, 지역탐방, 문화체험, 명상 등 다양하게 경험의 과정을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기록관을 조성함
- 청년대회 기록은 대회 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 사진, 활동물품, 책자, 기념품, 기증품, 스토리북, 인터뷰 등 활동의 흔적 전반을 대회 동안 수집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함
 - 치명자산성지는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서 평화의전당은 기록관으로 적합
 - 기록관은 영상, 사진, 물품 등의 전시와 순례자 활동기록, 인터뷰를 재구성한 인쇄물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전북 완주군 천호가톨릭성물박물관은 세계 희귀 성물을 기증받아 조성된 공간으로서 가톨릭의 보편적 가치와 한국 천주교회사를 배우는 곳임. 청년대회 기록관은 박물관과 달리 순례자의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앙문화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종교성지+치유관광 결합 특화프로그램 개발

- 종교성지는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성찰, 영적 성숙, 인간성 회복 등을 경험하고, 치유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의 맥락이 같음
- 순례와 치유관광은 사색과 쉼을 주제로 여행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종교인을 비롯해 비종교인까지 포괄하는 여행을 통해 종교문화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 자연, 음식과 결합하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이 가능함
- 전북도에서 개발한 성지혜움길 여행상품을 기반으로 청년대회 운영프로그램, 문화체험을 결합하여 MZ, 가족, 중장년층 등 타깃별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함

- 전북도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전북형 순례치유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당 상품에 특화된 여행사와 결합하여 실제 운영 상품으로 판매
- 국내·외의 청년대회 순례자, 일반 대중의 관광트렌드에 맞게 상품을 구성
- 국내·외 OTA 등 홍보마케팅을 통해 상품 판매 및 운영

■ 전북청년축제 연계, 리턴 청년축제 개최

- 전북도는 매년 청년축제를 개최하여 정책, 토크쇼, 공연, 플리마켓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을 선보이고 있음. 축제 외에 연간 청년들의 정책활동, 서포터즈,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청년축제와 WYD 후속 사업을 연계하여 전북의 청년과 국내·외 순례자가 만나는 '리턴 청년축제'를 개최함
- 리턴 청년축제는 종교문화와 지역문화의 교류뿐 아니라 청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기존 전북청년축제는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형 축제로 추진됨.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 홍보관, 테마별 청년부스, 이벤트존, 대학 및 유관기관 홍보관, 푸드존, 토크 콘서트 등
 - 리턴 청년축제는 국내·외 전북방문 순례자를 초청하여 교류세미나, 순례자 홍보부스, 국가별 문화체험, 순례치유여행, 성지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 2027 청년대회 순례자와 전북 청년이 <리턴 청년축제>를 통해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지속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전북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확대될 것임



3) 전북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 순례방문자센터 건립의 필요성

- 순례방문자센터는 단순 건물이 아니라, 성지를 찾는 이들에게 환대·안내·교육·기도·휴식'을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적 거점임
- 순례방문자센터 건립은 한국 교회사를 대표하는 전북의 순교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고, 늘어나는 국내외 순례자와 청년 세대를 품위 있게 환대하며, 전주·전북을 아우르는 순례·관광·사목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임

[표 5-2] 순례자센터의 주요 사례

순례자 관련 시설	주요 내용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억 원 규모의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의 핵심 인프라 -한국의 산티아고를 표방하는 충남 천주교 순례길의 마침 지점이자, 교회사·지역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 허브 • 주요 기능(계획 포함) -교황 방문 기록 전시관, 순례 문화 체험관, 다국어 순례 지원실(해외 순례객 대응), 대형 강당·회의실, 환대 로비, 성지의 상징인 '진돗병(몰살 웅덩이)'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형상화한 묵상 공간(보이드), 옥상정원, 순례길의 종점 기능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Pilgrim's Reception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도보·자전거·승마 순례자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사무소 -성당까지의 마지막 관문이자, 순례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상징 공간 • 주요 기능 -최종 도장(엔딩 스탬프)과 콤포스텔라(Compostela) 증명서 발급, 순례자 통계 집계, 안내 브로슈어·지도의 제공, 작은 도서관·경당, 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개요

○ 건립 지역: 전주 숲정이 성지

- (역사성) 숲정이는 조선시대 군사 훈련장이자 형장이었고, 1801년 신유박해부터 기해·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탄생시킨 사적지로 평가. 또한 유항검 일가, 이순이 루갈다·유중성 등 6성인·12복자가 이곳에서 순교했고, 일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광화문에서 시복
- (공간·시설) 숲정이 순교터는 현재 전북도 기념물 제71호로 지정. 아파트 개발로 원래 형장은 사라졌지만, 약 150m 떨어진 곳에 토사를 옮겨와 야외 제대, 순교자 현양탑, 십자가의 길 14처, 성모자상을 갖춘 성지가 재조성

○ 건립 비전: '피로 물든 숲에서 다시 일어나는 청년: 전주 숲정이성지 순례방문자센터'

- (정책성) 순교의 피 위에 서 있는 신앙의 뿌리 성지, 청년·가정·WYD(WYD) 순례자를 위한 전북의 관문 센터, 전주 한옥마을·풍남문·치명자산 등과 연계되는 도시형 순례 허브

○ 주요 내용

- (게이트 역할의 순례방문자센터 본관) 현대·안내, 오리엔테이션 룸(숲정이, 전주교구 순교사 영상 상영, WYD·전주교구대회 영상 등), 기프트숍, 행정·운영 등)
 - * Our Lady of Guadalupe Pilgrim Center처럼, 모든 방문자가 반드시 통과하는 입구로 설계
- (영성·전례 존) 기도와 성사의 중심 - 작은 실내 경당, 고해소·상당실, 침묵기도실 등
- (역사·교육 존) 숲정이 순교자 이야기관
 - * 조선시대 전주·전라 지역의 상황, 형장으로서 숲정이의 역사, 신유·기해·병인박해 순교 연표와 인물 스토리(유항검 일가, 이순이 루갈다 등), 광화문 시복·여의도 시성, 오늘의 한국교회와의 연결 등
- (야외 순례 체험 존) 숲정이 순교자의 길, 해설 표지판 및 QR 오디오 가이드, 야간 조명과 안전시설
 - * 해미국제성지처럼 순례길의 종점·출발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디자인
- (청년·국제 순례 존) Youth & Pilgrim Hub
 - * 다목적 홀(청년 모임, 음악 피정, WYD 전주교구 프로그램(예: 프리-WYD 캠프) 개최), 청년 라운지(자유로운 토크·나눔 공간, 간단한 카페·북카페 분위기), 국제 순례실(다국어 안내 패널, 세계 순례지(산티아고·파티마·루르드 등) 관련 지도·영상 비치) 등

■ 순례방문자센터의 단계별 건립 추진(안)

- 1단계 (1~2년) - 콘텐츠·동선 정비 + 소규모 센터
 - 현재 성지 내·주변 임시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 안내실, 기도실, 카페, 기프트 코너 설치
 - 기본 동선·표지판·브로슈어·오디오 가이드 구축
 - 전주교구·전북도·전주시와 함께 마스터플랜·타당성 조사 진행
- 2단계 (3~5년) - 정식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 해미국제성지·서지마을 규모를 참조해 600~1,000㎡급 센터(환대·영성·교육 복합시설) 설계·건립 추진
 - 숲정이 순교자 이야기관, 청년·국제 순례 허브, 상설 프로그램 운영 안정화
 - 전주 한옥마을·시내 관광 코스와 공식 연계(시티투어·테마 버스)
- 3단계 (5년 이후) - 국제 순례 허브
 - 해외 순례단(특히 아시아 청년) 대상, 서울(교황청)-전주(순교)-충남(해미·내포)을 잇는 한국 순례 루트 패키지 개발
 - 국제 언어 순례 안내 상시 제공
 - 파티마·산티아고·루르드 등과 자매 순례지 교류 프로그램 추진

■ 재정 확보 및 추진 방안

- (충남도 사례) 2023~2033년까지 10년 동안, 해미국제성지와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 천주교 순례길 일원에 총 1250억 원을 투입,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중임
 - 140.5km 규모(9개 구간)의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 중이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를 순례길 종점에 건립 중. 설계 공모 시 제시된 공사비 규모는 50억 원
-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종무실의 종교문화시설 건립(2024년 기준)에 사찰·성당·교회·역사관·순례센터 건립 예산이 내역 사업에 포함됨
 - (주요 예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810백만 원,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90백만원(설계 등)

- (문체부, 순례길·관광 사업) 순례길·관광 인프라·콘텐츠는 관광개발과·국내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추진됨
 - 문체부 관광개발과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국내관광진흥과는 걷기여행길, 지역관광콘텐츠, 전통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을 지원
- (숲정이 순례방문자센터 추진 방안) 종교문화시설 건립과 걷기순례길·도시형 순례 관광 콘텐츠(관광 예산)를 묶어 예산을 확보함. 즉 순례방문자센터 하나만이 아니라, 성지+순례길+디지털 체험+관광 인프라까지 묶은 대형 패키지화가 필요함
 - 현재 추진 중인 숲정이 성지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표 5-3] 전북 순례방문센터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

전략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전략 1. 사업 성격 정의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가 종교문화와 관광 인프라로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은 종교건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 용가능한 문화·체험·관광형 종교문화시설 • 숲정이 순례방문자센터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순교기념·역사교육 시설: 최대 순교터의 역사·인물·문헌을 전시·교육하는 숲정이 순교자 이야기관 -전북 종교문화·순례관광 허브: 치명자산 성지, 전동성당, 풍남문 등 전주 시내 및 전북 종교문화 자원을 연결·안내하는 방문자센터 역할 -청년·WYD(WYD) 대응 국제 순례 허브: 다국어 안내, 청년 프로그램, 국제 순례단 오리엔테이션 등 국제 순례 인프라 기능
전략 2. 예산 규모와 구조 설계	총사업비: 60억 수준 순례길 정비·안내판·주차장·야간 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 총사업비 54억 •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 공모자료 기준 50억대 중반 • 문체부 관광예산(관광개발·국내관광진흥과 및 한국관광공사 공모)과 국토부/행안부 도시재생·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별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
전략 3. 숲정이 세계명소화 패키지 구성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의 패키지화 사업 구상처럼, 단일 건물 사업이 아니라 “전주 순교·순례벨트 명소화” 패키지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숲정이 순교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핵심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국비 확보 • 숲정이-치명자산-전동성당-풍남문을 잇는 순교·순례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걷기여행길, 도시형 순례 코스로 관광부서 예산 활용 • 디지털 역사체험·멀티미디어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미 디지털 역사체험관처럼, 디지털 콘텐츠 예산·관광콘텐츠 예산 연계 • 청년·WYD 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청년 순례단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국내관광 활성화·청년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라. 종교공존 거점화

1) 전북도의 종교공존 사업 경과

■ 이웃종교 탐방길(아름다운 순례길)

- 2012년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조성된 이웃종교 탐방길 코스는 총 10개임.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포함됨. 코스 길이는 총 260km임
- 시군과 종단 간 예산 매칭을 통해 매년 순례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임. 일부 탐방길에서 야자매트 및 목계단 설치 등이 진행되나, 대부분 정비 사업이 제초 및 벌목 작업, 안내판 설치 또는 정비에 머물러 있음

■ 세계순례대회 및 세계종교문화축제

- 전북에서는 2012년에 이웃종교 탐방길을 중심으로 한 세계순례대회를 개최함. 세계순례대회는 2014년까지 이어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획순례, 도보순례, 순례포럼 등으로 구성됨. 2014년 이후에 전북세계순례대회는 개최되지 않음
 - 2014년 마지막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 불교가 순례대회 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부터 불참을 결정. 당시 전북 불교계는 “특정 종교 성지화 등 종교 편향 행사”라고 비판한 바 있음.¹⁷⁾ 이웃종교 탐방길 조성은 종교 간의 화합에서 조성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는 화합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남
- 전북세계순례대회는 2015년부터 세계종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어짐. 세계종교문화축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의 상생, 화합, 평화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함
 - 전북도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 운영 지원 조례」를 통해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운영할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사향을 명시,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세계종교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겸하여 축제를 추진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해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가 돌아가면서 담당 종단으로

17) “전북불교계 세계순례대회 불참 결의” (BTN 뉴스, 2013.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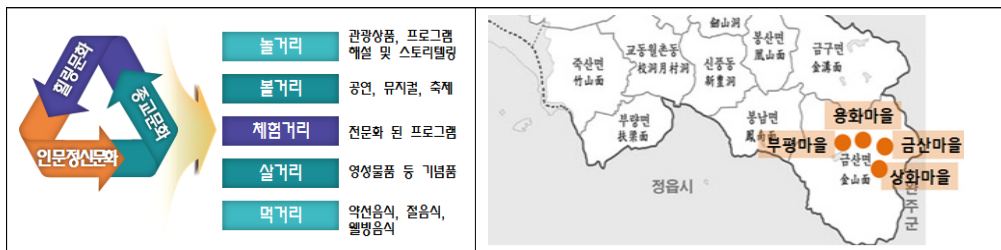
서 역할을 하며 최소 2일, 최대 5일 동안 개최되어 음. 담당 종단이 되면 축제의 실행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축제의 개최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그림 5-4] 2023 세계종교문화축제

■ 종교공존 사업 구상, 사업화 미흡

- 2014년 수립된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가칭)종교간대화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는 ‘영성문화 체험거점 조성’이 제안되었고,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종교화합 글로벌 문화단지 조성’이 포함되었음
- 종교화합 글로벌 문화단지 조성 사업(안): 국립 종교화합진흥원 건립, 종교화합의 길 조성, 종교화합 체험공간 조성, 국제종교화합컨퍼런스 개최 및 세계종교화합연대회 설립, 종교별 종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그림 5-5] 2014년 제안 영성문화체험 개념도

[그림 5-6]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종교화합 글로벌 문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 문체부는 2007년에 지구상의 종교 갈등 해소와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적 종교연합 기구 성격의 세계종교평화센터를 구상하며 종교 간 교류와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전북도에서는 이 사업의 거점이 되고자 하였으나 사업화되지 못함

2) 종교공존 거점화 사업 발굴·추진

■ ‘종교간대화센터’(가칭) 건립

- 극단주의 종교 세력으로 인해 세계적인 종교 갈등이 빚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 종교학자들은 한국을 ‘종교의 박물관’으로 비유하며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현상이 공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종교 간 갈등이 심하지 않은 특징을 지닌다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이 전북임
- 이와 같은 한국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국내 및 국외에 확산하고, 관련 건전한 종교 문화 정착과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의 장 마련, 국제 종교교류·협력의 필요성이 WYD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하나의 집’(House of One)에서 시작된 다종교 기관 회의처럼, 다양한 종교인이 한 공간에서 영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공통 사업을 진행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함
- (가칭)종교간대화센터 건립 개요
 - 건립 목적 : WYD를 계기로,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현상이 공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종교 간 갈등이 심하지 않은 한국 종교의 특징을 국내·외적을 확산하는 거점이자, 다양한 종교의 영성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함으로써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기능
 - 건립 지역 :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도립공원 일대
 - * 금산면 4개 마을(용화, 부평, 금산, 상화)에는 다양한 종교(개신교·불교·원불교·종산교·천주교 등) 성지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종교 갈등 없이 다양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수행
 - 사업 내용
 - * 센터 건립 계획 수립 및 국가사업화
 - * 전시관·심리상담실·회의장·세미나실 등의 시설과 교육·연구·전시·체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종교 문화 이해와 체험 사업 전반을 지원할 핵심 시설로서 (가칭)종교간대화센터 건립
 - * (가칭)종교간대화센터 설립·운영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추진 : 협의체는 종교 협력체계 구축 및 영성문화산업 지원, 나아가 국외 네트워크 형성 기능을 수행

[표 5-4] 다종교 기관 회의와 '하나의 집'(House of One) 사례

- 2020년 11월, 다종교 기관 회의는 '하나의 집'(House of One)에서 시작,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 베를린 '하나의 집', 스위스 베른 '종교의 집-문화 대화'(House of Religions-Dialogue of Cultures), 독일 하노버 '종교의 집'(House of Religions), 오스트리아 빈 '종교 캠퍼스'(Campus of Religions), 독일 뮌헨 '문화와 종교의 집'(House of Cultures and Religions), 독일 빌헬름스하펜에 계획 중인 '다종교의 집'(House of Multiple Religions), 조지아 '평화 대성당'(Peace Cathedral) 등



- 스위스 베른 '종교의 집'의 운영 개요
 - 종교 공동체가 한 지붕에 공존, 소통하는 공간. 2014년에 설립된 '종교의 집'은 이전에는 예식을 위한 품위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관심 있는 종교 공동체에게 안식처 제공
 - 힌두교도, 무슬림, 기독교도, 알레비교 신도, 불교도는 각자 종교 공간 보유, 유대교인, 바하이교인, 시크교도는 주제별 프로그램에 참여

Programm im Haus der Religionen – Dialog der Kulturen, Oktober 2025 bis Januar 2026

Oktober 2025	November 2025	Dezember 2025
Neuzeit Religiös 01.10.25 (12.00 Uhr) 12.45 Uhr 02.10.25 (12.00 Uhr) 12.45 Uhr 03.10.25 (12.00 Uhr) 12.45 Uhr 04.10.25 (12.00 Uhr) 12.45 Uhr 05.10.25 (12.00 Uhr) 12.45 Uhr 06.10.25 (12.00 Uhr) 12.45 Uhr 07.10.25 (12.00 Uhr) 12.45 Uhr 08.10.25 (12.00 Uhr) 12.45 Uhr 09.10.25 (12.00 Uhr) 12.45 Uhr 10.10.25 (12.00 Uhr) 12.45 Uhr 11.10.25 (12.00 Uhr) 12.45 Uhr 12.10.25 (12.00 Uhr) 12.45 Uhr 13.10.25 (12.00 Uhr) 12.45 Uhr 14.10.25 (12.00 Uhr) 12.45 Uhr 15.10.25 (12.00 Uhr) 12.45 Uhr 16.10.25 (12.00 Uhr) 12.45 Uhr 17.10.25 (12.00 Uhr) 12.45 Uhr 18.10.25 (12.00 Uhr) 12.45 Uhr 19.10.25 (12.00 Uhr) 12.45 Uhr 20.10.25 (12.00 Uhr) 12.45 Uhr 21.10.25 (12.00 Uhr) 12.45 Uhr 22.10.25 (12.00 Uhr) 12.45 Uhr 23.10.25 (12.00 Uhr) 12.45 Uhr 24.10.25 (12.00 Uhr) 12.45 Uhr 25.10.25 (12.00 Uhr) 12.45 Uhr 26.10.25 (12.00 Uhr) 12.45 Uhr 27.10.25 (12.00 Uhr) 12.45 Uhr 28.10.25 (12.00 Uhr) 12.45 Uhr 29.10.25 (12.00 Uhr) 12.45 Uhr 30.10.25 (12.00 Uhr) 12.45 Uhr 31.10.25 (12.00 Uhr) 12.45 Uhr	Oktober 2025 01.10.25 (12.00 Uhr) 12.45 Uhr 02.10.25 (12.00 Uhr) 12.45 Uhr 03.10.25 (12.00 Uhr) 12.45 Uhr 04.10.25 (12.00 Uhr) 12.45 Uhr 05.10.25 (12.00 Uhr) 12.45 Uhr 06.10.25 (12.00 Uhr) 12.45 Uhr 07.10.25 (12.00 Uhr) 12.45 Uhr 08.10.25 (12.00 Uhr) 12.45 Uhr 09.10.25 (12.00 Uhr) 12.45 Uhr 10.10.25 (12.00 Uhr) 12.45 Uhr 11.10.25 (12.00 Uhr) 12.45 Uhr 12.10.25 (12.00 Uhr) 12.45 Uhr 13.10.25 (12.00 Uhr) 12.45 Uhr 14.10.25 (12.00 Uhr) 12.45 Uhr 15.10.25 (12.00 Uhr) 12.45 Uhr 16.10.25 (12.00 Uhr) 12.45 Uhr 17.10.25 (12.00 Uhr) 12.45 Uhr 18.10.25 (12.00 Uhr) 12.45 Uhr 19.10.25 (12.00 Uhr) 12.45 Uhr 20.10.25 (12.00 Uhr) 12.45 Uhr 21.10.25 (12.00 Uhr) 12.45 Uhr 22.10.25 (12.00 Uhr) 12.45 Uhr 23.10.25 (12.00 Uhr) 12.45 Uhr 24.10.25 (12.00 Uhr) 12.45 Uhr 25.10.25 (12.00 Uhr) 12.45 Uhr 26.10.25 (12.00 Uhr) 12.45 Uhr 27.10.25 (12.00 Uhr) 12.45 Uhr 28.10.25 (12.00 Uhr) 12.45 Uhr 29.10.25 (12.00 Uhr) 12.45 Uhr 30.10.25 (12.00 Uhr) 12.45 Uhr 31.10.25 (12.00 Uhr) 12.45 Uhr	November 2025 01.11.25 (12.00 Uhr) 12.45 Uhr 02.11.25 (12.00 Uhr) 12.45 Uhr 03.11.25 (12.00 Uhr) 12.45 Uhr 04.11.25 (12.00 Uhr) 12.45 Uhr 05.11.25 (12.00 Uhr) 12.45 Uhr 06.11.25 (12.00 Uhr) 12.45 Uhr 07.11.25 (12.00 Uhr) 12.45 Uhr 08.11.25 (12.00 Uhr) 12.45 Uhr 09.11.25 (12.00 Uhr) 12.45 Uhr 10.11.25 (12.00 Uhr) 12.45 Uhr 11.11.25 (12.00 Uhr) 12.45 Uhr 12.11.25 (12.00 Uhr) 12.45 Uhr 13.11.25 (12.00 Uhr) 12.45 Uhr 14.11.25 (12.00 Uhr) 12.45 Uhr 15.11.25 (12.00 Uhr) 12.45 Uhr 16.11.25 (12.00 Uhr) 12.45 Uhr 17.11.25 (12.00 Uhr) 12.45 Uhr 18.11.25 (12.00 Uhr) 12.45 Uhr 19.11.25 (12.00 Uhr) 12.45 Uhr 20.11.25 (12.00 Uhr) 12.45 Uhr 21.11.25 (12.00 Uhr) 12.45 Uhr 22.11.25 (12.00 Uhr) 12.45 Uhr 23.11.25 (12.00 Uhr) 12.45 Uhr 24.11.25 (12.00 Uhr) 12.45 Uhr 25.11.25 (12.00 Uhr) 12.45 Uhr 26.11.25 (12.00 Uhr) 12.45 Uhr 27.11.25 (12.00 Uhr) 12.45 Uhr 28.11.25 (12.00 Uhr) 12.45 Uhr 29.11.25 (12.00 Uhr) 12.45 Uhr 30.11.25 (12.00 Uhr) 12.45 Uhr 31.11.25 (12.00 Uhr) 12.45 Uhr

■ 종교 및 영성문화 국제행사 개발

- 2023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세계종교문화축제를 다시 개최하거나, 한국 종교 및 영성문화의 특징을 살린 국제행사를 개발하여 운영함
- 종교별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예: WYD 계기로 천주교 순례 축제)하거나, 천주교 등 6대 종교와 전복의 문화를 연계한 종합적인 축제, 또는 종교문화 분야별 국제적 행사와 축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종교문화 분야별 축제 예시: 종교기록, 종교음식, 종교건축 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종교기록대회, 세계종교음식축제, 세계종교성물페어, 세계종교건축대전 등을 개발
- * (종교별 음식문화) 불교의 사찰음식, 이슬람의 할랄식품, 창세기 금기식, 힌두교 음식 등

2. 전북 종교유산의 국제화

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

1) 추진 경과 및 방향

■ 등재 대상, 천주교 성지 유적에서 ‘공소’로 전환

- 2016년 충청남도-대전교구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에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의결과는 부결이었음. 주요 부결 내용은 세계유산의 경우 탁월한 가치가 중요한데 충남의 천주교 박해 유산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임. 성당 등을 제시했는데 건축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한국 천주교의 경우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교우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가치를 담은 공소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표 5-5] 한국 천주교의 공소와 다른 지역 유산 사례와의 비교

지역	역사적 기원/맥락	공간·건축	리더십·예식	오늘의 쟁점
한국 (공소)	평신도 주도 수용 → 박해기 순회사목 → 공소예절 정착	한옥(온돌·마루)·남녀 분리 출입 등 한국적 요소 다수	공소회장 중심, 성찬 없는 공소예절	농촌 고령화 속 유자활성화, 문화유산화
일본 (나가사키 ‘숨은 그리스도교’)	1614년 금교령 이후 비밀 전승, 오라쇼(기도)·마리아 관음 등 은폐의 신앙	가정·마을 단위 은닉공간, 금지 해제 후 일부 교회 건립	성직자 부재 속 세습 리더, 비가톨릭적 요소 혼재	전승 공동체 급감, 세계유산(2018)으로 보호·기록 중
필리핀 (visita)	식민기 cabecera-visita 체계의 선교 행정망	본당(센터)-위성 예배소 구조, 스페인식 양식 영향	성직자·수도회 주도, 위성 공동체는 보조적	식민유산의 해석·보존, 지역관광과 연계
베트남 (giáo họ)	본당(giáo xứ) 하의 하위 공동체	‘nhà thờ họ’(지교회) 중심, 프랑스 선교 영향	본당 사목 아래 평신도 운영	농촌·도시 이주 속 하위조직 재편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2차 사업을 통해 사전자문(upstream process)을 추진하였고, 이때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공소를 핵심 대상으로 세계유산화를 추진 중임

- 충청남도·대전교구 주도로 추진되던 내용을 토대로 2026년에 관련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며, 각 지역에 존재하는 공소의 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정리할 계획임
-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내포지역 천주교 교우촌(공소) 종합조사' 등 공소 조사를 단계별로 추진

2) 전북 내 공소 조사와 탁월한 가치 분석

■ 전북 지역의 천주교 교우촌(공소) 종합조사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진행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에서는 전북(초남이공소 유산군)의 되재공소(완주)와 어은공소(진안)를 대상 유산에 포함함
- (완주 되재공소: 화산면 승치리) 박해기 교우촌 형성, 신앙자유화 초기 본당. 한옥 성당(복원)과 교우촌이 존재하며,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
- (진안 어은공소: 진안읍 죽산리) 박해기 교우촌 형성, 거점 교우촌. 한옥공소와 교우촌이 존재하며,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 충청남도와 협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기초연구를 진행함
- 되재공소와 어은공소 외 한국적 천주교 역사를 계승하고, 한옥성당 및 전례 등 한국적 특성을 보유한 공소를 추가 발굴하고, 공소별 명칭, 이칭, 형성 역사, 관련 시설 및 문화유산, 한국적 특성 등을 조사 기록함
- 현황실태조사, 심화조사, 구술채록 등

■ 전북 지역 교우촌(공소)의 탁월한 가치 정립

- 전북 지역의 주요 교우촌(공소)이 갖는 역사적 사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한국적 특성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정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
- (충청남도 사례) 내포지역 천주교 교우촌(공소) 종합조사 관련 학술대회: △ 내포지역 천주교 교우촌의 형성과 전개, △ 내포지역 공소 건축유산의 현황과 특징, △ 내포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교우촌(공소)의 입지 조건 등

나.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1) 국제순례지 개요

■ 국제순례지 개념¹⁸⁾

- 순례지는 “많은 신자가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으로 자주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함. 성역·성지·거룩한 장소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나, 가톨릭 교회법은 순례지를 ‘성소’(Sanctuary)로 말함. 순례지는 성소를 포함하는 더 넓은 표현이지만, 모든 순례지가 법적 의미의 성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 교회법상 요구되는 순례지의 특징은 ‘첫째, 봉헌 또는 축복된 거룩한 장소일 것, 둘째, 신자가 특별한 신심에 따라 빈번히 순례할 것, 셋째,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임. 일반 성당과 달리 순례지는 특정 신심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신자의 집합적 신앙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됨
- 교구 순례지는 교구 직권자의 승인으로 설정되고, 국가적 순례지는 주교회의의 승인, 국제적 순례지는 사도좌의 승인을 통해 공인됨(교회법 1231조). 아울러 순례지는 반드시 정관을 관할권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함(1232조)
- 정관에는 설립 목적, 책임자(담임)의 권위,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식 등 운영의 기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순례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내부 갈등을 예방하며 영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교황청에서 지정하는 공식 순례지는 크게 교회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장소, 성모 발현 또는 성모 관련 성지, 신자에게 존경받고 사후에도 그를 추모하여 자주 찾는 성인의 순교지나 탄생지 등 세 종류로 나뉨
 - 그리스도 탄생, 사역, 수난, 부활 장소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호수가, 성모 발현과 관련해 프랑스 루르드, 포르투갈 파티마, 멕시코 과달루페, 그리스도 사도의 유해 안치 장소로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등이 있음

18) 가톨릭 길라잡이(<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 참조

■ 국제순례지 지정 절차와 방법¹⁹⁾

- 서울대교구는 바티칸의 새복음화촉진평의회로부터 ‘서울순례길’을 국제순례지로 승인 받기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하여 5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고, 뒤이어 ‘해미무명순교자순례지’가 2020년 11월 국제성지로 선포됨
- 교황청은 국제순례지 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기에, 이미 승인받은 두 국제순례지의 추진 경과를 조사하여 접근하고, 더불어 국제순례지를 관리하는 교황청의 새복음화평의회의 역할을 살펴봄

[표 5-6] 국내 국제순례지의 지정 과정: 서울순례길, 해미무명순교자순례길

서울 순례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례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규명, 학술행사 통해 자료 축적, 유적지 안내물 제작 • 순례길 대상지를 4가지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교성지(순교터): 교회법에 의거한 규정을 담은 정관 마련, 담당 사제 임명 -성지(순교자 시신 관련 장소): 교회법에 의거한 규정이 없는 정관, 순교자현양회 구성 -성지성당(순교자 유해 안치 성당): 성지 정관과 유사, 운영위원회 또는 현양회 구성 -교회 사적지(순례 권장 장소): 정관은 없고 해설만 존재, 위원회나 현양회 없음 -정관 구성: 명칭과 소재지, 유래와 조성 과정, 목적, 활동, 담당 사제의 권한과 사목 활동, 관리자와 직원, 순교자현양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총회와 회계 및 감사, 건축과 자산 관리, 재산과 재정 지원, 잠정적 규정 등 -2013년부터 순례길 조직, 2015년 성지 정관 정비 -2018년 한국주교회의 의장과 동 회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 사목위원회 회장의 공동명의로 승격 신청 공식 서한 * 서울순례길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성지라고 강조하여 국제순례지 지정 요청 -2018년 서울대교구장 명의 서한에서 2013년부터 조직한 서울순례길의 역사적 중요성으로서 230년 이상 천주교의 종교 및 문화유산을 지켜온 사실을 피력 -2018년 9월 교황청 새복음화평의회 의장이 교황청 특사로 방한, 국제순례지 선포식 거행
해미무명 순교자 순례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대전교구장 명의 서한으로 ‘내포의 순례길들’의 국제순례지 지정 요청 • 대전교구장 서한에 대한 답으로 2020년 새복음화평의회에서 승인 관련 자료 3가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교 공포 순례지 설립 교령과 관련 정관 -지난 5년 간의 순례지(해미읍성 및 해미 순례지) 방문객 통계 -한국주교회의 의장 의견서 서한(서울 관구장 추천서 추가) • 2020년 ‘해미 무명순교자 성지’라는 이름으로 대전교구장 인준 교령을 통해 교구 공식 순례지로 선포 -교회법 제1233조에 순례지는 장소와 환경, 순례자 수, 특히 신자에게 미치는 유익함을 고

19) 천주교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18). 천주교 서울순례길(www.haemi.or.kr), 권영명. (2022).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받는 과정에 대한 고찰. 제9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참조하여 재구성함

	<p>려해 특전을 부여한다고 규정. 위의 규정을 고려해 대전교구는 서산시청 문화관광과와 협력해 해미읍성 및 해미 순례지 방문객 공식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회의 의장 서한으로 해미 순례지의 역할이 국내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을 설명하고, 추기경 추천서 첨부 -추가 자료로서 순례지 설명 : 역사와 사진, 고유한 영적 가치, 교구 내 다른 순례지와 관계, 관련 진행 프로젝트 • 2020년 교구장 공식 요청 서한에 답하여 동년, 11월 승인 인준 교령을 공포하면서, 최종 승인 전에 순례지 정관을 적절히 개정하도록 권고 -정관에는 명칭, 순례지의 본부와 순례길 경로, 목적, 전례와 성사, 도보순례 행사, 유물과 기억의 보존과 전시, 관리자, 직원, 건축,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재정과 자원 등을 규정
--	--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순례지 관련 권한을 성직자성에서 새복음화평의회로 이관하면서 국제순례지와 관련한 역할을 담당함

[표 5-7] 새복음화평의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순례지를 조성하고 교회법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정관을 승인 • 순례지의 복음화 역량과 대중 신심을 증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 • 유기적인 순례지 사목을 촉진하여 새복음화의 원동력을 증진 • 대중 신심과 순례에 관한 사목 쇄신에 공동 참여하도록 국가적, 국제적 모임 장려 • 순례지와 신심, 경배의 장소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 교육을 증진 • 순례자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적 도움을 받아, 개개인이 큰 열매를 얻도록 감독 • 복음화 활동의 특별한 방식인 '아름다움의 길'을 따라 순례지의 문화와 예술을 드높임
--

■ 국제순례지 지정의 핵심 요소

- 국제순례지 승인은 국제순례지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 교구장이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선포한 순례지의 정관을 대상으로 함

[표 5-8] 국제순례지 지정의 핵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주교회의 의장의 추천과 교구장의 승인 요청이 필수이고, 덧붙여 관련 주교와 추기경의 추천 • 보편가치 지향하는 천주교 역사의 현장: 예수 관련 장소, 성모마리아 발현지, 순교지나 묘소 등 • 순례지 유래와 조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연구 자료와 상시적 전례와 신앙 프로그램 운영 • 대규모 방문객,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많고, 민중 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자료와 활발한 활동 • 독자적 가치보다 지역·국경을 넘어 다른 순례지와 연대하여 가치·역할을 증진하는 기존 활동 및 계획 • 교황과 교황청 순례지 담당 부서는 비신자인 일반인을 잠재적 선교 대상으로 인식해 일관되게 순례단과 일반 방문객 모두를 환대해야 한다고 촉구 • 접근성: 교통망, 숙박·편의시설, 안내 인프라, 안전한 시설과 체계 구축 • 외국인 순례자 수용체계: 다국어 안내, 국제적인 홍보와 운영 역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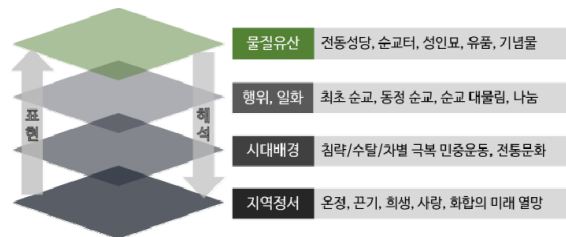
2) 한국 민중의 전통문화와 천주교의 순교

■ 한국 천주교의 전파와 수용

- 1780년 권철신 등 학자들이 천진암에서 강학회를 열고, 명례방 살던 통역관 김범우가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정약전·권일신 등과 함께 이벽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이 이루어짐
- 이후 서울뿐 아니라 경기·충청·호남 등지로 전교 활동이 확산되어, 권일신은 전주에서 유향검을 입교시키고, 이존창은 내포 지역에서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천주교 신앙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림. 1785년 형조에서 김범우의 집회 사건으로 첫 박해(을사박해)가 일어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
- 조선교회는 1811년부터 교황청에 선교사 파견을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며, 1831년 교황청은 조선을 교황직할 대목구로 설정하고 브뤼기에르 신부를 조선대목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생적으로 형성된 조선교회가 공식적으로 세계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됨
- 이와 같이 한국의 천주교회는 서양 선교사의 직접적인 전교나 도움 없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창설됨으로써 세계 교회사상 유례없는 자국민 주도의 복음 수용 역사를 만들었음. 이러한 역사는 한국천주교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자가 오랜 학문적 탐구와 비판을 거쳐 천주교 신앙을 깨우치고, 일반 민중이 이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신앙의 자생적 확산이 이루어짐. 일부 선각자와 다수의 대중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전히 우리 스스로 힘으로 신앙공동체를 발족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종교운동의 전형을 보여줌
- 그들의 신앙은 현실도피나 구복적 기원, 지식 과시의 수단이 아닌, 일상에서 참되고 고귀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신앙인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음. 또한 신분·학식·연령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일한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평등하고 공동체적인 신앙 문화를 형성함

■ 한국천주교 신앙 선조의 참다운 삶과 정신

- 조선 말 당파싸움과 세도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역적 편견과 차별이 심해졌음. 특히 최대 곡창지대였던 호남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토대였음에도, 오히려 수탈과 차별이 집중된 지역이었음. 넓은 평야는 인구 밀집과 생활 안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조선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탓에 민중의 비율이 유독 높았음
- 이러한 사회에서 민중은 공동체 기반의 생활과 상호 협력의 삶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강한 동질 의식과 연대 의식이 형성되었음. 호남 민중의 전통적 정서는 온정, 조화, 배려, 여유, 끈기, 자연 친화, 탐미 등으로 나타나며 일상에서 폭넓게 구현되었음
- 한국천주교 신앙 선조는 이러한 민중 정서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이었으며, 억압과 고통, 차별에도 굴복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품고 어깨를 맞대어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음. 그들은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해학과 기지를 잃지 않았고, 나눔과 사랑, 화합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음



[그림 5-7] 천주교 순교의 정신과 의미

3) 천주교 전주교구의 순교²⁰⁾

■ 한국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은 전라도 진산 장구동의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나 총명하

20) 김진소 (1987). 신바람 사는 보람. 한국교회사연구소; 김진소. (1998). 전통성당 100년사. 천주교 전주교구 전통교회; 김진소. (1998). 천주교 전주교구사1. 천주교 전주교구; 김진소. (2002).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 호남교회사연구소; 정두희 외. (2003).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호남교회사연구소; 김진소 외. (2007). 한국사회와 천주교. 김진소 신부 고회기념논총; 이영춘. (2021). 어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 있었습니까. 천주교 전주교구; 이영춘 외. (2021). 최초 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역사 재조명을 위한 과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이영춘. (2023). 한국 천주교 역사. 호남교회사연구소 등 참조함

고 학문에 뛰어나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함. 그의 동생 윤지현(프란치스코)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함

- 윤지충은 고종사촌인 정약용 형제를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고, 약 3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여 1787년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음. 이후 어머니와 동생, 외종사촌 권상연(야고보)에게 교리를 가르쳐 신앙을 전하였으며, 인척 유헌검(아우구스티노)과 교류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함
- 권상연(權尙然, 1751~1791)은 진산의 학자 집안 출신으로 학문에 힘쓰다 윤지충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1787년경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함
-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주교가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조상 신주를 없애고, 이듬해 윤지충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 예절로 장례를 진행함
-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정은 큰 소동에 휩싸였고, 윤지충과 권상연의 체포령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짐. 체포령 소식을 들은 윤지충은 충청도 광천, 권상연은 충청도 한산으로 피신하였으나 숙부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하여 진산 관아에 출두함. 진산 군수는 회유와 설득으로 배교를 권했으나, 두 사람은 “천주교는 진리이며 결코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부하였음
- 그들은 전주 감영으로 이송되어 전라 감사의 문초를 받았으나, 신자 명단을 밝히거나 교우에게 해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음. 윤지충은 천주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제사의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감사가 분노하여 혹독한 형벌을 가했음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음
- 그들은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그분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참된 흠송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조상 제사보다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선택함. 전라 감사는 최후 진술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두 사람의 처형을 명함
-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 전주 남문 밖에서 윤지충(32세)과 권상연(40세)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참수형을 받음. 윤지충은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기쁜

얼굴로 옥을 나서며 따라오는 이들에게 교리를 전했고, 순교 후 아홉 날 만에 가족들이 시신을 거두었음

-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한국천주교 최초의 공식 순교로 기록되며, 단순한 제도 저항이 아니라, 하느님을 '참된 부모'로 모시고 신앙을 최상의 가치로 실천한 자발적 신앙 실천의 표본으로 평가됨. 북경의 구베아(Gouvea) 주교는 1797년 사천대리감목인 디디에르(Didier)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순교 사건을 상세하게 언급함

조선교회에서는 지난 1790년 여러 의문사항을 보내왔는데, 그 중 조상의 신주를 만들어 모셔도 되는지, 또한 이미 모시고 있는 조상들의 신주를 계속 모셔도 되는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사목 서한을 통해 교황청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것을 비롯한 여러 의식들을 미신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네 나라의 관습이나 풍습을 끊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종교를 저버리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신주를 계속 모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조상들의 신주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이 조상의 신주가 없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화를 낼 때에도 형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된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죽은 사람들을 그릇된 중요 의식으로 섬기는 일을 한데 섞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조상의 신주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신주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윤민구. (2000).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 사대부이자 유학자였던 윤지충이 과감히 제사를 폐지한 논거로, 그는 무엇보다도 조상 제사 의례를 단지 유교문화의 소산으로 파악함. 또한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제사의 근본정신만 지킨다면 그 표현형식인 의례는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고 확신함. 윤지충은 유교의 상례와 제례 의식은 모든 인간이 준수해야 할 법규가 아니라 유교를 받드는 몇몇 양반에게만 의무 지워진 관례라고 판단함
- 조선은 17세기에 와서 주자가례에 따라 예법이 엄격해지고 조상제사가 신앙의 대상이 됨으로써 제사의 근본정신을 잃고 허례허식에 빠짐. 반면 백성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윤지충 등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이 당대의 축적된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천주교 의례를 선택함
- 이렇듯 윤지충은 사회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는 한편 지배자의 문화에서 벗어나 백성의 편에 서서 인간 평등을 추구한 선구자임

■ 전주교 전주교구의 시작과 호남의 사도 유향검

-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에서 태어난 유향검은 전라도의 첫 번째 천주교 신자이자 덕망 높은 대부호로서, 1784년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천주교에 입교함. 전라도 지역의 복음 전파를 맡은 그는 자기 가족과 친척, 마름과 노비는 물론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과 식솔에게 전교했고, 고창과 전남 영광까지 선교 영역을 넓혀갔으며, 중국에서 주문모 신부를 모셔 올 정도로 열성적이었음
- 유향검은 천주의 가르침에 따라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형제애로 따듯이 대했으며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그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아 대거 입교하였다고 전해짐
- 전라도 신앙공동체는 민중교회의 성격을 띠면서 출발했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체포된 2백여 명 대부분이 유향검이 전교한 사람임. 그가 거느린 가족(家屬) 중 천주교에 연루되어 가정교사 1명, 마름 4명, 노(奴) 4명, 비부(卑父) 7명, 비(婢) 3명, 작인(作人) 2명이 처형당했고, 노비 13명, 마름 4명, 작인 1명이 유배됨
- 1801년 주문모 신부와 유향검, 윤지현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와 반향을 일으키는 데, 이들은 중국 북경의 주교에게 서양 군대의 조선 출병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체포됨(대박청원 사건). 대박청원 사건으로 유향검과 윤지현은 대역 모반죄로 몰려 1801년 9월 17일 전주 남문 밖에서 사지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주 신부는 외국인이지만 역시 대역 모반죄로 목을 베는 형벌을 당함
- 같은 해 10월 9일에는 큰아들 유증철과 둘째 아들 유문철이 순교하고, 12월 28일에는 유향검의 처 신희와 제수 이육희, 며느리 이순이와 조카 유증성이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 치명됨. 유향검 일가에 의한 순교신앙의 대물림이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족 중 살아남은 이는 오로지 노모와 형수(익검의 처), 출가한 딸뿐이었음
- 유향검 등 시신은 노복과 친지가 거두었는데, 하얀 사발에 각각 이름을 적어 초남이 근처 바우배기에 임시로 묻은 뒤, 1914년 전동성당 보두네 신부와 신자들이 이들 7명을 치명자산의 합장묘에 안장함. 합장 묘지에는 1949년 대형 십자가를 세우고, 1984

년 지방기념물 6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묘지 앞에 제대를 세우고, 그 아래에 성당을 건립함

■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이자 ‘동방의 진주’, 유중철과 이순이

- 유항검의 장남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는 기록이 증명하는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임. 유중철 부부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결혼 4년 동안 동정을 지키다가 처형되었음. 당시 유중철의 나이는 23세, 이순이 나이는 20세이었음
- 주문모 신부가 중국에서 들어와 호남지역 전교에 나서 유항검의 집에 머물던 중 유중철이 주 신부에게 동정으로 살겠다는 뜻을 밝힘
- 이순이는 서울 출신으로 유명 양반가인 지봉 이수광 집안의 자손이었으며, 천주교에 귀의한 아버지로 인해 유아세례를 받아 어머니와 함께 깊은 신앙심 견지함. 14세 때 주문모 신부로부터 영성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고자 동정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이를 주 신부에게 알림
- 당시 양반가의 처녀가 혼인하지 않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주문모 신부는 양가의 부모와 상의해 유중철과 이순이, 두 젊은이의 혼인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되 오누이처럼 지낼 것을 양가 부모 앞에 맹세함
- 이순이는 온화함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고 유중철은 대부호의 장남이면서도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는 성실한 젊은이로서, 두 사람은 동정을 서약했지만 마음속 깊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함. 혈기 방장한 젊은이가 4년을 함께 살면서 동정서약 파기의 갈등과 위기가 있었으며, 다음의 편지에서 그 심증을 헤아릴 수 있음

전주로 시집온 후 그 전부터 항상 근심하던 일을 이루었어요. 9월에 시댁에 와서 10월에 우리 두 사람은 동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4년을 오누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 육체적인 유혹을 십여 차례 받아 하마터면 동정서약을 깰 뻔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피 흘리신 사랑에 의지하여 무사히 그 유혹을 이겨냈답니다. 제 사정을 몰라 답답하게 여기실 것 같아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편지를 살아있는 저를 보듯이 반겨 주셔요.

(이순이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중)

- 유중철은 대역죄인의 아들 중 16세를 넘긴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에 따라 이순이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 1801년 신유박해를 맞아 이순이는 유항검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노비로 전락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신자임을 밝히고 죽기를 청하여 참형을 당함

- 훗날 다블뤼 주교는 “조선의 모든 순교자 중에서 우뚝 솟은 하나의 진주 정화”라며, 그녀의 순교 자세를 찬탄했고, 치명자산은 자주 ‘루갈다산’으로 불림

■ 한국천주교 시복시성과 전주교구 순교자

- 파리외방전교회가 청원하여 맞이한 1984년 시성식에 따른 103위 성인에 앞서 순교한 순교자가 아직 시복시성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천주교회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초기 순교자 125위의 시복시성을 위한 수많은 열망과 노력이 이어짐
-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순교 사실 및 평판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영웅적인 덕행을 조사함. 2003년 “윤지충과 동료 123위”의 시복 심사에 대해 교황으로부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통보받아 역사전문가 위원들이 순교자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함
- 이후 총 36회에 걸친 법정을 열어 예비 심사를 마무리 지은 한국천주교회는 2009년 교황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등 125위에 대한 시복 청원함
- 최종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이들의 시복을 선포하고, 같은 해 8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접 시복식을 주례하였음
- 윤지충은 조선 왕조 치하에서 공식적으로 처형된 최초의 순교자이기에 124위를 대표하는 표제 성인이 됨. 124위 가운데 첫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비롯해 무려 24위가 전주교구에서 순교하여 전주교구는 38위의 순교자를 낳은 서울대교구 다음으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함
- 124위 중 전주교구는 신해박해(1791)에 2위, 신유박해(1801)에 9위, 정해박해(1827)에 1위, 기해박해(1839)에 12위의 순교자를 낳아, 1888년까지의 오랜 박해의 역사에서 주로 전기 순교자가 시복 대상의 중심을 이룸

- 전주교구 순교자 24위 중 22위가 전동성당과 초록바위, 숲정이 등 전주 도심에서 순교하였으므로, 전주는 말 그대로 한국천주교 순교 역사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음

[표 5-9] 전주교구 순교자 '하느님의 종' 24위

구분	성명	세례명	순교			신분	출생	
			형식	장소	일자		장소	연도
1	윤지충	바오로	참수	전주	1791. 12. 8	양반	전라 진산	1759
2	권상연	야고보	참수	전주	1791. 12. 8	양반	전라 진산	1751
3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참수	김제	1801. 8. 26	양반	전라 김제	1756
4	김천애	안드레아	참수	전주	1801. 8. 27(28)	천민		1760
5	최여검	마티아	참수	무장	1801. 8. 27	양반	전라 무장	1763
6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능지처참	전주	1801. 10. 24	양반	전라 전주	1756
7	윤지현	프란치스코	능지처참	전주	1801. 10. 24	양반	전라 진산	1764
8	유중철	요한	교수	전주	1801. 11. 14	양반	전라 전주	1779
9	유문석	요한	교수	전주	1801. 11. 14	양반	전라 전주	1784
10	이순이	누갈다	참수	전주	1802. 1. 31	양반	한양	1782
11	유중성	마태오	참수	전주	1802. 1. 31	양반	전라 전주	
12	이경언	바오로	옥사	전주	1827. 6. 27	양반	한양	1792
13	이일언	옴	참수	전주	1839. 5. 29		충청 홍주	1767
14	신태보	베드로	참수	전주	1839. 5. 29		경기도	
15	이태권	베드로	참수	전주	1839. 5. 29	양인	충청 홍주	1782
16	정태봉	바오로	참수	전주	1839. 5. 29		충청 덕산	1796
17	김대권	베드로	참수	전주	1839. 5. 29		충청 청양	
18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옥사	전주	1839. 10월경	양인	충청 덕산	1789
19	심조이	바르바라	옥사	전주	1839. 11. 11	양반	경기 인천	1813
20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교수	전주	1839. 12. 5(6)	양인		1827
21	홍재영	프로타시오	참수	전주	1840. 1. 4	양반	충청 예산	1780
22	최조이	바르바라	참수	전주	1840. 1. 4	양반	경기 여주	1790
23	이조이	막달레나	참수	전주	1840. 1. 4	과부		1808
24	오종례	야고보	참수	전주	1840. 1. 4	양반	충청 은진	1821

- 1984년에 시성된 103위는 2014년 시복된 하느님의 종 124위에 비해 대체로 뒤늦게 순교하였는데, 전주교구에서는 정문호, 조화서, 손선지, 이명서, 한재권, 정원지, 조운호 일곱 분이 모두 병인(1866)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하였음

[표 5-10] 103위 성인 중 전주교구 순교자 7위

구 분	성명	세례명	순교			신분	출생	
			형식	장소	일자		장소	연도
1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참수	숲정이	1866. 12. 13	원님	충청	1800
2	조화서	베드로	참수	숲정이	1866. 12. 13	농부	수원	1814
3	손선지	베드로	참수	숲정이	1866. 12. 13	회장	충청	1819
4	이명서	베드로	참수	숲정이	1866. 12. 13	농부	충청	1820
5	한재권	요셉	참수	숲정이	1866. 12. 13	회장	충청	1836
6	정원지	베드로	참수	숲정이	1866. 12. 13	농부	충청	1846
7	조윤희	요셉	장사	서천교	1866. 12. 23	농부	충청	1848

- 순교성지로서 전주교구가 지닌 높은 위상은 일찍부터 국내외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기념일을 전주교구와 연고가 있는 날짜로 정하는 데 모든 교구가 전적으로 동의함
- 시복 기념일로는 윤지충의 순교일인 12월 8일을 검토했으나, 이날이 한국교회의 수호자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겹치기에 124위 중 5위의 순교자가 전주숲정에서 순교한 5월 29일을 기념 축일로 정함

■ 한국천주교 최초의 자치교구

- 전주 제2대 지목구장인 주재용 신부는 전주교구의 자랑으로 특별한 신앙의 역사 4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한국천주교 최초 순교자가 탄생하고 순교한 고장이며, 둘째 조선 순교자 중 진주로 추앙받는 동정부부 순교자를 낳았고, 셋째는 한국천주교 역사상 12세가 넘지 않은 최연소 순교자 이봉금, 끝으로 순교 역사의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지정된 사실임
- 한국천주교회의의 교구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1911년 조선대목구에서 대구대목구가 분리되고 거기에 전라도 지역이 속하였는데, 당시 전라도 전체에 걸쳐 7개의 성당과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5명을 비롯해 7명의 신부가 있었음
- 1931년 전주를 중심으로 감목대리구가 설정되고, 1937년 전주감목대리구를 지목구로 승격하여 대구대목구에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전주교구가 출범함. 김양홍 신부가 한

국인 사제로는 최초의 교구장이 되고, 전주교구는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행정을 전적으로 한국인이 맡아보는 자치교구가 됨

■ 첫 순교자 유해 발굴과 진정성 확인

- 2021년 9월 1일 전주교구는 한국교회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신유박해 순교자인 윤지현의 유해 발견 사실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들이 순교한 지 220~2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임
- 초남이성지 측은 2021년 3월 11일 국유지인 바우배기의 매입을 진행하면서 대상지 내 무연고 분묘 10기를 개장하였고, 개장 작업 중 순교자의 이름이 담긴 백자사발지석(白瓷沙鉢誌石)을 발견함
- 호남교회사연구소를 비롯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해 먼저 묘소의 정밀 조사와 유물 연구를 수행함. 단순히 기록이나 주장에만 의존한 추정이 아니라, 교회사학과 고고학, 의학,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함
- 무덤 출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한 1791년경에 해당했고, 백자사발지석의 명문 내용도 각각 윤지충과 권상연의 인적사항과 일치함
- 유해의 해부학적 조사 과정에서 윤지충의 유해 다섯 번째 목뼈에서는 참수로 인한 손상을 발견함. 1기의 유해에서 능지처참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 유해가 윤지충의 유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통해 윤지현의 유해임을 밝힘
- 조사 결과 유해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고, 연령 역시 순교 당시의 나이와 부합했으며, 키는 윤지충 165.2cm, 권상연 152.5cm, 윤지현 163.9cm가량으로 추정함. Y염색체 부계확인 검사에서 윤지충과 윤지현의 유해는 해남 윤씨 친족 남성 5명과, 권상연의 유해는 안동 권씨 친족 남성 5명의 유전정보와 일치함

4) 천주교 전주교구의 성지²¹⁾

■ 전동성당

- 한국천주교 최초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가 신해박해(1791)때 순교한 장소에 세워진 성당이며, 또한 신유박해(1801)때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동료들이 순교한 자리이기도 함
- 초대 주임 보두네(Baudounet) 신부가 1914년에 이 순교지에 성전을 건립함. 설계는 서울 명동성당 내부를 건축한 프와넬(Poisnel) 신부가 담당하였으며, 주춧돌은 첫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전주부성 성벽의 돌을 사용함. 5,000평 대지에 건평 193평 규모로 조성하였고, 중국인 벽돌공 100여 명을 동원하여 전주부성 흙으로 벽돌을 구웠으며 석재는 전북 익산 황등산의 화강석, 목재는 치명자산을 매입·벌목하여 사용함
- 성전은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서 종교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됨. 전형적인 장방형 평면에 회색과 적색 벽돌로 외벽과 반원형 아치창을 구성하고, 내부에는 아치로 연결된 8각 석조 기둥을 줄지어 세워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색을 잘 나타냄
- 중앙 종탑과 양쪽 계단에는 비잔틴식 둥근 돔을 올리고 내부 석조 기둥에도 비잔틴 요소를 가미하여, 한국교회 건축 가운데 곡선미가 아름답고 섬세한 건물로 손꼽힘
- 전동성당은 1957년까지 주교좌 성당으로 사용되어 지역교회 중심지 역할을 함. 이후에도 순교 성지의 상징성을 유지하며 보존·활용되어 왔고, 1981년 국가사적 제288호로 지정됨
- 전동성당은 순교 성지 위에 세워진 역사성과 서양식 건축미를 겸비한 대표적 성당으로서 한국 근대 건축과 가톨릭 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를 지님

21) 김진소. (1998). 천주교 전주교구사1. 천주교 전주교구; 신앙문화해설사회. (2023). 전주교구 성지 해설. 호남교회사연구소; 이영춘. (2023). 한국 천주교 역사. 호남교회사연구소; 유영윤. (2024). 전주교구복자약전·자료집.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해설사회 참조하여 재구성함

■ 전라감영

-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에 설치되어 전라(제주 포함)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사법·군사·교육·문화의 중심이었음. 감영은 조선의 지방 통치 체계를 대표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호남지역의 정치적·문화적 구심점으로 기능하였음
- 천주교 박해 시기에는 감영 소속 전주옥, 전주부영, 중진영, 중군 등에서 관찰사의 명에 따라 신자들이 감금, 심문, 고문, 사형 등의 탄압을 받았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자가 “천만번 목숨을 바친다 해도 결코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신앙을 증언하며 순교하여 전라감영 일대는 한국 천주교 순교사의 주요 현장으로 기록되었음
- 1791년 신해박해의 윤지충·권상연을 시작으로 1801년 신유박해, 1827년 정해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순교자가 사형을 받았음

■ 전주옥순교지

-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각 지역에서 체포된 천주교 신자들이 전라감영의 감옥인 전주옥에 수감되어 심문과 고문을 당하며 순교하였음. 전주옥은 호남 지역 천주교 박해의 주요 현장으로, 조선 후기 신앙 탄압의 상징적 장소로 기록되었음
- 신유박해(1801) 때 유증철과 그의 동생 유문석이 전주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정해박해(1827)에는 240여 명의 신자들이 감금되어 문초를 받았고, 이순이의 동생 이경언이 옥사하였음. 기해박해(1839) 때에는 김조이와 그녀의 딸 이봉금(만 12세 미만), 그리고 심조이 등 세 여성이 신앙을 증언하며 순교하였음
- 또한 이일언, 신태보, 이태권, 정태봉, 김대권 등은 정해박해 때부터 12년간 전주옥에 수감된 뒤, 기해박해 당시 전주 숲정이성지에서 순교하였음. 이들은 옥중에서도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신앙을 이어가며 신앙공동체의 모범을 남겼음

■ 전주숲정이성지

- 전주숲정이성지는 울창한 인공 숲과 전주천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군사

훈련장과 함께 사형장으로 활용되었음. 이곳은 전주 감영과 함께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주요 현장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언하며 생을 마친 역사적 장소임

- 신유박해(1801) 때 유항검의 부인 신희, 제수 이육희, 며느리 이순이, 조카 유중성이 이곳에서 처형되었으며, 기해박해(1839)에는 복자 이일언, 신태보, 이태권, 정태봉, 김대권 등 5위가 순교하였음. 병인박해(1866) 때에는 성인 정문호, 손선지, 한재권, 조화서, 이명서, 정원지 등 6위가 처형되었음
- 숲정이성지는 천주교 박해 전 시기에 걸쳐 복자 9위와 성인 6위를 배출한 순교 성지로, 한국 천주교 신앙사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함. 이 지역은 신앙의 증거와 희생의 역사로서 전주 지역 천주교 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
- 성지의 대지는 이명서 성인의 손자 이준명과 전동성당 이학수 회장의 노력으로 매입되어 1935년 십자가비가 세워졌음. 이후 1960년 전주해성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84년 성지가 전북 기념물 제71호로 지정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공인받았음. 1992년 해성학교가 삼천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성지는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더욱 강화한 순례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 범바위

- 범바위는 병인박해(1866) 당시 전주숲정이성지에서 순교한 여섯 성인의 시신이 임시로 매장되었던 장소로, 한국 천주교 순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지임. 당시 완주군 소양면 일대에는 1840년경부터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던 향리 오사현이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등 헌신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음
- 1866년 12월 13일 소양 교우촌의 여러 신자가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하자, 오사현의 아들 오순보가 포졸들의 양해를 얻어 순교자들의 머리를 각자의 몸에 맞추어 거적으로 덮어주는 등 신앙적 예우를 다하였음. 이후 오사현은 일꾼 열두 명을 고용해 순교자들의 시신을 진북사 아래 도랑가에 임시 매장하였음
- 1867년 3월에는 순교자 정문호, 손선지, 한재권의 가족이 세 분의 시신을 천호 다리

실로 이장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조화서, 이명서, 정원지의 가족이 나머지 세 분을 소양 유상리 막고개로 옮겨 모셨음. 이러한 행위는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 의식과 순교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범바위에 임시 매장되었던 여섯 성인은 1984년 교황청에 의해 시성되어 성인으로 공인되었으며, 천호성지로 옮겨 안치되었음. 2024년에는 범바위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적 의미와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신앙 유적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였음

■ 서천교순교터

- 서천교순교터는 병인박해(1866) 당시 조윤호 성인이 순교한 성지로, 1866년 12월 18일 그가 신앙을 증언하며 순교함으로써 조선 후기 천주교 신앙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기록되었음. 조윤호 성인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성지동 출신으로, 아버지 조화서 성인과 함께 박해 중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된 후 심문을 받았음
- 조선시대 형법에 따라 부자(父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칼로 처형할 수 없었기에 먼저 아버지 조화서가 참수형을 당하고 며칠 뒤 조윤호가 모진 고문과 매질 후 교수형을 당하였음. 조윤호 성인은 신앙의 굳건함을 끝까지 증언하며 순교함으로써 부친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 계승의 상징적 인물로 남았음
- 조윤호 성인의 가문은 이미 1839년 조부 안드레아가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던바, 3대에 걸친 순교의 가문으로서 천주교 역사에서 드문 신앙의 모범을 보였음. 이 가문은 세대를 이어 신앙을 실천하며,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희생의 정신을 전하였음
- 조윤호 성인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한국 순교성인의 한 사람으로 시성되었으며, 2006년 천주교 전주교구는 서천교순교터 인근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모자이크 벽화를 조성함

■ 초록바위순교터

- 초록바위순교터는 병인박해(1866) 당시 남명희와 홍봉주의 아들이 순교한 성지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비극과 신앙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장소임. 1866년 3월 7일 남종삼 성인과 홍봉주가 모반죄로 서소문에서 참수된 이후, 의금부는 그들의 가족을

연좌형으로 처벌하여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홍봉주의 아들을 체포하였음

- 체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14세로 법정 사형 연령에 미달하였으나, 1년간의 가혹한 옥살이를 강요받은 뒤 성년이 된 15세에 이르러 초록바위에서 사형이 집행됨. 이들의 순교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앙 탄압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어린 나이에도 신앙을 굳게 지킨 순교 정신이 높이 평가됨
- 남명희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한국 순교성인의 한 사람으로 시성되었으며, 아버지 남종삼과 함께 부자 순교의 신앙적 유산을 남겼음. 또한 홍봉주의 아들은 조부 홍재영과 부친 홍봉주에 이어 3대에 걸친 순교 가문의 일원으로, 신앙을 위해 생을 바친 가문으로 기록됨
- 천주교 전주교구는 2006년 초록바위순교터 인근에 남명희와 홍봉주의 아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모자이크 벽화를 세워 이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념함으로써 초록바위순교터를 지역 내 대표적인 순교 성지로 조성함

■ 치명자산성지

- 예로부터 승암산(중바위산)으로 불리던 이곳은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히면서 치명자산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 이곳은 호남 지역 천주교 신앙의 근원지이자,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대표적 성지임
- 호남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한 유항검은 신유박해(1801) 때 대역죄인으로 몰려 처형되었으며, 부인 신희, 큰아들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 둘째 아들 유문석,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 등 가족 7위가 함께 순교하였음. 이후 살아남은 노복과 친지들이 이들의 시신을 유항검의 고향 근처 초남이 바우배기에 은밀히 가매장함
- 1914년 전동성당의 보두네(Baudounet) 신부와 신도들이 일곱 순교자의 시신을 현재의 치명자산으로 옮겨 합장하였으며,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고 전주 지역을 수호해 주기를 기원하며 해발 300미터 산정에 봉안함
- 1984년 순교자 묘가 전북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었고, 1994년에는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묘 아래에 기념성당이 건립되었음. 또한 2014년에는 유항검, 유중철, 이순

이, 유문석, 유증성 등 5위가 교황청에 의해 복자품에 오름

■ 초남이성지

- 초남이성지는 호남 지역 천주교의 신앙 발상지로, 유항검 가족의 생가가 있던 곳임. 그는 집 근처에 교리당을 세워 교리를 나누고 신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신분을 초월한 나눔과 형제애로 복음을 전파하여 지역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음. 이러한 활동은 호남 천주교 확산의 토대가 되었음
- 1795년 주문모 신부가 초남이를 방문해 성사를 집전하였고, 이곳에서 유증철과 이순이가 혼인 후 4년간 동정부부의 삶을 이어감.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 때 유항검이 전주 남문 밖에서 능지처참형을 당하고, 가족들이 연좌형으로 함께 처형되었음. 이후 7위 순교자의 유해는 바우배기에 매장되었다가 1914년 치명자산으로 이장됨
- 유항검의 생가는 박해 당시 파가저택형 처벌로 집터가 파헤쳐져 웅덩이로 변하였으나, 2000년 생가터에 파가저택 웅덩이를 재현하고, 2003년 바우배기에 십자가를 세워 교리당과 사랑채를 복원하였음. 이어 2005년 야외 미사 집전소와 성체조배실, 2009년 경당, 2017년에는 ‘유항검 나눔의 집’을 건립하여 성지로서의 기반을 다짐
- 2021년 바우배기에서 신해박해(1791) 때의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권상연과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지현의 유해가 발굴되어 초남이성지 교리당에 안치되었으며, 바우배기 유해 발굴지는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5) 전북 순례길의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방안

■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대상 설정

- 전주교구청 순교현양원에서는 완주군 성지를 포함한 전주순교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데,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국제순례지 추진의 명확한 대상이 설정되어야 함

■ 국제순례지 지정 요소별 검토

- 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에서의 국제순례지 지정 핵심 요소별 현황을 파악함

[표 5-11] 국제순례지 지정 대상에 대한 핵심 요소별 검토 결과

국제순례지 지정 핵심 요소	검토 내용
보편가치 지향 천주교 역사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순교 지역이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묘소 등 순교 현장 다수 보유
순례지 유래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유행의 진정성에 관한 기록」을 포함, 순교자 및 성지에 대한 역사 고증 연구 다수
상시적 전례와 신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성당, 치명자산, 숲정이 등 주요 성지를 중심으로 역사 탐방과 신앙 체험을 결합한 '성지해움길' 같은 치유 순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례와 연계된 순례, 해설, 문화 체험이 활발
다수의 방문객, 특히 외국인 방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성당, 치명자산 등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이 방문
문화예술 분야의 활발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성당 미디어아트쇼 '2020 빛의 성당-미제레레', 세계종교문화축제(영화제, 전시회 등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 가톨릭미술가회 전시회 및 완주 남계리 유적 특별전 등 활발
지역·국경을 넘어 다른 순례지와 연대, 가치·역할 증진하는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종교와 연계된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운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의 연계 활동, 전주시와 한·아세안센터의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순례단과 일반 방문객 모두에 대한 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숲정이성지, 치명자산, 전동성당, 전라감영 등 많은 성지와 순교지에는 천주교 신도뿐 아니라 비신도 일반 방문객도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며, 특히 전동성당 등은 모두를 환대
접근성, 편리성, 안전·편의시설 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권 성지와 순교지는 대부분 주요 관광지로 접근성이 높고,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 체계가 갖춰졌으며, 한국 최초 순교자 묘소도 최근 정비 사업을 통해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
외국인 순례자 수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순례자에 대한 수용체계 부족. 2027 서울 WYD를 계기로 전북 순례길의 외국인 순례자 수용체계 구축 예정

■ 국제순례지 지정 기초조사 및 조성계획 연구

- 국제순례지 지정을 추진할 전북(전주) 순례길에 대하여 주요 요소별([표 5-8] 참조)로 기초 현황을 조사하고, 국제순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함
 - (기초조사 내용) 국제순례지 대상 성지 등에 대한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탁월한 가치, 역사적 고증에 관한 연구 목록과 주요 결과, 상시적 전례와 신앙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 실태, 방문객 방문 현황(특히 외국인), 문화예술과 주요 성지 등의 연계 활동,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와의 연계 및 연대 활동 또는 계획, 현대의 프로그램과 실태, 접근성 및 편리성 등 실태, 외국인 순례자 수용 실태 등
 - (조성계획 내용) 국제순례지 주요 코스(순례길), 순례길 정비 계획, 순례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계획, 순례지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순례지)와의 연대 계획, 재정 계획 등

■ 국제순례지 지정 절차 추진

- 주교 공포 전주 순례지 설립 교령과 관련 정관을 마련함. 새복음화평의회에서 승인 관련하여 요청할 자료를 준비함
 - △ 주교 공포 순례지 설립 교령과 관련 정관, △ 지난 5년 간의 순례지(해미읍성 및 해미 순례지) 방문객 통계, △ 한국주교회의 의장 의견서 서한
- 서울 및 충남 사례를 참조, 전주교구장 명의 서한으로 '전주의 순례길들'의 국제순례지 지정을 요청하고, 새복음화평의회에 승인 관련 요청 자료를 제공함
 - 국제순례지 신청에는 국가주교회의 의장 추천, 교구장 승인 요청, 주교와 추기경 추천 등 필수

■ 전북(전주) 국제순례지 명소화 사업 추진

- 국제순례지 지정 이후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함. 이를 위한 명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표 5-12]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안)

- (전략) 치유의 성지, 화합의 성지, 상생의 성지, 초월의 성지
- (사업) 치유·힐링 체험휴양 콘텐츠 개발,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조성, 3대 종교와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해미특화 관광상품 개발, 종교문화를 활용한 축제콘텐츠 개발, 해미국제성지 원형 복원, 해미역사공원 조성, 해미천 생태역사공원화 정비, 성지 편의시설 구축 및 정비,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 보강, 세계명소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협력사업, 지역주민 네트워크 확대, 해미국제성지의 브랜드화, 지역 관광상품 연계 통합마케팅 추진 등

다. K-순례 네트워크 구축

1)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준비된 자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극대화 가능

- 서울, 충남의 국제순례지, 현재 국제순례지를 추진하는 전북의 국가순례지 등 K-순례 네트워크에 필요한 ‘준비된 자산’이 있음
 - 서울 순례길: 24곳의 순교성지·교회사적지를 잇는 총 44.1km 도심 순례길. 2018년 9월 아시아 최초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선포
 - 충남 순례길: 충남도는 해미국제성지와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 일대에 140.5km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 중으로, 2023~2033년까지 총 1,250억 원 ‘한국의 산티아고’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임
 - 전북 순례길: ‘아름다운 순례길’은 전북도 차원에서 만든 9개 코스 총 240km로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 성지를 아우르는 종교융합형 순례길임
- 천주교 성지의 핵심 거점 지역별로 순례길이 조성되고 다양한 순례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이를 하나로 묶어 한국 전체를 관통하는 순례길, 순례문화를 아우르는 체계가 없음. 즉, K-순례길 네트워크는 흩어진 자산을 연결하는 과정임

■ 한국 천주교 역사의 ‘살아 있는 박물관’

- 서울-해미-전북은 자발적 복음 수용, 박해와 순교, 교우촌 신앙공동체라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함. 교황청 승인 국제성지(서울·해미)와 순교성지 밀집 지역(전북)을 하나의 순례길로 묶으면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뿌리를 더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됨
- 특히 각 지역의 순례길에는 천주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산이 산재해 있어 에코뮤지엄 개념의 살아 있는 박물관이 됨. 즉 K-순례길 네트워크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순례 프로그램 개발로 순례관광 활성화

- 서울-충남-전북을 잇는 순례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현재 순례 관광에 따른 체류 시

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음

- 국가 입장에서는 K-콘텐츠(드라마·음악) 중심의 관광 한계를 넘어, K-신앙·K-평화·K-생태를 묶은 새로운 고급형 인바운드 상품을 만들 수 있음

■ 2027 서울 WYD 유산으로서 K-순례길 네트워크

- WYD는 1주일짜리 행사가 아니라, 이후에도 남는 청년센터, 순례길, 도시 공간이 중요함. 서울-해마-전북 K-순례길 네트워크를 WYD 전·후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WYD 이후에도 국내·외 청년이 계속 찾는 ‘한국판 카미노’를 남기게 됨

2) 네트워크 구축 방향 및 프로그램(안)

■ ‘3대 권역 1개의 큰길’ 개념의 구성

- 서울-충남-전북을 잇는 하나의 대각선 축(예: 7~10일 코스)을 만들고, 각 권역 안에서는 1~2일짜리 세부 코스들을 운영하는 구조로 구상함
- 단순한 성지 나열이 아니라, 한 편의 긴 이야기로 풀어냄. 예를 들어, WYD 주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와 연결해 “두려움에서 용기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가는 길” 등 스토리를 만들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구사함

■ 공동 협의체 구성 및 공동계획 수립

- K-순례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함
 - 3개 권역(서울·충남·전북)의 기존 자료·노선·프로그램 조사
 - 통합 비전·목표·브랜드 전략·중장기 로드맵 수립
- 3개 지역의 순례길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사무국을 둠
 - K-순례길 추진협의회 구성, 실무 담당 공동 사무국(예: 서울+대전+전주교구 순교자현양위팀) 운영
 - K-순례길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서울·충남·전북의 관광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추진

■ 물리적 인프라·노선 정비 사업 추진

- K-순례길을 대표하는 대표 코스를 선정하고, 코스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함. 예를 들어, 서울 2~3코스, 충남 2~3코스, 전북 2~3코스를 K-순례길 대표 코스로 선정함
 - 올레길 코스별 분류처럼, K-순례길의 난이도·거리·테마 등을 표준 포맷으로 정리
 - K-순례길 로고·색상을 통일하고, 이를 준으로 표지판·안내판·휴식공간 정비
- K-순례길의 주요 코스 및 거점을 연계하는 교통 체계를 갖추. 서울-충남-전북을 잇는 KTX·버스 연계 안내, 구간별 셔틀버스·택시 정보, 주차장·집결지 확보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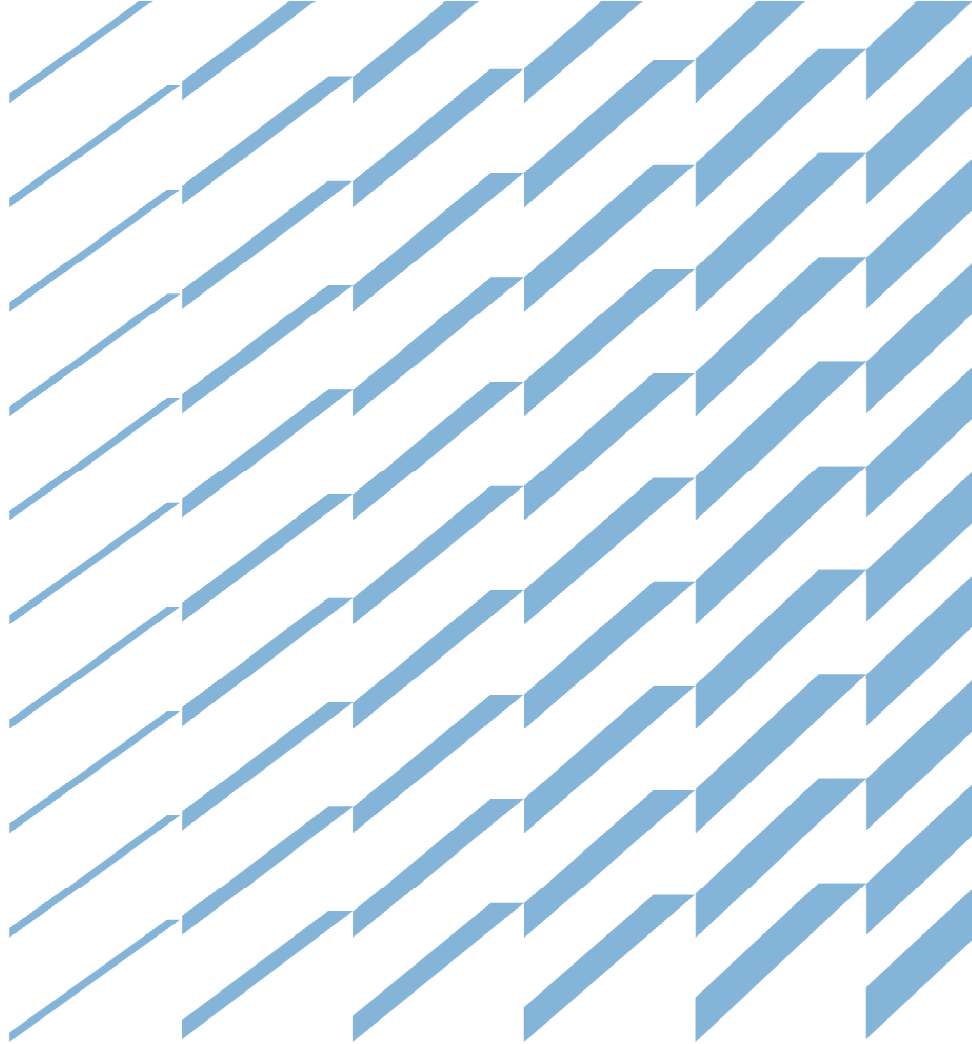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 영성·사목 및 문화·공공예술·교육 프로그램

- 일상적인 순례 사업으로 공통 순례 교재·기도서를 제작하고 대상(청소년·청년·가정)별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또한 정기적인 사업으로 2027 서울 WYD 이후 프로그램으로 천주교와 관련한 특정한 시기를 정해 (가칭) K-Youth 순례 주간을 개최함
 - 사제·수도자·신학생을 위한 연수 코스 개발
 - 사목자와 직접 K-순례길을 걸으며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K-순례길 페스티벌(음악회·강연·전시) 등을 발굴함
 - 순례 영화제·사진전 등을 개최. 서울-충남-전북이 연도별로 순회 개최하거나 권역별 주제를 특화해 동시 개최하는 방식 등을 구상

[표 5-13] Pilgrimage Music & Cultural Festival 사례

- 순례 음악 및 문화 축제는 미국 테네시주 프랭클린에서 매년 열리는 예술 축제: 9월 개최
- 순례의 의미
 - 프랭클린(Franklin)의 200년 된 아름다운 벨린스데일 공원에서 개최, 여기에 모이는 자체가 순례
 - 음악과 문화의 다양한 경험을 순례로 표현
 - 가족 친화적 환경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이 함께 모여 음악·문화를 즐기며 공동체 의식 함양
- 특정 종교 의미보다는 훌륭한 음악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라는 현대적 비유적 개념으로 순례 테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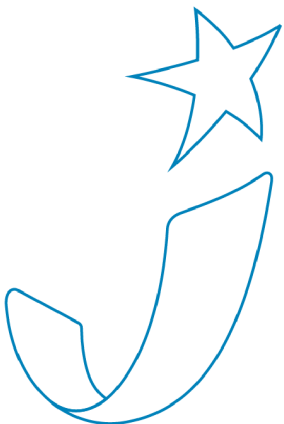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제6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실행 관련 제언



제6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 WYD 개최 지원과 지역발전 기회로 삼는 방안 모색

- WYD는 세계 각국의 10~20대 청년과 일반 국민도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이뤄진다는 점, 대회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는 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세계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WYD 주제를 지역사회에 내재화하고, WYD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모두의 WYD와 환대의 영성문화 거점’을 위한 전략과 세부 사업 도출

- 2027 서울 WYD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대회 주제처럼 세계 각국 청년이 한국에 모여 “희망과 용기로 두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장임. 이는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이 시대 청년에게 해줘야 하는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교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 진행뿐 아니라, 종교를 넘은 모두의 참여 속에서 “희망과 용기”가 지역사회에 내재화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2027 서울 WYD 대응의 첫 번째 전략으로 WYD 정신의 지역화를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모두의 WYD”를 첫 번째 목표로, 이를 기회 삼아 전복을 “환대의 영성문화 국제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전주교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K-영성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음
- 구체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환대의 문화로 모두의 WYD가 되도록 지원하고, WYD 이후에도 공존과 치유의 국제거점을 목표로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음

[표 6-1] 2027 서울 WYD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의 목표, 전략, 세부사업(안)

목표	전략	세부 사업	주관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원과 특성화	WYD 정신의 지역화	• WYD 주제를 반영한 ‘모두의 WYD’ 슬로건 설정	지
		•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용기학교(가칭) 운영	교
		• 다문화·약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 프로젝트	도, 교, 민
		• ‘온숨’ 전북 버전 - 나무심기·생태 순례	교
		• WYD 유산화(Legacy) 프로젝트	지, 교
	전주교구 대회지원	• 전북 민관협의체 구성: 전북WYD지원위원회(가칭)	도
		• 전주교구대회 지원 전담 전북도 조직(TF팀) 운영	도
	가장 한국적인 전주 교구대회 지원	• 예술로 환대하는 전주교구대회: 예술 환대 추진단(가칭) 및 예술 환대 봉사단 등 운영, 예술 환대 기록 프로젝트 추진	지, 재, 민
		•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과 WYD 홍보	지, 교, 재
		• 세계청년 전북대회: JYD-pre DID(Jeonju Youth Day)	지, 교, 재
		• 예술가·시민·신도이 만드는 전주교구대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 교, 재
		• 전주교구대회 주제, ‘일곱 개의 만남’ 연계	지, 시군
		• 전북도만의 ‘환대 꾸러미’(welcome kit) 제작 지원	지, 도, 재
		• K-공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 교
		• 전주교구대회 연계 전통예술행사 개최, 장소별 ‘예술난장’ 개최	지, 교, 재
		• 천주교 성지 활용 ‘K-미디어 파사드’ 공연	시군, 교, 민
전북 영성문화의 글로벌화	K-영성 문화의 거점화	• 천주교 실감콘텐츠 개발: 디지털휴먼 기반 메모리얼 로드 구축	시군, 교, 민
		• 종교유산 공연 제작 및 상설 공연	교, 재
		• 순례길 명소화 사업(중·장기)	도, 교
		• 전주교구대회 연계 순례 프로그램(안): 치유관광과의 만남, 성지 걷기, 순례길과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과의 결합, 순례자의 치유	도, 교, 재
		• 다시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청년대회 기록관 조성	도, 교
		• 전북청년축제 연계, 리턴 청년축제 개최	도, 교
		• 전북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도, 교
		• 종교간대화센터(가칭) 건립	도
		• 종교 및 영성문화 국제행사 개발	도, 교
	전북 종교유산 국제화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북 지역의 천주교 교우촌(공소) 종합조사, 전북 지역 교우촌(공소)의 탁월한 가치 정립	도, 교
		• 국제순례지 지정 추진: 국제순례지 지정 대상 설정, 국제순례지 지정 기초조사 및 조성계획, 국제순례지 지정 절차 추진, 전북 (전주) 국제순례지 명소화 사업 추진	도, 교
		• K-순례 네트워크 구축: ‘3대 권역 1개의 큰길’ 개념, 공동 협의체 구성 및 공동계획 수립, 물리적 인프라·노선 정비, 영상·사목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 교

* 주관: 지-지원위원회, 도-전북특별자치도, 시군-해당 권역 시군, 교-전주교구대회조직위원회,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민-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2. 실행 관련 제언

■ 모두의 협의 체계 구축과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 ‘모두의 WYD’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모두의 참여임. 신자와 비신자 모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지역사회의 각 분야가 함께 전북을 방문하는 세계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을 맞이하는 게 중요함. 도-시군 지원, 지자체·교구 협력,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2026년 시작부터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함
- 전주교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협력체계를 통해 논의되고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모두의 WYD’, ‘환대의 영성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협력 체계별로 공유하고, 각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마스터플랜을 확립해야 함

■ 모두의 WYD를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 및 홍보

- 지역사회에서는 WYD와 전주교구대회의 이해가 높지 않음. WYD가 종교행사를 넘은 세계 청년의 축제라는 사실, 전주교구대회가 전북의 영성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사실, 이를 실현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26년 두 번의 예비 행사(Youth Festival, 세계청년 전북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행사를 통해 2027년 전주교구대회 준비부터 영성문화 활용 방안이 구체화 되도록 지자체·교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영성문화 거점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필요

- 전북(전주) 순례길을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지정받으려면 순례길의 탁월한 가치부터 방문객 현황 및 관련 연구 결과, 전례와 교류 프로그램 등의 실태가 조사·분석되어야 함.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 및 순례길 조성계획 수립 연구가 필요함
-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전북 내 교우공동체(공소)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탁월한 가치를 분석해야 함. 충청남도 사례처럼, 관련 연구가 지자체·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토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3),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서산시
- 권영명. (2022).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받는 과정에 대한 고찰. 제9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김진소. (1987). 신바람 사는 보람. 한국교회사연구소.
- (1998). 전동성당 100년사.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교회.
- (1998). 천주교 전주교구사1. 천주교 전주교구.
- (2002).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증편지. 호남교회사연구소.
- (2007). 한국사회와 천주교. 김진소 신부 고회 기념 논총.
- 김진형. (2021).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45-69.
- 문화재청. (2018). 종교문화유산 활용 정책 연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변찬복. (2013). 영성의 현대적 의미와 관광. 한국관광학회.
- 송현동, 김경한. (2011).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관광연구.
- 신앙문화해설사회. (2023). 전주교구 성지 해설. 호남교회사연구소.
- 오정근. (2013).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자의 체험과 만족도 연구. 관광학연구.
- 유병덕, 최영화. (2014).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충남연구원.
- 유영운. (2024). 전주교구복자약전·자료집.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해설사회.
- 이영춘. (2021). 어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 전주교구.
- (2021). 최초 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역사 재조명을 위한 과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2023). 한국 천주교 역사. 호남교회사연구소
- 이윤정. (2019, 2021). 영성관광 개념화 연구. 관광학연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2).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 정두희. (2003).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호남교회사연구소.
- 천주교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18). 천주교 서울순례길(www.haemi.or.kr).

- 천주교 전주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2020). 전주교구 성지순례 안내. 전주: 전주교구.
- 충청남도, 충남역사문화원. (2024). 2023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한국 천주교 순례 안내.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Abdul Halim, A. et al. (2021). Dimensions of spiritual intelligence in tourism. *Journal of Tourism Studies*.
- Association of Catholic Shrines and Pilgrimages in Europe (ACRP). (2016). Guidelines for Shrines and Pilgrimages in Europe. Brussels: ACRP.
- Brennan, C., & Kessler, M. (2025). From ritual to renewal: Templestays as sustainable wellness tourism.
- Cheer, J. et al. (2017). Spiritual tourism and motiv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 Codex Iuris Canonici (CIC). (1983). *Codex Iuris Canonici: Canon Law of the Catholic Church*.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Canons 1230-1234).
- Collins-Kreiner, N. (2010). Researching pilgrimag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2), 440-456.
- Durkheim, É. (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K. E. Fields, Trans.).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2).
- Gall, T. L., Malette, J., & Guirguis-Younger, M. (2011). Spirituality and Religiousness: A Diversity of Definitions.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13(3):158-181.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Han, S., & Kim, J. (2024). The effect of the authenticity of the Seoul Catholic pilgrimage route.
- Heelas, P., & Woodhead, L. (2005). *The Spiritual Revolution: Why Religion is Giving Way to Spirituality*. Oxford: Blackwell.
- Hudman, L., & Jackson, R. (1992).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New Evangelization. (1993). *Guidelines*

- on Shrines and Pilgrimages.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 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New Evangelization. (2017). Directory for the Pastoral of Shrines.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 Rinschede, G. (1992). Forms of religious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 Shinde, K. (2012). Religious tourism and religious tolerance: Insights from pilgrimage sites in India. *Tourism Review*, 67(2), 36-45.
- Smith, V. (1992). The quest in guest. *Annals of Tourism Research*.
- Turner, V., & Turner, E. (1978).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 UNESCO. (2010).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Paris: UNESCO.
- Victor, C. G. P. (2020). Religion and Spiritualit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2), 845-860.
- 대전CBS. (2014.03.12). 교황 방문 준비 충남 관련기관 첫 합동회의.
- 오마이뉴스. (24.6.16).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 체험관 본격 운영 시작.
- 충청남도 보도자료. (24.10.9). 김태흠 지사 '교황 충남 재방문' 요청.
- 충청남도. (2015.1). 2014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 그날의 감동.
- 한국일보. (25.8.13). 충남 당진 솔피성지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

Strategic Responses to the 2027 Seoul World Youth Day and Linkag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Segil Jang · Sangyoup Kim · Jiwon Shin

1.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ology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policy measur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i) welcome and foster solidarity with youth from around the world in a spirit of hospitality, (ii) embed the themes of World Youth Day (WYD) within the local community, and (iii) leverage WYD as a catalyst for regional development.

■ Methodology and Scope

- The scope of this research encompasses: (a) developing support measure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Jeonju Diocesan WYD events, and (b) identifying strategies and priority tasks to position Jeonbuk as an international hub for spiritual culture.
-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study adopts a rational-analytic framework comprising three stages: (1) environmental analysis, (2) derivation of key implications, and (3) formulation of strategic tasks. Specifically, the macro-environment was assessed using the PEST framework, while the micro-environment was analyzed through the 3Cs

model. Key implications were synthesized via SWOT analysis, and strategic directions were subsequently articulated using the TOWS matrix.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ic Directions and Initiatives for “WYD for All” and an “International Hub of Spiritual Culture”

- This study defines “WYD for All” as its primary objective and, building on this momentum, seeks to establish Jeonbuk as a pivotal international hub for hospitality-based spiritual culture. Accordingly, it proposes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Jeonju Diocesan events and to advance Jeonbuk as a center for K-spiritual culture.
- Specifically, the study emphasizes fostering an inclusive WYD environment through voluntary resident participation and a community-wide culture of hospitality. Furthermore, it identifies post-WYD initiatives aimed at sustaining a global hub dedicated to coexistence, healing, and long-term international engagement.

Key Words

World Youth Day(WYD), religious heritage, spirituality, World Religious Culture Festival, Catholicism, Diocesan event, pilgrimage

정책연구 2025-39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응 및 지역발전 연계전략 구상

발 행 인 | 장 성 화

발 행 일 |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04-0 9530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